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소공공인연

응답자와의 만남 이야기

因緣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소공작업 인연

응답자와의 만.남.이.야.기

因緣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발간사

소중한 인연(因緣), 응답자와의 만남 이야기



우리는 흔히 통계가 정부의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통계에는 정부정책의 주요 고객인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수입은 얼마인지? 수입 중에 얼마만큼을 자녀들의 교육이나 주택구입 비용에 지출하는지? 농가는 쌀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상점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은 상품을 얼마나 판매하는지? 등 다양한 정보들이 통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현장조사직원이 가구, 농어가, 사업체를 방문하여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응답자와의 첫 대화로 시작된 소중한 인연(因緣)들이 모여 작성됩니다. 모든 인연이 그러하듯이 현장조사 직원과 응답자와의 첫 만남은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조사직원은 응답자의 힘겨운 일상을 지켜보면서, 통계자료를 얻기 전에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응답자도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통계를 자주 접하면서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통계자료의 정확한 수집을 위해 애쓰는 현장조사직원들의 남다른 사명감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낯선 사람에서 낯익은 사람으로 진전되고, 통계 자료는 진솔한 대화를 위한 좋은 재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둘의 대화를 통해 작성된 통계자료는 두 사람 이외에도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에는 통계를 연결 고리로 시작된 현장조사직원과 응답자와의 만남이 감동적인 인연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례집이 현장 조사직원과 응답자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열악해져 가는 조사 환경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통계조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현장조사직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응답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12월

통계청장 박 형 수



2014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소공작인연

CONTENTS



조사직원 부문

인연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본청 우수사례

- 대 상 장 해 진 | 스도꾸와 욱쟁이 할머니 • 08
- 금 상 장 민 숙 | 규정 속도 지키며 당신께 달려갑니다...! • 22
- 은 상 강 다 영 | 차도녀에서 파시녀로 • 34
- 동 상 이 소 영 | 다가가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 42
- 동 상 장 은 선 | 그 해, 여름과 가을.. 겨울의 바닷가 • 55

공감과 기다림으로 이어진 인연

지방청 장려상

- 장려상 김 문 수 |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합니까? • 66
- 장려상 임 미 선 | 첩첩산중 12고개 • 79
- 장려상 임 형 렬 | 현장조사원의 양익(兩翼), 공감과 기다림 • 88
- 장려상 이 송 이 | 혼자가 아니야 • 101
- 장려상 박 래 용 | 풍장군과의 한판승! • 108
- 장려상 신 은 정 | 선글라스 아저씨와 노랑바지 아줌마 부부 • 115
- 장려상 최 희 아 | 나의 첫 연동표본조사 체험기 • 124
- 장려상 조 미 순 | 농업통계 새내기 of 좌충우돌 성장기 • 135
- 장려상 김 지 현 | 뽕초보 of 좌충우돌 현장조사 • 142
- 장려상 양 경 주 | 초보 통계공무원의 성장기 • 151
- 장려상 심 재 영 |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 161





장려상 심 혜 숙 | 31년, 나의 행복한 성장기, 두려움은 저 멀리! 희망은 가까이! • 172

장려상 이 정 미 | 갑이 되고 싶은 을의 꿈 • 180

장려상 오 은 정 | 작물이나 지심(잡풀)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 188

장려상 윤 용 근 | 당신에게도 통계가 필요할 날이 올 것입니다 • 198

장려상 이 분 이 | 물가네비게이터 • 204

장려상 황 다 혜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214

응답자 부문



함께 걷어가는 소중한 인연

응답자 부문 특별상

특별상 김 광 희 | 할아버지가 가게부름? • 226

특별상 김 시 정 | 시작이 반이다 • 230

특별상 배 임 순 | 갈수록 재미나는 전자가계부 • 234

특별상 박 수 희 | 멋진 미래를 설계하며... • 237

특별상 조 경 란 | 가게부름 쓰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 244

특별상 임 의 목 | 통계청 파이팅! • 249

특별상 김 지 하 | 74세에 시작한 3년 약정 통계예금 • 252







인연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통계청 현장조사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3년간 또는 5년간의 조사기간은 그들과 나의 아름다운 동행이었다.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지만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부터 집안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손가락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가족이 아닌 가족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으며, 같이 울고, 웃던 수많은 사연들과 함께 서로의 삶에 동행이 되었던 순간들이었다.

- 대상작 「스도꾸와 욱쟁이 할머니」 중에서 -





스도꾸와 육쟁이 할머니

(인연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충청지방통계청 장 혜 진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하나

인연(因緣).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또는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연줄을 인연이라고 한다. 통계청에서 근무한 지 벌써 9년차가 되었다. 뒤돌아보면 나는 통계라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인연을 쌓았던 것 같다. 가계동향조사, 어가경제조사라는 이름으로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 내가 살면서 만날 일이 없었을 사람들. 또는 지나가다 잠깐 스치는 정도였을 사람들을 통계청 현장조사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3년간 또는 5년간의 조사기간은 그들과 나의 아름다운 동행이었다.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지만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부터 집안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손가락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가족이 아닌 가족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으며, 같이 울고, 웃던



스도꾸와 육쟁이 할머니



수많은 사연들과 함께 서로의 삶에 동행이 되었던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3년 동안 통계조사에 응답을 부탁하는 연동은 더욱 더 녹록치 않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1년 차면 1년 차대로, 9년 차면 9년 차대로 모두 겁을 내는 일, 그게 연동이다. 그리고 연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만둘까? 차라리 포기할까? 등 여러 가지 생각들로 꼬蚣 닫힌 현관문 앞에서 망설임과 수없이 싸우곤 한다. 한 번 설정된 표본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 쉽게 바꿀 수 없는 일이라 응답자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문과 큰 용기가 필요한지...

나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일인지라 지난 1년간 나의 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리고 내가 자신있게 문을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주는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첫 번째 이야기: 통계, 이웃을 만든다.

움켜진 인연보다는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각박한 인연보다는 넉넉한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해가 되는 인연보다 도움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짐이 되는 인연보다 힘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 좋은 생각 -

첫 번째 불응가구는 소박한 옷차림의 아주머니였다. 차분한 인상으로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 같았다. 나를 다행이다 싶어서 가계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드렸더니, 표정 없이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다시는 찾아오셔서 귀찮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조금은 쉬

올 거라 생각했던 집이었는데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다시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하여도 아주머니는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계속 올 필요 없다고만 하셨다.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것이 싫으신 것 같았다. 여러 번 방문한 결과 쉽게 설득될 곳이 아닌 것 같아 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분에게 꼭 맞는 설득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웃 분에게 여쭙어 보니 퇴직 후 남편의 건강을 위해 낯선 보령으로 새로 터를 내린 가구라 한다. 평소 이웃과 왕래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현장 경험으로 보건데 이분은 오랜 도시에서의 생활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 데다 낯선 환경과 아픈 남편이 있는 상황이라 쉽게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목적이나 부탁을 하는 일보다 자주 찾아뵙고 신뢰감을 드리는 것이 먼저였다. 그래서 나는 조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종종 찾아갔고, 시간 날 때마다 안부를 물었으며, 집 앞에도 사무소에서 만든 통통소식지와 가계조사 관련 리플릿과 함께 전화번호가 담긴 손글을 남겼다.



그러던 5월의 연휴 날. 투병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전화벨이 울려 보니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거기 혹시 통계청...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불운 가구를 설득해 본 사람은 안다. 항상 전화기가 울릴 때 마다, 그 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화를 내거나, 단호하게 나를 거절했던 목소리이지만 불운가구의 목소리 이기를 바라고 바란다. 그래서 그 목소리이다 싶으면 바로 숨도 쉬지 않고,





아~, 네 어머니님. 저예요. 통계청. 그날 나도 그랬다. 그러자 전화기 뒤편의 목소리가 안정이 되면서, 저어... 혹시 보령에서 열쇠집 알고 있는 곳이 있나요? 휴 일이라 여기 저기 열쇠집을 알아봤는데 문 연 곳이 없어서... 라고 말을 이으셨다. 휴일에 열쇠집을 찾으시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생기신 듯 했다. 어머니, 제가 열쇠집 아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연락해 볼게요. 라며 우선 안심시켜 드리고서 사정을 여쭙어 보았다. 내가 절에 갔다가 열쇠를 차 안에 놓고 내렸는데 우리 바깥양반은 조문을 가서 쉽게 올 거리도 아니고 해서 오늘 안 들어온다고 했어.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쉬는 날인데 문 연 열쇠집이 있을까? 집 주변을 돌아 다녔는데도 열쇠집이 없네. 라며 목소리에서 또 다시 불안감이 느껴졌다. 날도 어두운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고도 없으신 분이 집 문 앞에서 혼자 계시는 것이라 생각되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에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관계로 직접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주머니 성향에 옆집에 사정도 하지 못하실 것 같았다.

그래서 어디 있을 곳도 수소문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어디에다 부탁을 해야 하나 생각하다 보니, 혼자 사시는 빨간 대문 집 할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 열쇠집이랑 연락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도 어두운데 밖에 혼자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빨간 대문 집 할머니 아세요? 그 분도 통계조사 해주시는데.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우리 집 들렀다가 가는 집이지? 지나다가 몇 번 뵈었지. 인사도 항상 먼저 해주셔서 기억이 나~. 하셨다.

다행이다 싶었다. 말투에 그리 싫어하는 분이 아닌 듯하였다. 그러면, 어머니 제가 그분한테 전화 드려 놓을 테니까, 할머니 댁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하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주머니도 싫지 않은 기색이지만 그래

도 될까?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셨다.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말뼉 해드리
는 것 좋아해요. 라고 말하자 수화기 너머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승낙이리
라. 어머니 그럼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다. 그리고는 빨간 대문 할
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씀드렸다. 워낙 성격이 호탕하신 분이요 나
를 예쁘게 봐 주시는 할머니라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어머니를 데리러까지
가주셨다. 휴일에 열쇠집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열쇠집을 하는 분도
연휴라 가족들과 함께 여행 중이어서 다음 날 점심때에야 가능하다고 하셨
다. 하룻밤이 지나야만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시 아주머니께 연락
을 드려 상황을 설명드리자, 할머니께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두 분은 밤새 그 동안 살아오신 이야기와 자녀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셨다. 다음 날 급히 일을 마치고, 오후가 돼서야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니 어머니께서 웃으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안심이 되었다.

어제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통계청
전화번호가 집 앞에 붙어 있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주 찾아오
고, 시간 되면 얼굴보고 가는 게 믿음이 가서. 연락을 했어. 라며 부끄럽게
웃으신다. 내가 여기가 낯설어서. 살던 곳이란 사람들이 달라 보여서. 그래
서 그랬어. 그동안 미안했어. 말씀하시는데, 예전 남편을 따라 처음 보령에
내려왔을 때의 내 모습이 겹쳐졌다. 낯선 곳이고, 시골이란 이유로 혼자 전
전궁궁해 하면서 사람들에게 담을 쌓았던 내 모습. 그리고 통계조사를 하면
서 사람들을 하나, 둘 알아갔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 조사하러 와. 옆집 아주머니 말씀 들으니까 통계조사에 대답하는게
그리 어렵지 않은 거라 하대. 나도 가계부 하나 쥐 봐. 잘 쓰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 해 볼게.





이렇게 또 한 분이 마음을 열었고, 나와 인연을 맺었고, 3년간 가게조사라는 동행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후 새로운 보령 덕과 빨간 대문 집 할머니는 통계로 이웃이 되었고, 그 인연은 진행 중이다.



IIII 두 번째 이야기: 그 남자 이야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섬.

그 곳에 도달하기까지 내야하는 용기가 얼마나 큰가.

외롭고 고독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위안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이고 싶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빼고는 아버지인 남자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이야기이다.

낮에 방문할 때 마다 문은 열리지는 않고 TV 소리며,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맞벌이 가구인가 보다 싶어 저녁 방문과 주말 오전, 오후 방문 등 시간을 달리한 방문 전략을 세웠다. 그러던 토요일 오전, 드디어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이에요. 하는 말과 동시에 안에서 작은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어? 어른들 안 계셔? 엄마는? 그러자 뒤에서 할머니가 누가 아무나 함부로 문 열어주라고 했어! 하면서 엄한 얼굴로 다가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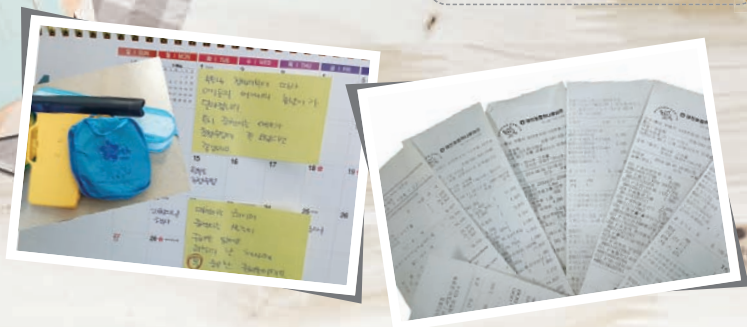
통계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가게조사 표본으로 선정되었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나는 여기에서 살지 않아. 아들이 애들 엄마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내가 살림 해주러 잠깐씩 오는 거야. 라 하셨다. 그래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드님 좀 만날 수 없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아

들은 지금 없고, 바빠서 안 될 거라면서 돌아가라고 하셨다. 더 이상 설득은 무리라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렇다고 아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주변 지역을 조사 할 때마다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일적인 욕심 때문에 그 집을 오기로 방문했고, 할머니와 친해져서 꼭 아들을 만나리라는 목적으로 자주 자주 찾아갔다. 아 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식 등을 조금씩 사다 드렸다. 그러기를 여러 번. 드디어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다. 아이 들 엄마랑 아드님이 사별한지 2~3년이 되었고, 그 뒤로 아드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지금은 회사도 그만두고 쉰지 꽤 오래되었다고 하셨다. 할머니의 깊은 한숨에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닥 넓지 않은 집. 그의 쓸쓸 함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할머니의 푸 념 속에서 보지 않았던 가구주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에 누군가와 웃고, 함께 무언가를 해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죄스럽다 생각 하는 듯 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있는데 쉽게 무언가를 결정할 수도 없는 처지인 듯 보였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 시켰나 싶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아들과 손주들이 어찌 될까봐 걱정하 시는 듯 했다.

그 뒤 나의 방문은 조사를 위함이 아니게 되었다. 우선 두 아이를 둔 아이 의 엄마로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에게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버거웠으리라.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게 없을까 생각하다 나는 아들과 같은 학급의 학부모를 지 인 중에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가계조사를 통해서 친해지고 계속 연락하고 있던 응답자의 딸아이가 둘째 아들과 같은 반이었다. 아이 이름을 이야기 하





니 어느 정도 집안 사정을 안다고 하였다. 그 아이가 조사 대상 가구라 하니 학교 행사나 준비물이 있을 때마다 첫째 아이 것까지 나에게 문자를 넣어 주거나 카톡을 보내주어서 아이들의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주거나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할머니께 다음 날 꼭 챙겨주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알려드렸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달의 학교 행사를 미리 미리 달력에 표시해 드리곤 했다.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께서는 미안하셨는지 아이들 아빠한테서 받은 것이 라면서 영수증을 모아서 주셨다. 그리고 내가 오는 날을 표시해 두었다가 그 날에 맞춰서 아들 집을 방문해 살림을 보살펴 주시며 영수증을 모아서 주셨다. 그러기를 몇 달이 되어가는 어느 날,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전해 주려고 갔는데, 할머니 대신 아이들 아빠가 문을 열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에서 왔어요. 내일 학교 준비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하며, 어쩐지 당황스러워서 할머니를 문틈으로 찾았다. 오늘 어머니께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하며 그가 내민 손에 차곡차곡 모아진 영수증이 있었다.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 살림을 대신 해주시고, 음식도 만들어 오셔서 생활비로 나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 네. 영수증 감사합니다. 이거 내일 둘째, 중현이 챙겨서 보내시면 돼요. 하며 쪽지에 준비물을 적어드렸다. 그러자 무표정했던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멧쩍은 듯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그를 뒤로 하고 돌아서는 내 발걸음은 더 두꺼워진 영수증보다도 현관문을 열 듯 마음의 문을 열어준 그가 더 고마웠다. 그렇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종종 할머니 대신 영수증을 건네주는 경우가 늘었으며, 영수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지에 적어주었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곤 한다. 그리고 그의 단 순했던 가계부 내역이 많아지고, 영수증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있구나 싶어, 감사하면서 그와 그의 어머니, 아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



||| 세 번째 이야기: 스도꾸와 욕쟁이 할머니

우리는 사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진다.

그리고 누눈가를 만나고 완전히 알게 되기까지의 거리

그 속도는 바람처럼 빠르기도 하지만

때론 너무 느리고 더덕서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가구의 이야기이다.

유독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며 완강히 조사를 거부하셨다. 속으로 생각하길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었으면 지금 저리실까? 생각하면서 방문하기를 여러 번. 할머니를 만나기가 정말로 힘들었다.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가 뭘까 궁금해서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야기로는 할머니가 전직 포





주셨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할머니 성격이 만만치 않으니 그 집은 포기하라고 할 뿐 할머니 덕에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통계조사라는 것이 무섭다고, 성격이 만만치 않다고 포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나 역시 만만치 않겠다 싶어 닫힌 문 앞에서 조금씩 망설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현장조사원이 아니던가. 남들 시선대로 안 되는 곳이다 싶으면 포기하고, 거절한다고 불응 처리를 한다면 조사 전문가가 아닌 법. 그런 오기로 다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몇 번의 방문 끝에 할머니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인사도 건네지도 않고 눈만 마주쳤는데도 할머니에게서 걸쭉한 욕들이 날아 왔다. 그 뒤로 방문할 때 마다 듣는 얘기는 빼--익, 빼--익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엔가는 매일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안쓰러우셨는지 저 사람이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마음을 바꾸는 사람 아냐. 이제 진짜 찾아오지 마. 하셨다. 이 집은 정말 안 되나 싶어 가슴이 답답해 왔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조바심이 나서 주말에도 할머니 덕을 기웃대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몇 번, 할머니는 어이가 없으신지 너, 스도꾸냐? 고 하셨다. 무슨 일본말인가? 스쿠터를 왜 찾으시지? 나 스쿠터 없는 데... 하며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서 있었다. 그러자 할머니가 또 왜 왔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정중한 것은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 나도 조금은 편하게 가자 싶어 매일 보다가 안보면 서운할 거 같아서. 눈도장 찍으러 왔지.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해주실 것 같아서... 하며 웃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또 미친X, 아무한테나 어머니라고 하고. 하며 뒤도 돌

아보지 않으시고 문을 쾅! 하고 닫으셨다.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는 가슴이다. 그래도 할머니한테 서운 운운하면서 눈도장 이야기를 했으니 또 가야했다.

그런데 갈 때 마다 나를 보시면 계속 스토꾸, 또 왔냐? 라고 하면서 걸쭉한 욱 한바가지를 하신다. 욱도 듣다 보니 친근해져서 이젠 무섭지도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께 어머니, 근데 스토꾸가 뭐예요?, 왜 제가 스토꾸예요? 라고 물었다. XXX. 매일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하니까 스토꾸지, 그럼 아녀?

아~ 스토커. 스토꾸가 스토커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만 했다. 그리고 무섭기만 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어머니 멋지시네. 스토꾸도 아시고, 웬만한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데...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 갑자기 용기가 나기 시작했다. 근 한 달 만에 욱이 아닌 대화에 신나 이때다 싶어 조사표를 내밀면서 어머니, 가계부를 쓰시면 우리나라가 달라져요. 하면서 가계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려고 서두를 꺼내니, 또 다시 뻘-익.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라며 뻘-익. 욱설과 함께 다시 쾅하고 닫히는 문. 역시 할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셨다. 그래도 여느 날과는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기분은 좋았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비로소 의미가 되고 다시 만날 힘이 된다. 그게 스토커이든, 스토꾸이든, 더디지만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듯 했다.

그 뒤로 난 스토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사탕 몇 개, 강냉이 한 봉지, 사과 한 개 등을 찾아갈 때마다 할머니가 쳐다봐 주지 않아도 마루에 올려놓으며 할머니 등에 대고 할머니 스토꾸 왔다가요, 내일 또 올게요. 하며 매일 출근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한 보름이 지났을까, 할머니가 뭐를 해 줘야 하는데 매일 오는 거야? 물으셨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혹시 맘이 바뀔 지 몰라 뽀





리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에 후다닥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근 두어 달 만에 기본 조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스도꾸, 이젠 됐지? 이젠 귀찮으니까 오지 마. 하셨다.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나 싶었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신다. 어, 어머니 저 앞으로 3년 동안 올거예요. 라며 무서움도 잊고, 철판을 깔고 말씀드렸다. 왜? 궁금한 거 다 말해줬잖아? 하시며 또 다시 빼--익.

또 다시 반복된 할머니 맥으로 출근. 그러다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주말을 건너뛰고 며칠 후 찾아뵈었더니 은근 나를 기다리신 분처럼 왜 안보이나 했어, 스도꾸? 하시는 거다. 아싸 싶다. 뭐, 어머니가 나를 하도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쉬었죠. 보고 싶으셨구나.

그러자 할머니는 또 미친X 이라 하신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뭘 어떻게 해주면 되냐며 또 물으셨다. 난 가계부 작성에 대해 설명을 했고 빼-익. 욕설과 함께 노인네에게 이런 어려운 걸 하라고 한다며 또다시 빼-익, 빼-익... 난 어머니 돈 쓰신 거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와서 대신 써 주면서 가르쳐드릴게. 우선 마트에 가서 물건 사신 것은 영수증 모아주고, 세금 낸 것도 모아주구. 영수증 없는 것은 쪽지에 적어주고. 어머니 쉽지? 라는 말과 동시에 또 뭐, 쉽다고? 이젠 이 X이 나를 놀리나. 빼---익. 그래도 해 주실 거면서? 하니, 조용히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할머니 눈치를 살피시더니 주로 내가 시장이랑 마트를 다니니까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데 나도 이때다 싶어 그래요? 그럼 아버님 잘 부탁드릴게요.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은 지으시며 둘이 알아서 혀, 하지만 귀찮으면 안 할꺼. 라고 말씀만 하시곤 밖으로 나가셨다. 강한 사람한테는 가끔 얼굴에 철판과 단단한 마음과 너스레가 필요할 때가 있는 듯 싶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자네가 싫지 않은가 보네. 욕으로 자네랑 말 벗 했나

보이. 다른 사람들이 집에 드나드는 일이 없으니까.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할머니 뒤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강한 게 아니라 외로우셨구나 싶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할머니는 가장 두려웠던 것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욕으로 자신을 감추고 강한 척한 게 아닐까. 왜 사람이 가장 두려웠을까? 이웃들의 여러 편견의 시선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한 상처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포주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녹록치 않았던 과거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많고, 그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더 크게 마음에 아픔을 남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닫고 욕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강한 척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럴수록 더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멀어져 가는 할머니 등 뒤로 들리시라고 크게 어머니, 나 또 올께. 했다.

근 6개월. 안 보인다고 싶으면, 전화로 욕을 해대시면서 오지 말라고 응답하기 싫다고 으름장을 놓으신다. 어른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다는 이야기이다. 찾아가면 할머니는 한 바가지 욕을 퍼붓고 어렵고, 귀찮다며 조사를 안 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신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문을 왜 열어주었냐며 불뚱이 튜다. 그러면 할아버지와 나는 묘한 동료감에 서로 눈을 찡긍하며 할머니 몰래 슬쩍 웃는다.

다시 또 스토커처럼 나는 욕쟁이 할머니를 방문하고 또 방문한다. 그러면 이제야 못 이긴 척 하시고 가계부를 쓰신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 안 쓰겠다고 욕이 날아온다. 그렇게 스도꾸와 욕쟁이 할머니는 지금도 연인처럼 밀고 당기는 밀당 중이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곳에 가고 싶다는 시처럼 현장조사 일을 하면서 닫혀진 문과 불응 가구를 설득하는 것이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섬





으로 가는 길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마음까지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파도는 얼마이고, 그 것을 위해서 꺼내어야 하는 용기는 얼마나 커야 할까?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노력한다고 반드시 정확하고 진솔한 응답을 해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포기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조사 전문가이다. 쉽게 마음을 열고 응답해주는 사람들만을 조사한다면 전문가 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것이다. 통계에 무관심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대충하는 응답을 정확하고 진솔하게 만드는 일이 나의 일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통계라는 이름의 신뢰라는 섬을 만드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닫힌 문을 향해 계속 두드리고, 방문하고 기다린다.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나눈다. 그것이 내 유일한 설득의 방법인 것 같다. 그리하여 내가 쌓은 소중한 인연들로 하여금 내 가게부들이 비표본 오차 없는 진실하고 진실한 자료가 되어가는 것 같다.

나와의 수많은 인연들. 그 뒤에 통계라는 연결 고리가 있다. 그리고 그 통계는 수많은 나의 소중한 인연의 가운데에 진실 되게 서있다. 그래서 나는 연동을 인연의 문을 여는 것이라 부르고, 통계조사기간을 응답자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얻은 이 인연들은 내 삶 속에 반짝이는 별이 된다. 이 별은 조사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으며, 꿈꿨던 문 앞에서의 망설임을 줄여주고 다시 두드릴 수 있게 해 주는 용기를 준다.

세 개의 불용가구와 다시 시작되는 조사구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3년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 본다.



규정 속도 지키며 당신께 달려갑니다...!

경인지방통계청 장 민 숙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둘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토록 많은 통계조사가 동향 이라는 이름을 달고 매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끔씩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라는 아침 연속극 속 자막을 통해서나 아니면 운전 중 듣던 교통방송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이라는 멘트를 통해 듣게 되는 몇 가지의 소식이 전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어느덧 자랑스러운 통계인이 되어 하루하루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팀에 처음 와서 가구업무를 시작한지 이제 7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엔 남의 집 문 앞에만 서도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매일같이 여는 우리 집 현관 문하고 다를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처음 만나는 사



규정 속도 지키며 당신께 달려갑니다...!



람에 대한 두려움과 잘 응답해 줄까? 하는 걱정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몇 번의 숨을 고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용기내서 문을 두드렸지요. 그렇게 한 달 한 달 마감을 하고 나니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어김없이 또 한 달이 지나고 조사별 마감은 다시 돌아오더군요.

어느 날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닌 한 달 살이 인생을 사는 듯한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입 들어온 가구를 몇 번을 찾아가도 만날 수 없어 고민하던 차 어렵게 만났던 날이었지요. 그날도 역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고, 몇 번을 그러다 역시 오늘도 아무도 없구나..., 하며 내심 속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뒤돌아서는데 누구세요? 하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많이 당황했지만 응답자에게 그런 모습을 들기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준비해 간 멘트를 토박토박 말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런 제 모습이 자신감 있어 보여서 신뢰할 수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응답자의 대답을 기다렸지요. 머릿속으로는 그 다음 대답까지 준비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네! 안 그래도 여러 번 오시게 해서 미안했는데, 제가 좀 바빠서요. 들어오세요. 였습니다.

앵? 이 싱거움은 뭐지?

그때의 심정은 기쁜 마음 반, 믿을 수 없다는 마음 반 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가 천천히 조사를 하는 도중에 알았지요. 그동안 제가 다녀갈 때 마다 명함과 함께 붙여뒀던 여러 번의 메모를 보시고 통계청과 직원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사자가 어떠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는지 응답자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그랬듯이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응답자를 대했다면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자인 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 현관이 7개월 전처럼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분명 좋은 분이 살고 계실 거야... 다음 번엔 집에 계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가구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살짝 이겨내고 첫 전입가구를 무사히 조사한 이후 응답자와 조사자 간의 관계는 마치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지켜야 할 규정 속도가 다르듯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려야 할 속도와 기구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의 출발에서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 현재도 계속되는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반갑게 저를 반겨줄 응답자님들의 환한 얼굴을 기대해 보며 말입니다.

자! 응답자님 준비되셨나요? 신뢰의 안전벨트 메고 응답자님의 개개인 맞춤 규정 속도로 오늘도 달려갑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경운기도 타고 자전거도 타면서 말입니다!!



|||| 하나. 통계청을 홍보하자! 어떻게요? 자연스럽게요...

조사구 인수받던 날 같은 아파트 조사구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아파트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관리실까지 뭐 하나 만만해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인사차 들어간 관리실은 넓고 깨끗했고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에도 조사당



규정 속도 지키며 당산계 달려갑니다...!

당 직원이 또 바뀌면 피곤하다는 여직원의 뒷말이 대답이었지요. 아파트 입구는 역시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었고 어렵사리 들어가 벨을 눌렀지만 20가구 중 5가구도 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면접보다는 전화나 보조조사표를 이용한 조사를 선호하는 분위기였지요. 응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첫 느낌은 조사는 되고 있지만 왠지 낯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바쁘고 어찌다 얼굴을 마주치면 서로 어색한 시간만 흘렀지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조차도 친하게 다가가기엔 거리감이 느껴지는 조사구였습니다.

친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경비실에 계시는 경비아저씨와 관리실에 근무하는 소장님, 직원 아가씨들과 택배와 보안 담당을 맡은 보안실 과장님까지 차례대로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때로는 음료수로 케이크로 안되는 애교를 섞어가며 말이지요. 보조조사표를 뿌리러 가며 한 번, 건으러 가며 또 한 번, 불응과 전입가구를 만나러 갈 때 다시 또 한 번... 처음엔 그분들도 어색해하시더니 이제는 제법 반겨주시며 인사를 받아주십니다.

이제는 가구응답자 한 분 한 분과 친해질 차례인 것 같습니다.

대상처가 아닌 분들과는 간단한 인사로도 친해질 수 있지만, 조사 대상처 응답자 분들과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통계청에 대한 조사신뢰와 응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이 곳에 살고 있는 응답자라면 통계청 조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한 것은 없을까? 매달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해주고 계시지는 않을까? 조사에 응해주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내가 만약 여기에 살고 있

는 응답자라면...? 이라는 가정에서 여러 고민을 해봤습니다.

...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알리자! 통계청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부천사무소에서는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조사관 장민숙은 어느 곳을 담당하고 있는지 응답자들의 자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을 홍보하자!

어떻게요? 자연스럽게요...

이 아파트 조사구를 공략하기 위한 저의 모티브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반짝반짝 빛나는 통계 홍보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통계는 제목처럼이나 매달 반짝반짝 빛나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매달 발표되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그달 그달의 인사멘트를 넣어 한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발표된 신문기사는 요약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문기사 만으로도 신뢰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말이지요.

자! 이제는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제가 만든 홍보물을 붙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 안에다 붙이고 싶다. 그러나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홍보물을 붙이기로 마음먹은 날 부재중인 관리실 소장님을 한 시간을 기다려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님도 바로 답을 주시지는 못했습니다. 세대 수도 많고 입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이 자주 있던 아파트여서





조심스럽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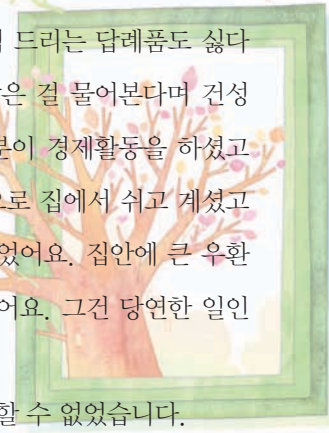
홍보의 중요성과 불응가구를 설득할 중요한 방법이라는 설득 끝에 소장님을 통해 아파트 자치회장님과의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인 후 며칠 뒤 다시 떼는 조건으로 엘리베이터 안에다 홍보물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홍보물을 붙이던 날은 얼마나 뿌듯하던지..., 참 기분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 종이 몇 장 붙이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 있음을 작지만 알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나타나는 변화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 분들 중 젊은 분들 중엔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은 홍보물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는 분과 이렇게 중요한 곳에 쓰이니 좀 더 신경 써서 조사에 응해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중 ○○○호에 사시던 50대 후반의 아주머님이 생각납니다.



눈에 나타나는 불응은 아니었지만 두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답례품도 싫다 하시고 그달의 경제활동에 대해 여쭙보면 매달 똑같은 걸 물어본다며 건성으로 답을 해주시던 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분이 경제활동을 하시고 아주머니는 비정이셨는데 남편 분께서 갑작스런 병으로 집에서 쉬고 계셨고 아주머니는 그런 남편분의 눈치를 보며 지내던 댁이었어요. 집안에 큰 우환이 있으니 통계조사가 뭐 그리 대단하게 여겨지셨겠어요. 그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모르는 저는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 담당자에게 그 댁에 대해 여쭙봤지만 이제껏 잘해주셨다는 얘기 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사자인 저에게 있는 건데 원인을 알 수 없으니 해결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매달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은 홍보물과 제 명함을 보시고 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의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고 현재 남편 분은 병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요즘은 일을 조금씩 나가신다는 말씀이셨어요. 홍보물을 볼 때마다 드는 미안한 마음에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가끔 남편 분께서 낮에도 집에 계시는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는 아주머니께 직접 전화 조사 하라는 당부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이번 달 마감인 9월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입가구였는데 낮에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어 메모와 함께 연락을 부탁 드린다는 메모를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 날 저녁 집에 오는 길에 그분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3층에 사는 친구한테 들어서 통계청 조사에 대해 알고있다고 약속을 잡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층에 사는 분은 사실은 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처는 아



규정 속도 지키며 당신께 달려갑니다…!



니셨어요. 홍보물을 보시고 이 아파트에서 표본으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덕분에 어렵지 않게 전입한 가구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여러 곳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 같아 참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8월엔 이 아파트에도 아파트 자치회장님을 새로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회장님이 임명되었고 그 회장님의 공약사항 중 엘리베이터 홍보물은 아파트 공지사항을 제외한 다른 내용은 게시할 수 없다는 통보에 9월부터는 1층 게시판 옆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좋습니다. 못하게 막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부천사무소에서는 가구업무 외에도 공장 등 제조를 조사하는 경제팀과 물가조사 하는 물가팀, 농가 조사하는 농가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통계라는 업무가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이지요. 농가팀에서 하는 대상처 물건 팔아주기 행사 중 그날은 상추가 대상인 날이었습니다. 상추를 한 박스 사서 지퍼 백에 담고 보조조사표를 뿌리러 가던 날 현관 앞에다 걸어놓고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저희 통계청 부천사무소에서는 여러 곳에서 여러 조사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 농가팀에서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조사와 함께 논농사, 밭농사 등 작물조사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중 요즘 야채가격의 하락으로 힘들어 하시는 대상처도 돕고 선생님들과 맛있는

상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으니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메모를 붙여서 말입니다.

조용히 걸어놓고 온 덕분에 많은 분들이 잘 먹었다는 연락을 주셨고 그중 농사를 짓고 계시던 □□□호 어르신과는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직접 농사지으신 호박과 가지, 상추, 쑥갓 등을 얻어다 먹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응답자 가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몇 달 후 이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이 곳에서만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원인 제가 담당하는 곳이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다른 아파트 조사구에서 마땅한 수입원 없이 재활용 기름을 이용해 빨래비누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파시는 할머니의 비누를 이용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비누를 팔아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아파트 주민분들에겐 제가 원하던 대로 저의 조사구 지역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구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중1동, 김포시 풍무동, 고촌읍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중 풍무동에 살고 계시는 비누를 만들어 파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올 뽀빠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어 준비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라 정성도 듬북이지만 빨래도 겁나 잘 됩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가구 구성원도 다르지만 결국엔 사람 사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방 베란다엔 아직도 만들어 놓은 비누가 가득합니다.





써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귀한 시간 내어서 늘 저희 통계청 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메모와 함께 말이지요.

비닐봉투에 비누 하나씩을 담고 지난 번 사용했던 메모의 포맷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두고 문 앞에 걸어둔 후 며칠 후 다시 자연스럽게 면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정말 신기하게도 △△△호 어머님께서 비누가 참 좋다며 사다줄 수 있냐며 물어오셨습니다. 까칠했던 올 어머님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지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어머님은 마침 집에서 모아두셨던 재활용 기름까지 저에게 전해주셔서 소식을 전하는 까치처럼 기쁜 마음으로 풍무동 응답자 어머님께 기름을 전해드리고 비누를 사들고 와서 △△△호 어머님께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몇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처럼 이곳 조사구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다 보면 저 멀리 넓은 길이 보일 것 같다는 확신을 하면서 말입니다.



IIII 둘. 아~ 연동이여!!

3번 연동을 하게 됐습니다. 가게와 경찰을 같이 하는 연동조사구입니다.

8월에 예비조사를 하였으니 아직 쓴 맛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알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하하~!

처음엔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오피스텔 조사구로 관리실 또한 협조적이거나 세대원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처음 구역 선정 중에 공문만 붙이고 시작하려 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고민 중에 통계가족 직업체험 이라는 제목으로 온 메모보고를 발견하고는 색감과 구성이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 그 포맷을 활용해서 저에게 필요한 자료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공문과 나란히 붙여놓으니 제법 눈에 잘 보입니다. 그렇게 구역설정을 마치고 드디어 8월에 1구역 예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사 4가구, 불응 가구 1가구로 예비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말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팀장님의 조언으로 매월 1구역씩 조사가 아닌 처음부터 전체 가구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9월 경찰 실사 기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표본으로 선정되신 귀댁에 방문 전에 우편으로나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는 글과 간단하게 설명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에 대한 설명, 대표성의 중요함, 그리고 통계청 직원으로서의 다짐 등을 적어 공문과 함께 각 세대에게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직접 가서 우편함에 넣고 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우체국 직인이 찍힌 우편물은 받아보는 순간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함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방문예정일에 맞춰 조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사전 조사 때보다 문을 잘 열어주셨고, 아~ 왔구나 ... 하는 모습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정신이 없어 낯선 사람은 들일 수 없다던 ◇



규정 속도 지키며 당신께 달려갑니다...!

◇◇호 아주머니는 조사하러 다니며 애쓰는 것 같아 안 된 마음에 해주신다며 조사에 응해주셨고, 1구역 예비 조사 때 불응하셨던 ◎◎◎호 아주머니는 너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셔서 가계동향조사 부탁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호 아주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제가 보낸 우편물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응답자 입장에서 시도해본 저의 조사 과정 중 어느 한 곳에서 응답자와 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웃으며 대답해주시던 응답자가 내일 화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조사는 그래서 그때마다 달려야할 길이 다를 수도, 타고 가야 할 기구가 다를 수도, 그리고 응답자에게 달려가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보려는 용기가 필요한 날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세요? 통계청입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은상



차도녀에서 따시녀로

호남지방통계청 강 다 영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셋

< 농가 경제 입문 교과 >

1. 다음 중 알맞은 것 끼리 연결하시오.



2. 다음 중 ()안에 O/X중 알맞은 것을 넣으시오.

- (1) 물외 = 참외 (O)
- (2) 외콩 = 완두콩 (X)
- (3) 숭갼다 = 심었다 (X)
- (4) 쌀을 팔다 = 돈을 주고 쌀을 사다 (O)

0점



차도녀에서 따시녀로



III 제 1장. 농사의 農(농) 자를 알아가는 과정

◎ 귀와 입으로 농사짓기

아버님, 찌어기 심어져 있는 건 마늘이에요? 양파예요? 대파예요?

입사하여 농사와 연을 맺기 시작한 후 내 입에서 나온 수많은 질문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문일 것이다. 우리 농가 아버님은 그때마다 웃으며 친절하게 대답해주신다. 언중유골의 한 마디와 함께.

통계청 직원들을 농대 출신으로 채용해야 해, 이래가지고 정확한 조사나 할 수 있겠어?

내 인생 24년의 시간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간 동안 수학에 열정을 다하고 좋아했다. 그리고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 동안 통계와 함께 지내왔다. 또한 통계청에 들어온 이상 앞으로 수많은 시간을 통계와 함께 지내야 한다. 이런 나에게 아버님의 그 한 마디는 무척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은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말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마 내가 아버님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절로 코웃음이 나왔을 것이다. 파종과 이식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김매기가 김을 수확하는 것인지 알고 있으며, 들깨의 잎이 자기가 좋아하는 깻잎인지도 몰랐던 정말 농사의 농 자도 모르는 병아리가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하지만 7개월 전의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해도 아무 대꾸 못하고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다. 왜? 나 역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나는 앞으로는 더 이상 아버님 입에서 농대 출신을 뽑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轉禍爲福(전화위복); 나는 농사일에 무지하다는 점을 오히려 전략으로 내 세워 아버님께 귀찮도록 질문 공세를 펼칠 수 있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메모하여 그렇게 농사에 대한 지식을 0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갔다. 여전히 내가 질문을 할 때면 아버님은 통계청 직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 하시며 핀잔을 주신다. 하지만 항상 자세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 아무 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내 모습이 마음 속으로는 기특하고 예뻐보이셨나 보다.

7개월 동안 직접 팜방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열심히 입으로 질문하고 귀로 들어 간접적 농사를 지어본 결과 이제는 농사에 대해 아는 척 정도는 할 수 있다. 최근 한 두달 동안은 나를 속상하고 기분 나쁘게 했던 그 말도 들어 본 기억이 없다. 1년 농사를 직접 지어봐야 아, 이제 기경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며 명함을 내밀 수 있겠지만 말이다.

◎ 눈으로 농사짓기

농가경제조사업무를 맡으며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생겼다. 어제도, 오늘도 손에 꼭 쥐고 출장을 다녀왔다. 바로 언제든 작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다.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채소라곤 마트에서 본 깨끗이 다듬어진 모습들이 다였던 나는 밭에서 나올 때 모습의 양파와 마늘, 심지어 대파와 쪽





파도 구분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대파를 쪽파로 잘못 조사했다가 응답자 어머니와 대화 도중 대화가 산으로 간 적도 있다.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바로 정정하였다.

이 후 밭으로 출장을 나갈 때면 스마트폰을 카메라모드로 일발장전! 해 손에 꼭 쥐고 나간다. 아는 작물일지라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찍어 응답자 어머니께 확인을 한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니 더 이상 물에 빠진 적도 없고 빠질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셀카를 좋아하는 나의 핸드폰 카메라 앨범에는 내 사진보다 작물 사진들이 더 가득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으로만 봐도 아는 작물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진을 찍는 빈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또 한 가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 못지않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이 있다. 농업노동투입내역을 누락하지 않고 파악하기 위해 초보농사꾼에게 필요한 족집게 선생님! 네선생님, 바로 네△△이다.

당월에 들어가는 작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농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심은 작물은 언제 어떻게 비료, 농약을 하고 수확 시기는 언제인지 나는 네선생님(네△△)의 도움을 받아 웹상에서 눈으로 농사를 지어본다.

靑出於藍(청출어람); 눈으로 미리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완벽한 농사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통계조사에는 큰 도움이 되며 그렇게 나는 네선생님(네△△) 수제자가 되어가고 있다. 언젠가는 네선생님(네△△)보다 뛰어나게 되는 날이 오겠지.



제2장. 마릴린 먼로의 향수 샤넬 NO.5, 나는 시골 NO.5

◎ 영어보다 어려운 사투리, 구수한 우리 말

업무 인수인계 차 전임 선배님과 동행하여 현장조사에 처음으로 실제 보고 듣고 겪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24년 동안 어학연수 한 번 다녀오지 않았고 한국에서 한글만을 사용하며 살아온 나인데 그 날은 눈 앞에서 선배님과 응답자 어머니가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이번 주는 농사 어떤 일 하셨어요?

저 쪽에 양파 송근데 비로 줌하고 시금치도 송꿔당께.

나중에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선배님께 여쭙보고서야 비로소 대화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송꿔다 는 심었다 의 전라도 사투리이다. 전라도 광주에서 자라고 자연스레 사투리를 사용하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하고 표준어를 쓰려고 안간힘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어 빗어졌던 해프닝이었다.

이후에도 혼자 현장조사 업무를 해가면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

나 어제 쌀 팔았는데 안 적은 거 같은디 적어졌는가 보소.

어머님, 쌀 파셨어요? 쌀 농사 안 지으시잖아요.

쌀 농사 안 짓제. 쌀 팔았당께.

이는 옛 조상들의 민속 문화를 몰랐던 나의 무지에서 온 황당한 상황이었다. 조상들이 집안을 돌봐준다는 생각에서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러간다고





하면 조상들이 화를 낸다고 하여 쌀을 팔러간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아마도 가난을 드러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꾸어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은 또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올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 앞에서 얼음처럼 굳어 버리듯 나도 어머님 앞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딱딱한 분위기를 조성하곤 했다. 선배님과 대화할 때 비취졌던 어머님의 정겨운 모습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음은 당연했다.

영어보다 어려운 사투리와 더불어 조곤조곤하고 억양이 별로 없는 내 말투도 어머님과의 불편한 대화시간에 일조를 했을 것이다. 대화가 뚝 끊기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네선생님(네△△)께 물어보기도 하고 사무실 직원들의 말투를 유심히 들으며 관찰하고 또 배웠다. 지금은 어무니, 궁계 와 같은 정겨운 말투가 친구들과 있을 때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 오히려 주변인들을 당황스럽게 한다.

한 때는 억양이 없다는 평을 듣던 나였기에. 요즘도 간간히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웃으며 다시 되 물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어무니, 그거이 뭘 말یده요? 뭘 말인지 모르겠는디.

◎ 4,4,4공략; 하루에 4끼, 한 달에 4번, 한번에 4분.

대충 대충해~. 뭘 그런 것까지 적어야 해?

농가경제조사 중 작물재배 현황을 조사할 때 한 어머님께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 말이다. 직접 기입해주지 않으셔서 조사를 나가 직접 물어보면 그

런 것까지는 안 적어도 된다고 대답조차 해주지 않으신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소비 목적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조금씩 재배하기 때문에 일일이 영농일지에 기입하는 것이 귀찮고 기록한다 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것저것 잡다한 것까지 질문하다가는 오히려 어머니가 귀찮아서 그나마 적어주시는 것도 안 해주실까 걱정되어 가끔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적도 있다. 하지만 앞 뒤 연관성이 많은 농가경제의 특성상 정확하게 조사표를 정리하려고 보니 상충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조사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중요한 점은 간과한 채 응답자와의 유대관계에만 중점을 두어 조사를 한 결과는 독화살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왔다.

정확한 조사를 하면서도 응답자 어머니, 아버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본 결과 나는 4, 4, 4 공약을 펼쳤다.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보내기 섭섭하신지 어머니께서는 늘 직접 재배하신 과일이나 밥상 등 먹을 것을 넉넉하게 내어주신다. 넉넉한 시골인심을 대표하시는 우리 어머니 댁 방문 시간은 늘 밥 먹고 나른한 두세시쯤이다. 땀 흘려 재배한 신선한 재료들로 나를 위해 차려주신 음식에 어머니 댁을 방문하는 날 만큼은 하루 4끼를 먹는다. 패션 스타일 역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편한 고무줄 바지를 고수한다. 또한 자식들을 모두 타지로 출가시키고 난 빈 자리를 한 달에 4번 이상 4분 정도씩은 조사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드린다.



그렇게 나는 더 정확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막내



딸이 되었다. 지금은 댁에 방문하여 조사를 할 때 다른 손님이 오시면 저를 우리 막내딸 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나 역시 어머님 댁에 다녀올 때면 넉넉한 시골 인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 늘 기분이 좋고 출장 나가는 날이 기다려진다.



III 제3장. 農(농) + 시골 NO.5 = 따시녀

체험사례를 작성하면서 입사 초년생으로서 짧은 통계인으로 시작한 지나온 순간만큼은 길게 느껴졌던 지난 7개월을 뒤돌아 보았다.

1장에서와 같이 농사를 배우고 알아감에 따라 현장 출장 나가는 길이나 시골 외가댁에 가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던 논밭이 농가경제업무를 맡고 나서는 저 작물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기고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된다. 이제 農자 정도는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듯싶다. 써보진 않았지만.

처음 혼자 조사를 위해 농가로 출장을 나갔을 때에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도 몰라 응답자와의 단 10분간의 만남도 1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었다. 2장에서의 경험들을 겪으며 나는 시골 NO.5 향에 매혹되었고 도시여자들과 달리 샤넬 NO.5 대신 시골 NO.5 향에 젖어들었다.

지금은 농가에 방문해 이제 조사를 시작하려는데 어느 새인가 30분이 흘러있고, 주변을 지나다니며 병이 들어 있는 논밭을 볼 때면 우리 농가 아버님, 어머님 댁 작물도 저렇게 시들어버렸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부터 앞선다.

여전히 초보티를 짹짹 내면서 하루하루 무사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지만 처음 농가경제를 받고 현장에 처음 혼자 나갔을 때의 막막함과 긴장감은 아마 평생 동안 못 잊을 것이다.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은 초보 현장공무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조사경험을 계단삼아 차곡차곡 한 계단씩 발전하는 따뜻한 시골여자가 될 것이다.

< 농가 경제 중간 고사 >

1. 다음 중 알맞은 것 끼리 연결하시오.

100점



2. 다음 중 ()안에 O/X중 알맞은 것을 넣으시오.

- (1) 물외 = 참외 (X) 오이
- (2) 외콩 = 완두콩 (O)
- (3) 송궤다 = 심었다 (O)
- (4) 쌀을 팔다 = 돈을 주고 쌀을 사다 (O)





다카라, 한 번도 싱거받지 않은 것처럼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넷

동북지방통계청 이 소 영



III Episode 1. 25살, 난생 처음 겪은 경찰의 취조

지난 3월, 첫 방문부터 투명스런 말투로 통계조사에 비협조적이던 어린 아이 둘의 어머니이자 26살의 젊은 여성 응답자. 대문 벨도 고장이 나서 눌러지지 않고 방문 때마다 대문 앞에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큰 목소리로 계세요~?, 안녕하세요. 통계청이에요~. 를 외쳐야 한다. 하지만 항상 밖에서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 다시 또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하고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서야 대문 앞에서 뵈 수 있었다.

언제든지 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고도 힘들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5월 청년층 부가조사가 있던 달, 언제쯤 일을 그만 두셨냐는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다. 통계조사의 기본은 눈치코치! 전진이 있으면 후진도 있어야 한다. 재빨리 한 발 후퇴하였고 부가조사는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달, 대문 앞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 다음날도 그 다음 날도 방문했지만 뵈 수 없었고 문자와 전화, 모두 대답이 없으셨다. 마치 스토커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정말 연락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뿐이었다. 조사는 커녕 면접을 할 수 없으니 설득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팀장님께 설득지원을 부탁드렸고, 8월 매우 더운 날씨에 팀장님과 함께 동행출장을 나갔다. 조사구에 가시면 항상 한 집은 무조건 설득에 성공하시는 팀장님이시기에 난 천군만마를 얻은 듯 당당하게 조사구로 향했다.

날씨가 더워 마침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대문 밖에서 계십니까~?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여자 분은 대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아버지 뻔 되는 팀장님에게 되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와요! 당장 가세요! 라며 큰소리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내 나이 또래의 젊은 여자. 나한테 소리치는 건 아무렇지 않았지만 더운 날씨에 같이 출장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팀장님께 그렇게 푸대접을 하다니, 괜히 팀장님께 죄송스러워지는 날이었다. 면접이 되지 않으니 팀장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결국 씁쓸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왔다.

그 이후 조사구에 갈 때마다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현관이 열려있었고 나는 굳게 닫혀있는 대문 앞에서 문틈 사이로 인사를 드렸다.

소영 : 안녕하세요~! ^^ (정말이지 나는 이 한 마디 밖에 하지 않았다.)

불응1 : 오지말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와요! 경찰에 신고할거예요!



다가가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소영 : (대문에서 대고)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다른 집에 조사하러 왔다가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들렀어요. ^^

불응1 : (이미 전화를 누르고 있음) 네, 경찰서죠? 자꾸 통계청이라면서 맨날 집 앞에 찾아와서 가지도 않고 있어요. 네. 네.

소영 : 에이, 안 그러셔도 돼요. 인사만 드리고 갈겠는데... 죄송합니다. 저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

쑥쑥하게 뒤돌아서서 골목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정말 경찰이 올까? 싶어 내심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다른 집 조사를 계속 해야 했기에 옆집으로 들어갔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골목에는 경찰차가 와 있었다. 존재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의 덩치를 가진 강한 인상의 경찰 두 분이 골목에서 서서 두리번거리고 계셨다.

순간 나는 헉,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이렇게 나는 당황할 틈도 없이 경찰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경찰1 : 저기, 잠깐만요. 저희가 여기 신고를 받고 왔는데 아가씨가 자꾸 조사하고 다니신다는 분입니까?

경찰2 : 맞네. 딱. 종이 들고.

소영 : 아, 네. 안녕하세요. ^^ 통계청 공무원입니다.

경찰2 : 통계청? 공무원? 새파랗게 어린 아가씨구만...

경찰1 : 아니 뭐 때문에 자꾸 와서 집집이 이것저것 묻고 다닙니까?

소영 : 아.. 통계청에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인구조사 말고도 고용률처럼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략)

경찰1 : 무슨 통계조사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조사를 하신다지만 가구에서

이렇게 싫다고 신고까지 할 정도면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영 : 아, 네. ... (중략) ... 비산5동 이쪽 라인이 표본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위해 꼭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는 공무원증을 메고 있었음에도 경찰들은 내 신분을 의심하였고,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경찰들이 다그치시니 점점 주눅이 들어가고 무서워졌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통계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분들조차도 처음에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다니 나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졌다. 경찰분들에게 매달 이루어지는 경상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표본가구의 대표성 때문에 꼭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제서야 조금은 이해해 주시는 눈치였다.

경찰1 : (내 목에 걸린 공무원증을 들어보시며) 통계청...이소영씨? 공무원 맞기는 맞네요. 너무 어려서 그런가. 의심을 받으시네요. (조각구 쪽을 향하여) 저기요, 여기 아가씨 통계청 공무원 맞습니다.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고 통계조사 하신다고 하네요~.

불응1 : (묵묵부답)

여기서 후회스러운 점은 경찰분과 함께 대문을 열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설득을 했어야 했는데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경찰1 : 아가씨, 미안해요. 우리도 신고를 받고 오면 확인부터 해야하니





우리가 좀 지나쳤던 것 같네. 아이고, 아가씨도 고생이 많긴 많네.
저런 집 상대하려면 힘들겠는데. 젊은 아가씨 혼자서 고생이 많
네. 둘이서 다니지, 왜 혼자서 다니니까?

경찰2 : 여기는 뭐 언제까지 있습니까?

소영 : 아이고,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니깐요. ^^ 괜찮습니다. 조사기
간에 방문하면 오후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가요.

경찰1 : 여기 이 동네는 낮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해요. 조사
다니다가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조금이라도 찝찝한 김새가 느껴
지면 언제든지 112 신고하십시오.

소영 : 아유,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이해해주셔서요. ^^ 정말 감사드려
요. 감사합니다.

내 앞을 지나가는 경찰차를 한참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가구에서 경
찰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고, 같은 공
무수행 중인 경찰마저 나를 의심하고 질타할 때는 말문이 막힐 만큼 답답하
고 막막했다. 결국 나를 위로해주고 가셨긴 하지만 말이다. 외로운 골목에서
경찰 분들의 마지막 위로는 참으로 감사했다.

돌아서서 또 다른 집에 방문하려고 하니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다. 하필
날씨는 어둑하니 비가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통장 아저씨가 날 지켜보고 계셨다. 매번 힘들 때마다 나에게 정보도
주시고 조언도 주시던 통장 아저씨다.

머쓱하게 아저씨를 보며 다 보셨어요? 했더니 아저씨가 다 알겠다는 눈
치로 고개만 끄덕이셨다. 살짝 웃어보였더니 그래, 아가씨 매번 고생해

가며 참 잘하는데 왜 저러나. 에휴.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조심히 가. 라고 하셨다. 몇 마디 아닌데도 아저씨의 측은한 눈빛과 진심어린 위로 때문인지 갑자기 울컥하여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꼭 참고 그쵸~? 왜 저러실까요. 더 열심히 해야지요. ^^ 아저씨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웃으며 참 잘해냈다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눈에선 갑자기 눈물이 났다. 통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내 모습과 통계청 입사 6개월 만에 현장에서 경찰을 마주한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나를 서글프게 하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씩씩하게 조사구 골목에서 그 분을 보면 인사를 드린다. 그 분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며 무시하시지만.... 아직 2년도 더 남은 조사구.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이 열리시길 바라며 나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조사구로 향한다.

(※조사구에서 경찰을 마주하게 되시면 언제나 당당해지세요! 저희는 통계청을 대표하여 공무를 수행 중이며, 혹 경찰이 응답자 편을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 분께 협조를 구해 꼭 설득을 하고 돌아서세요. 안타깝게도 응답자들은 저희보다 경찰을 신뢰하니까요. 경찰 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통계조사의 필요성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가가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Episode 2. 도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팔달시장에서 할머니 찾기!

조사를 시작하고 첫 달, 무난하게 할머니를 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세가 드셨어도 무조건 호칭은 어머니다.^^)
통계청이에요.^^ 집에는 누구 누구 살고 계세요? 아~ 어머니 생년월일은
요? 무슨 띠세요? 그럼 일은 따로 안하시고 집에 계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셨다. 비경이구나...!
집에만 계시니까 면접도 언제든지 가능하겠다. 다행이다. 좋아!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첫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 나는 동네에서 할머니를 뵈 수 없었다. 벨을 눌러도
집에 안 계시고 전화를 드리면 나 지금 바빠. 끊어. , 뭘 자꾸 전화를 해,
나 멀리 와 있어, 끊어. , 나 시골에 일하러 왔어, 끊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할머니도 쉬시겠지 싶어서 전화를 드리면 피곤해, 끊어(뚝).

집에는 안 계시고 연락처를 알아도 전화를 끊어버리시니 대화를 할 수 없
었다. 어떡하지? 기본조사 실컷 다 했는데 할머니 연락처까지 알고 있는데
불응이라고? 비경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지? 할머니
를 불응으로 처리하기엔 미련이 남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연
동1그룹인 조사구, 이미 불응이 여러 가구 있었기에 처음 뵈었을 때 인상이
좋으셨던 할머니. 할머니만큼은 꼭 뵈고 조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 다른 불응가구 설득으로 팀장님과 동행 출장을 나갔던 때였다.

소영 : 팀장님~, 이 댁에 할머니가 예전에 조사를 다 했는데 최근엔 전혀

웬지도 못하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팀장 : (두리번 두리번 하시더니, 다짜고짜 옆집으로 들어가신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입니다. ...(중략)... 옆집에 할매는 어디 일하
러 다니십니까? 집에 도통 안 계시네요.

옆집 : 저기 저 팔달시장에 나간다. 새벽같이 나갔다가 깜깜해져야 들어온다.

팀장 : 팔달시장에서 뭐 팝니까?

옆집 : 뭐 두부하고 콩나물 판다 카데.

팀장 : 소영아, 차 시동 걸어라. 팔달시장 가자.

소영 : 예? 지금이요?

팀장 : 그래, 지금 가서 두부하고 콩나물 파는 할매 찾아보자.

그리하여 팔달시장, 할머니성함, 두부, 콩나물 달랑 이것만으로 한여름
땀별에 나는 팀장님과 함께 무작정 팔달시장으로 향하였다.

대구 3대 전통시장 중 하나인 팔달시장. 가만히 있어도 숨 막히는 대구의
8월... 이 넓은 시장에서 두부 파는 할머니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지?

팔달시장 입구부터 쭉 걸었다. 두부와 콩나물만 찾으면서... 전통시장에
두부와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과연 한 분 뿐이었을까. ㅍㅍㅍ 골목골목마다 두
부랑 콩나물만 보이면 쫓아가서 할머니 얼굴을 보고 같은 질문을 무한반복
하였다. 행운은 절대 한 번에 우리 편이 되어 주질 않는다. 수많은 할머니를
거치고 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드라마처럼 팔달시장이 끝나는 곳 어느
노점에서 우리의 할머니를 찾았다!

소영 : 어! 팀장님 잠깐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 할머니 맞으
시죠! 저 몇 달 전에 뵈었던 통계청 직원이에요.





할머니 : 통계청? 또 왔나?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이까지 찾아 왔노!

소영 : 어머니 연락이 안 되서가지고 여기 시장에서 두부랑 콩나물 파신다 는 소식 듣고 어머니 찾으러 왔지요. 오늘 팀장님이란 같이 왔어요.

할머니 :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내가 뭐라고 이래 자꾸 찾아오노. 가진 것도 없고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내를 왜이래 못살게 구노.

팀장 : 할매, 먹고 살기 힘들지예. 다 먹고 살자고 우리도 이려고 다닙니다.

할머니 : 아이고 장사도 안 되고 새벽같이 나와도 아무것도 없다. 죽겠다.



팔달시장에서 할머니를 뵈고 이야기를 나누는 팀장님과 나의 모습

혼자 방문했을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할머니께서 팀장님과 함께 찾아갔더니 갑자기 이런 저런 힘든 집안 사정과 함께 속내를 말씀해주셨다. 아무래도 나는 한참 어려보이는 데 팀장님과 함께 방문했더니 더 믿음이 가셨나보다.

소영 :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며 경찰 조사항목을 여쭙은 뒤) 어머니 이거 온누리 상품권인데, 여기 시장에서 쓸 수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집에 가실 때 여기서 반찬거리 사서 가세요~. ^^

할머니 : 아이고 고맙다....

한창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콩나물을 사러 온 손님이 나타났다. 우리가 와 있으니 장사도 잘 된다는 팀장님의 너스레에 할머니도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다. 할머니가 안타까웠던 내 마음이 팀장님께도 전해졌을까. 손님이 다녀

가고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콩나물을 갑자기 팀장님이 할매, 이 콩나물 좀 싸주소, 하시더니 콩나물을 팔아주셨다. 시들해진 콩나물 때문에 속상해 하 시던 할머니의 웃음을 볼 수 있던 순간이었다.

팀장님의 약간은 무모했던 도전 덕분에 커다란 팔달시장 안에서 할머니도 찾고, 할머니의 속사정까지 알게 되어 나는 할머니와 더 특별한 인연이 되었다. 이 날 이후로 할머니께 안부전화를 자주 드린다. 적지 않은 연세에 시장에서 하루종일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경찰 답례품이 없는 달에는 작은 간식이라도 사서 들른다. 노령연금도 안 받고 계셔서 동사무소에 직접 알아도 봐드리고,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조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어둑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오시는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서 뛰어갔다. 그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힘드셨지요~? 하면서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리고 돌아섰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노, 라고 하시는 할머니. 처음엔 조사를 하기 위해 할머니를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할머니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뿌듯함으로 매달 할머니를 찾아뵙는다. 할머니,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부재중인 가구주나 가구원이 조사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면, 한번쯤 무작정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보세요! 다만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는 안되는 거 아시죠? 상황을 봐가면서 방문해야겠지만,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라면 짹 짹 놀래키면서 반겨주실지도 몰라요. 저도 또 다른 불응가구의 가구주가 부동산을 하시는 데, 매번 바쁘다고 전화를 끊으시고 면접도 안 해주시는 분입니다. 거기도 또 음료





수 한 통을 사들고 방문했더니, 손님이 많으신 와중에도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기다린 끝에 화기애애하게 조사에 성공하였습니다.)



IIII 글을 마무리하며...

현장조사라는 것이 나가보면 정해진 것이 없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업무이기에 실사주간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올 만큼 많은 걱정을 하게 하고 적잖은 스트레스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을 수가 없기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중이다.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통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데 내가 통계공무원으로서 일부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현장조사는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불운 때문에 가끔 좌절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아주 딱 맞는 업무이다. 능청스럽게 입사하자마자 조사구 응답자들에게 어머니, 언니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선배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였다. 조사구에 가는 동안은 차 안에서 많은 걱정을 하지만, 차에서 내려서 벨을 누르는 순간 힘이 난다. 다시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를 외친다. 현장조사는 나의 천직인가?

나는 처음부터 흔히 쉽지 않은 동네라고 불리는 저소득층이 많은 조사구를 맡게 되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사실 현장조사가 힘들다면 힘들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난 다시 힘을 낸다. 내가 겪는 힘듦은 아무 것도 아니라며...

이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싶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 나는 아직 한없이 부족하지만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직접 부딪치고 경험하며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조사구로 향할 때 나는 항상 통계청을 대표하여 국민들을 대면하는 통계공무원임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나선다. 현장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직원 모두 모두 상처받지 않고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그 날 까지~ 국민 모두가 통계청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 날 까지~ 나는 열심히 발로 뛰어다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류시화 시인이 엮은 내가 좋아하는 시 한 편과 함께 글을 마친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나의 체험사례 제목처럼,

다가가라, 한 번도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



다가가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동상



그 해, 여름과 가을.. 겨울의 바닷가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다섯

동남지방통계청 장 은 선



그 해 2월, 나의 자리를 찾아가다

2013년 설, 그 좋은 명절을 며칠 앞두고 예정된 발령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변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아주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10년 넘게 사회조사과에서 부산 시내 도시가계와 경제활동조사구를 동서남북으로 구석구석 돌아 다녔지만 산으로 밭으로 바다로 가야 할 일은 분명 없었다.

첫날의 느낌!

명절의 설렘에도 직원들은 바쁜 마음과 분주한 몸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오가는 대화는 비계통조사 마감, 미역 다시마 양식조사 마감 등 평소 듣지 못했던 낯설고 생소한 단어들 뿐이었다. 무어라고 말 한 마디 낄 수 없는 이 분위기는 애써 감추기에는 들려버릴 것 같고 낯선 공간에 내버려진 쓸쓸함마저 느껴졌다.

이런 감정은 그렇다, 사치였다. 업무분장은 같이 전입해 온 동료언니들의 배려로 어업통계팀으로 배치되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곳은 동해안을 따라 기장의 바닷가 어촌마을들, 그 곳이 나를 맞아 주었다. 인수인계 또한 알다시피 짧은 만남 속에 긴 기억을 남겨야 하는 고난의 행군임은 비켜 갈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나 현장에서나 모두 낯선 일이기에 무엇보다도 이를 극복해야 하는 마음의 준비부터가 필요했다. 사무실 분들은 익히 알고 지냈던 몇 분이 계셨기에 조금의 위로는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이치. 기억의 한계….

우리 어업통계팀의 직원들은 다들 전문가답게 전혀 막힘없이 조사표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난 한 줄을 정리하다가도 무슨 어법인지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여러 동료들을 고생 꽤나 시켰다. 그래도 다행은 농어업조사과 전문 토박이로 자리매김한 이가 나와 같은 조사관이라 순간순간 필요를 채워주며 곁에서 힘과 용기를 주고 차근차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 해 7월, 잔인한 바다의 슬픔

인수인계 때부터 넘~ 마음에 쏙 들었던 모범적인 가구, 조사구에 보통 1% 해당되는 그 가구였다. 어느 때나 변함없이 늦은 오후시간이 방문 약속 시간이었다.

선생님~~ 잘 계셨지요~

아구, 오셨네요. 방금 자고 일어나 통발 손질중인데 어제는 파도가 많이 치더니 통발이 몇 개나 부서지고 제법 바다로 실려갔쁜네. 이것도 다 돈인데... 또 사야겠어요. 아 참, 가게부. 거실 안에 늘 있던 자리에 있으니 적어 가시오. 내는 할 일이 많아서... 우리 마누라도 시장에서 물고기 다 팔고 와서 방에 있을꺼요.

언니 뭐 하세요? 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가스점검이 아니고 가게부 점검 나왔습니다.

음, 깜빡 잠이 들었네. 어서 오시오. 자~ 가게부.

일주일 분량의 수입 지출이 완벽히 정리된 가게부였다.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매일 바쁜 날들 속에 이 가게부는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때로는 죄송함과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지만 따뜻한 인사와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다. 가게부를 적고 나올 때는 문 밖까지 나오시면서 내 집에 온 손님인데 이것 하나 마시고 가요. 바나나도 하나 먹고... 이렇게 매번 챙겨주셨던 분이셨다.



시간이 흘러 7월 말경. 기장의 학리, 두호, 월전의 바닷가가 술렁거리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있어서는 정말 안 되는 일!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자랑했었던 가구, 두호마을 선생님 댁의 배 충돌 사고 소식. 사고인즉 해가 뜨기 전 밤의 어두움보다 더 무섭다는, 길지도 않았던 새벽 미명시간에 미쳐 앞의 배를 보지 못하고 서로 조업 중에 배끼리 충돌, 배는 전복되어 선생님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함께 조업하시던 언니는 끝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언니의 죽음....

듣는 순간 소름이 싹 돋았다. 말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도 인간은 나 살 궁리부터 한다는 말이 맞았다. 그럼 이 가구는 어가경제조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대체를 해야 하나.... 참 나 자신이 잔인했다.

다음 날 과장님과 팀장님과의 동행으로 장례식장을 가서 문상 드리고 인사를 나누는데 어르신 말씀이 가게부는 집에 있는데 우짜지요? 어르신 지금 가게부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어르신 말씀에 너무 가슴이 아파 많이도 울었다.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같이 이야기하며 다정했던 딸에게도 그저 안아주고 손만 잡아 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 했다.

사무실에서도 온통 기장의 그 사고 이야기였다. 그래도 가야했다. 어가경제조사구, 표본 가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런데 학리에서는 또 한 번 기막힌 소식을 접했다. 죽성 이 선생님의 그 사고를 냈던 당사자가 나의 비계통 조사구 학리마을 이 선생님 댁이었다. 그러나 전화를 해야 하는데 이 기막힌 사실을 알고도 아는 척 할 수 없고 모르는 척 통화를 해야만 했던 것이었다.





언니, 안녕하시죠? 언니 또한 내색 하나 하시지 않고 우리 집에 큰일이 좀 있으니 이번 달 조업은 이만큼 저만큼 되니 그렇게 알고 당분간 집에 오지 마래이.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봐라. 하시는 거였다. 이 언니 맥도 조사표 하나 푹 소리 났었다. 당신의 장부에서 알아보기 좋게 다시 기록하여 주셨는데….

이 뿐이 아니었다. 죽성리 두호 월전마을의 가구를 방문 할 때마다 어느 한 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물을 수가 없었다. 가구들을 방문할 때는 눈치만 보면서 혹이나 말씀하시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기장의 바닷가. 그랬다. 때로는 숨을 가져다주며 파도 소리에 맞추어 막혔던 가슴의 덩어리를 같이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늘 보았던 바다가 아니었다.



■■■ 그해 8월, 실새없이 밀려오는 이유 있는 불응가구들의 설득 그리고 고요를 찾아가는 대체가구들

두호마을 이 선생님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지 못 하겠다고 하시며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안은 채 아들이 있는 광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후 텅 빈 가구를 찾아가보니 새롭게 새 주인을 맞을 단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당에서는 나를 반겨주시며 언제나 문 밖까지 배웅해 주시던 언니

의 모습은 그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나 또한 출장지로 가구를 방문하는 것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또 슬픈 소식이 나를 반기면 어찌나 하는 불안과 삶의 허무함에 생각만 많아졌다.

그 많은 생각을 그대로 안은 채, 두호마을 이 선생님댁을 대체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대체가구 명부 세 가구 중 첫 번째 가구 방문 시작! 집으로 가니 계시지 않아 수소문을 하다 보니 그 댁의 부인이 길가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인사를 나누고 소개를 하고 나니 한 잔 하셨던 기분이었을까? 가계부 설득과 가족관계 등등 조사가 너무 순탄하게 해결되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도 동갑내기라는 공감대를 붙잡고 우리는 갑장, 같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자고 지속적인 설득, 다짐까지 받았다. 다음 날 바로 대체가구로 명부에 올리며 승인까지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서 또 다시 방문을 했다.

가계부를 보니 영수증과 어획량은 간혹 적혀 있었지만 전에 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갑장의 모습이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생선조리를 하면서 툭 던지시는 말.

이번 달만 하고 나 못 해. 더 이상 묻지 마.

어, 선생님 뵈고 원부정리도 꽤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까 말한대로 이 달만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좀 가 주소….

냉정하고 씨늘한 이 말은 더 이상 말을 붙이면 큰 일이 날 것 같았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니 그냥 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갑장님~

문 밖을 나오면서 이런 상황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년간





의 경험에서 알 수 있었다. 사무실에는 무어라 하지..., 우째 조사를 했기에 이 모양이냐고 생각하시는게 아닐까?

어떤 정보라도 빨리 알아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갑장이 자주 가는 포장마차로 갔다. 매주 지나칠 때 마다 인사를 나누었던 탓인지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갑장가구에 대해 물어보는 중에 뜻밖의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맥의 가구주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낮에는 양반인 분이 술만 드시면 조사를 왜 해 주었느냐 고..., 쓸데없는 짓을 왜 했냐고 하시면서 밤새도록 부인을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며 싸움이 일어나는 이 딱한 술 주정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도 그만 조사하는게 낫겠다 고 심각하게 말씀하시고는 참 힘든 일 하네요, 하시며 짧은 위로도 건네주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한 달은 가까스로 조사를 했으나 또 다시 대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대체가구 명부를 우편으로 받기도 전에 현장 출장이 먼저였다.

출장 중에 카톡으로 명부를 받아 가구 방문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제는 피가 났다. 명부를 보는 순간 나를 언제나 딸처럼 여기시는 어르신 조사가구를 먼저 방문하여 사전 조사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기발함! 그동안 쌓였던 유대관계가 이렇게 귀중한 건지..., 나의 걱정을 듣고는 명부 속 가구들에 대해서 숨길 건 숨기시는 지혜로



움 속에 명부에는 빨간색으로 짧은 정보들이 적혀졌다. 아버님께 이 은혜의 보답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꼭 남기면서...

소중한 명부 속 세 가구 중 한 가구를 짊하고 규정상 첫 가구를 먼저 방문했다.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홀로 사시는 속사정이 짙한 중년의 남자 단독가구였기에 설득에 어려울 것이라 했었는데... 사소한 대화를 마치고 어가일지를 적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근데 이 분이 순순히 승낙을 하시며 내가 한 번 써 볼 테니 가계부 놔두고 가소.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말해주고요. 또 조사할 것 있으면 물어봐 보소. 아는데까지 말해 줄 테니...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반신반의의 마음은 있었지만 준비해 간 조사표와 원부를 들고 요목조목 물어보니 너무 상세히 설명하시어 살아있는 현장 조사 지침서 같은 분이셨다. 두 번째 가구도 갈 필요 없이 바로 OK! 기쁜 마음에 샘, 매일 매일 수입 지출은 빠짐없이 적어주십시오. 특히 술 값 빠뜨리면 아니 아니 되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현장지침서 선생님이로 가계부에도 성실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그밖에도 끝내 설득할 수 없는 이유 있는 불응가구들은 우여 곡절 끝에 대체가구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어업인 설득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다.

가계부의 생명인 꼼꼼함과 정확성, 자신의 실수도 용납하시기가 어려우신 대변의 김 선생님 덕으로...

횃집 겸업가구로 나의 열심을 부채질하는, 삐뚤삐뚤 하지만 정이 가는 글





씨로 자신의 가게부를 선풍 보여 주시며 옮겨 적어가라고 하시는, 나보다 조금 똑똑하고 털털하신 두호마을 박 언니택으로….

논 10마지기, 과수원 배 70그루, 개 7마리, 임대소득 4군데 미역 다시마 양식, 연안자망 등등 어가경제 원부가 두려운 가구, 월전마을 장 선생님 댁으로….

이렇게 다들 좋은 분을 만나 다시 평온을 찾아가고 있다.

아직도 때로는 물어가면서 때로는 처음 하는 일처럼 헤매는 시간도 있지만 이제는 어업통계조사가 진정 내 일이 되었다. 그 분들의 삶속에서 통계가 생산되고 그 통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 하고픈 선부른 통계조사원의 배짱도 생겼다. 새로움의 적응! 그것은 젊음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변화를 더 바랬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부딪치는 현실에서 알아 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중요했다. 나의 부족과 무능을 인정하면서….

1년 7개월 그 짧은 세월동안 많은 분들과도 이별이 있었다. 그 많은 이별이지만 살아서 또 만날 수 있는 헤어짐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이 먹먹한 가슴앓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아침이면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반가움으로 어서 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라고 반겨주시는 농어업조사과의 이 좋은 분들. 이분들로 인해 난 행복합니다.





공감과 기다림으로 이어진 인연

우리 현장조사원들이 공감과 기다림이라는 날개를 달고 조사에 임한다면 분명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통계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무한 긍정의 힘까지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감과 기다림의 날개옷은 현장조사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현장조사원의 양익(兩翼), 공감과 기다림」 중에서 —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할까요?

경인지방통계청 김 문 수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여섯

2011년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다 인사교류를 통해 통계청으로 왔다.

아직도 처음 면접 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면접장에 들어섰는데 막상 들어가보니 경인청과 장남들이 쭉 앉아 계셨다. 그리곤 돌아가면서 통계청 직원으로서의 마음이 짐과 지식을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불응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세 분씩이나 질문을 던지셨다.

당연히 면접에 앞서 통계법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처음 질문을 접했을 때 별 생각없이 과태료 부과로 답변했고, 두 번째 질문에도 과태료로 답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의 질문을 세 번째로 듣자 뭔가 이상하게 느껴 얼버무렸던 기억이 난다.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할까요?



면접이 끝나고 왜 그렇게 찝찝한지, 그냥 뭔가 꼬였다는 생각이 들며 아 !! 통계청에 못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사교류가 큰 무리없이 이루어져 2011년 7월 1일부터 경인지방통계청 인천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처음 근무한 곳은 물가탐이었는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업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자료를 얻기 위해 직접 가서 응답자와 면담을 해야 했는데 이 업무는 너무 생소했다. 지자체에서 근무할 때는 언제나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통계청은 반대로 내가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불응 응답자에 대한 설득이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공직생활의 시작이었다.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내가 통계청에 와서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되어버렸고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왜 면접에서 불응에 대한 질문을 세 분 과장님이나 하셨는지 업무를 하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 이걸 단순히 과태료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업무를 하며 육체적 피로는 시간이 갈수록 동선이 파악되고 노하우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불응에 대한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갔다.

그때 문득 응답자와의 대면이 적거나 없는 부서는 없을까? 란 생각이 들었고先輩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농업팀 농업면적조사가 몸은 힘들지만 응답자와의 대면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 이거야! 라는 환희를 느끼며 자체 내부 발령을 기다렸고 기회는 왔다. 당시 소장님이 희망부서를 지원받으셨고, 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농업팀을 지원했다.

그리곤 2013년 1월 농업팀으로 내부 발령이 났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다르게 농업팀엔 농업면적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생산비조사, 가축동향조사 등등 역시나 응답자를 상대해야 하는 많은 업무들이 즐비하게 있었다. 그 때의 내 심정은 희망에서 좌절이라고 할까? 엄청난 낙담이 밀려왔다. 농업팀에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통계청에서 응답자와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농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자료를 받아와야만 했다. 응답자가 답변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업무였다.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난 정말 공황상태에 빠진 듯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임 담당자인 김해옥선배가 옆에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인복이 있어서인지 통계청 처음 근무한 물가팀에서도 내 옆 짝꿍이었던 김해옥선배가 두 번째 근무지인 농업팀에서는 내 전임자란 것이었다. 거의 인맥이 없던 나에게 안면이 있는 선배가 내 전임이라는 것은 내게 커다란 축복이었다.

업무 인계한 첫 달은 거의 김해옥선배와 함께였다. 조사도 같이 나가 주시고, 업무의 흐름과 전산 입력 및 내검 등도 가르쳐 주셨다. 선배는 가계부 업무부터 물가, 광공업 등 통계 업무 중 안 해본 업무가 없는 듯 했다. 당연히 난 많은 것을 선배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선배의 업무 또한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달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다.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합니까?



든든한 버팀목이 없어진 느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두 번째 달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우선은 농가에 가서 일계부를 회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은 별개여서인지 막상 가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

출장지인 강화군 불은면, 양도면으로 차를 몰고 가며 아이러니하게도 농가 응답자를 안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 속에서 생겼다. 단지 일계부만 가져오고 싶었다. 축산물생산비는 고사하고 번식우, 비육우 등 다 처음 듣는 생소한 말들에 지침서엔 도통 모르는 말들만 있어 그냥 암담하기만 했다. 더군다나 조사해야 되는 농가가 모두 신 표본이어서 괜히 어설픈게 접근했다가는 불응이 나올 것이 뻔해 보였다.

인천사무소에서 강화군까지는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사무소를 나갈 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 한 번 해보자!! 란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곤 응답자를 만났을 때 무엇을 물을지를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나 머리에서 맴돌 뿐 마땅한 질문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 오늘은 일계부 회수가 목적이니 이것을 완벽하게 하고, 다음 만날 때 일계부에서 미비한 부분을 묻자!! 란 결론을 내리고는 농가를 방문했다.

농가 응답자와 마주쳤지만 굳이 이것저것 묻지 않았다. 그냥 저번에 인사드렸던 통계청 축산물담당자인 것을 말하고는 웃어 보였지만 역시나 차가운 반응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날엔 나머지 계양구 쪽을 돌며 일계부를 회수해 왔는데 어제 한 번 해서인지 일계부를 걷고 농가 응답자를 만나는 것이 한결 수월했다.

하지만 문제는 일계부를 걷어 온 다음부터였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백지로 일계부가 회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거의 들쳐본 자국이 없는 듯 그냥 겉표지에 먼지만이 무성했다.

어제 출장갈 때 응답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했던 그런 막막함보다 더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침서엔 자료를 받아왔을 때 비목을 어떻게 적고, 사료비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내용은 없었다. 그것은 담당자인 내가 응답자에게 면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며칠 그렇게 혼자 고민하는 것을 보고 김해옥 선배가 조언을 해 주셨다.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다행히 소급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 처음부터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해가면서 수정하고 빼 먹은 것은 첨부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 우선은 축종에 맞게 생산·판매 등 가축 마리수부터 파악하고 사료비 등을 농가 특성에 맞게 자료를 정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날 이후 난 마음을 새로 가다듬었다.

그래, 서두르지 말자!! 우선은 가축을 알자!! 그리고 가구 특성을 파악하자!! 란 큰 틀을 잡았다.

직장이나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축산물생산비조사 지침서를 읽었고, 참고로 가축동향조사와 서산사무소와 같은 다른 사무소에서 만든 축산물생산비조사 책자를 읽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읽다보니 처음엔 그렇게 생소했던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료비, 비목도 어느 순간 분간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할까요?



그와 동시에 기존 선배들이 조사했던 같은 축종의 전년도 가구를 훑어보며 그 축종만의 특성을 파악했고, 특히 같은 달에 소비되었던 생산비를 출장나가기 전에 메모를 해 놓았다가 응답자와의 면담에 이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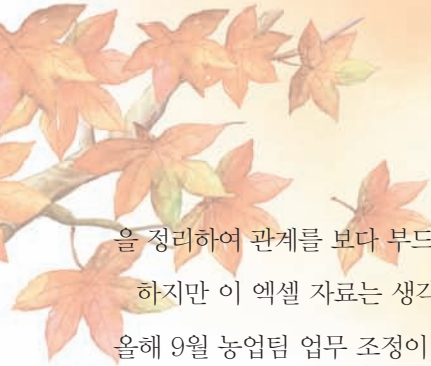
사전 지식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감도 생겼다. 처음 몇 주간은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는 일하는 옆에 서서 기본적인 가축 마리수 정도 파악하고 기타 몇 가지 정도만 묻다가 돌아오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료비와 약품 구입처를 파악하여 직접 구입처에 가서 자료를 받아오는 응용력이 생겼다. 이는 응답자와의 면담시간을 단축하여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생산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비표본오차가 줄어드는 효과도 가져왔다.

이런 사소한 변화는 나에게 점점 진취적인 업무 변화를 유도했다. 농가에 맞는 하나의 폴더를 만들고 싶어졌다.

A 농가는 어느 때가 한가하고 면담은 언제를 선호하는지, 가구원 중 특이 사항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등등... 이는 불응에 대한 나의 트라우마에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되어갔다.

한 예로 올해 새로 조사를 시작한 길상면 젓소 농가를 들어보면 각 시트마다 특성에 맞는 내용을 기입하였다. 첫 번째 시트엔 일반적인 사항, 두 번째 시트엔 각 달마다 질의 응답한 내용을 정리했고 세 번째 시트부터는 생산량에 따른 사료비 계산 등을 분류하여 한 눈에 농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농가 정리는 나를 위한 작업이었다. 응답자에게 기존에 했던 질문을 또 하지 않게 하여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물론 채무 관계 등 민감한 부분



을 정리하여 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 엑셀 자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후임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올해 9월 농업팀 업무 조정이 생겨 수시기간제 2분을 채용하였는데 여러 업무에 있어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다. 그 중엔 축산물생산비조사와 가축동향조사도 있었는데 이때 내가 공들여 만든 농가 자료 또한 후임자에게 인계해 주었다.

인계인수에 있어 나와 같이 바로 옆에 인계자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도움을 주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이번에 채용한 수시 기간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강화에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무소에 출근하는 현지근로자였다. 때문에 서로 만날 기회도 적었는데, 더군다나 나는 인천지역으로 업무가 분화되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농가자료가 있어 수시 기간제가 필요로 할 때마다 농가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전임자가 익힌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기억에 의한 전달이 아닌 조사 시점에 작성한 글에 의한 전달이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게 함으로써 비표본오차를 최소화 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축산물생산비조사 뿐만 아니라 가축동향조사 이후 수시 기간제와의 상담을 통해서 농가자료 중 가구원들의 특성을 적어 놓은 것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서류적인 정리에도 불구하고 농가와와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서비스업동향조사, 물가 등에서의 불응이 싫어 농가에 왔지만 여기서도 어김없이 불응은 존재했다.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합니까?

통계청에서 통계 업무를 하는 이상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설득해야만 한다. 는 것이다. 벗어날 수 없다면 헤쳐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매주 오는데 고작 2만 원 상품권을 받고 응답하려니 하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옛날과 같이 정부 업무이고 국가 정책에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 통계 조사원인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점인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은 통계 업무를 한 이후 줄곧 나를 괴롭혀 왔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이 진심 이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 주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응답자를 대하기로 결심했다. 우선은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 만나지 못하면 컴퓨터 자판기가 아닌 손글씨로 메모를 남겨놓고도 왔다. 축산물생산비조사 방문 시에는 웃은 등산복이 아닌 정장차림으로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농업면적조사를 하다가도 농가를 방문할 때는 양복으로 갈아입고 면담하고는 다시 등산복으로 갈아 입고 농업면적조사를 계속 했다.

다음으로 응답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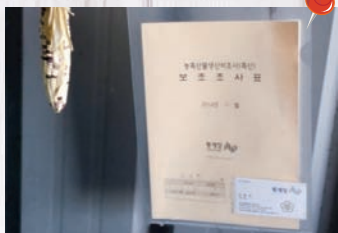
가장 기본적인 응답시간을 응답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그 일정에 따르려고 노력했다.

축산물생산비조사 초반 나를 갈등에 놓이게 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가 불은면 번식우 농가였다.

이 농가 응답자는 65세 가량으로 젊었을 때는 동네 청년회나 그 밖에 사회



불은면 축사 전경



보조조사표 폴더 정리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낮에는 시간이 없다며 조사에 불응을 하셨다. 그럼에도 계속 찾아가 만나 뵙고 언제 시간이 되시냐고 했더니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하셨다.

계속 조사를 해야 하나?, 대체할까?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처음 농업팀에 오자마자 불응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주말에 약속을 잡고 찾아갔다. 내심 공무원이 주말에 온다는 것이 미안했던지 생각 외로 답변을 잘 해주셨다. 돌아오는 길에 주말에 나왔다는 짜증보다는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는 느낌과 자료를 얻었다는 기쁨에 흥이 저절로 났다.

됐어!! 계속 해보는 거야!

그리곤 계속 방문을 하며 농가와의 면담을 시도했다. 인천에서 강화까지 갔다가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만나더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료도 거의 못 받고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

그러던 중 출장가기 전 전화로 사전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은 안 되고 금요일 저녁엔 괜찮다. 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던지 가슴에 뭉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다. 금요일이 되어 집에 방문했을 때 아주머니도 계셔서 함께 저녁을 먹고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 수 있었다.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날 응답자에게 확인을 받았다.

내가 저녁 밖에는 시간이 안 되는데 그것도 괜찮겠어요?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겠지만 난 두 번 생각도 없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는 늦은 저녁 집으로 향했다.

지금까지도 저녁에 약속을 잡고 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두 번째 농가는 양도면에 있는 비육우 농가였다.

이 농가도 처음 축산물생산비조사를 시작하고 맡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인지 귀가 잘 안들렸지만 만나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집이었다.

연세가 많으셔서 생산비가 잘 안 나와 애를 먹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며 보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가 부족한 부분을 묻고 정리하곤 했다.

그러던 중 약속을 잡고 집에 갔는데 현관을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어디 가셨나? 생각하며 한참을 기다리다 다른 농가와 약속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순간 전화벨이 집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세요? 하고 응답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배신감과 상실감이 밀려왔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나?

하지만 직접 표현할 수가 없어 농가에게는 모르는 척하고 다음에 찾아뵈 것을 말씀드리고는 돌아서야 했다. 그리곤 약속한 다른 농가와 만났지만 영 일할 기분이 들지 않고 업무가 끝나도 흥이 나질 않았다. 아마 그 기분이 며칠은 간 듯 싶다.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이 업무의 단순화와 접촉이었다.

연령과 상황에 맞게 일제부가 아닌 보조조사표로 바꿨다. 농가가 대답하

기 힘들다면 조사자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일부러 농가의 점심시간에 맞추어 방문했다. 몇 번 방문했을 때 아주머니가 일을 나가시고 혼자 식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맞추어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응답자 젊었을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자랑까지 듣게 되었다. 그리곤 자료도 친해진 만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엔 자료를 얻기 위해 만남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정이 들어 응답자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반응 할 수 있었다. 언제부터 인가는 내 처 이야기를 듣고는 낚시 해온 잉어며, 메기 등도 주셔서 집에 가지고 가 끓여먹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인수받은 길상면 젓소 농가다.

인천사무소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총 3명이 나누어 맡고 있었는데, 내가 젓소 농가가 없다하여 올해 초 내가 맡고 있던 비육우 농가를 주고 젓소 농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서일까? 젓소 농가가 시간이 없다며 계속 만나주질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고민에 쌓여 들었다. 설득에 정답은 없지만 아무리 만나려고 노력해도 볼 수가 없으니 쉽게 설득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정리였다. 내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서 정리를 보통 사람보다 잘하는 편인데 이번 젓소 농가는 서류 정리가 형편없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 농가의 거래처원장이나, 유대명세서를 계속 보아야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료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

우선은 유대명세서가 중요했기 때문에 폴더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최근 달 자료는 비닐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속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다음달은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합니까?



길상면 축사 전경



길상면 응답자와 함께



거래치원장 등 폴더 정리



유대명세서 폴더 정리

거래치원장 폴더를 만들어 매달 자료를 정리해 사무실 안쪽에 걸어 두었다. 서류들을 한 개 한 개 정리하다보니 너저분하던 젓소 농가 사무실도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어 갔다.

그러던 중 언제나처럼 출장나가기 전에 전화 예약을 잡았는데 그날 따라 오늘 시간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 물론 시간은 정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괜찮다는 말만을 들었다.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란 생각을 하며 오전에 갔다 만나지 못하고 오후에 다시 들려 운 좋게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곤 그날 이후로 이 시간에 와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조사 업무를 해본 사람은 한 번씩 느꼈던 기분일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나도 어엿한 통계인이 되었는지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기분 좋으니 말이다.

아직도 농업팀에서 나는 막내다. 가만 생각해보면 어이도 없다. 많지는 않지만 벌써 불혹의 나이인데 막내라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인천사무소에 온 이후 인천사무소 다른 팀에는 대여섯 명의 신규자가 왔다. 비록 같은 팀은 아니고 대부분은 방도 다르지만 나에게도 후배가 생겼다는 것이 기쁘다. 내가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듯이 기회가 닿는다면 나도 그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리고 이젠 어엿한 통계 조사관으로서 불응에 겁내지 않는 내가 되고 싶다.

아직까지도 내가 왜 이 조사를 해야 하니까? 란 대답을 응답자에게서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막해진다. 아마 내가 통계 조사를 하는 마지막까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통계조사의 업무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나의 좋은 길이 내 뒤를 따르는 여러 후배들에게 좀 더 편안한 길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넙넙산중 12고개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일곱

경인지방통계청 임 미 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 지역에서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
구조사를 위한 연동표본교체를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사구를 어떻게 방문해야 하나 걱정 반 근심 반 이 되었다.

무서운 오원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동네와 인접한 지역이라 밤에 현장조
사를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섬뜩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태산인들 내 걱
정 보다 높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앞선 지역이다.

이 지역의 밤거리는 저녁 7시가 넘으면 한국인보다 조선족과, 중국(한족)
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에 간 것처럼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리였다.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가구에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 박○○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매매가 돼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 비용을 다 주신다고 하고, 남편이 다니는 학원도 문을 닫아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헐!!

전화까지 주셔서 고맙기는 했지만, 난 또 한 걱정이 늘어난 것이다.

입덧하는 새댁을 간신히 설득하여 가게부를 쓰게 했는데…. 이런!!!!

친정이 멀리 있어 입덧 때문에 힘들어도 친정에 갈 수 없다며, 어머니 음식이 많이 그림다며 훌쩍이던 모습과 입덧으로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다른 집들 눈치 못 채게 큰 가방에 조사용품과 과일, 빵 등 간식을 사다주던 이쁜 가구였는데…. 서운해하는 새댁에게 전화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산산하라고 인사를 하며 우리 이쁜 가구를 보내야만 했다.

며칠 후 조사구를 방문했는데, 2층 신혼부부가 이사 가고, 집을 사서 주인 가구가 이사를 오면서 2층 집을 수리 하느라 시끄러웠다. 집 공사를 하시는 분에게 집주인 계시냐고 했더니, 오늘은 안 온다고 하신다. 언제쯤 온다는 말씀 없으셨냐고 했더니, 자주오기는 하지만 다시 금방 가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신다. 언제쯤 만나 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며칠 후, 다시 전입가구 방문을 했는데, 항상 열려 있던 큰 대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다.

이상하다? 항상 열려있던 대문이 왜 잠겨져있을까?

지금까지 나는 문이 잠겨 들어 갈 수 없을 경우에는(그런 일 자주 없음) 옆





집 골목을 지나 작은 담을 넘어서 들어가곤 했다. 일명 월담을 한 것이다.

그 담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어! 이상하다? 담 위에 벽돌이 가득 놓여져 있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두리번거려 봤지만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할 수 없이 옆집 어르신 댁에 가서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르신 계세요?

문을 두드리니 아프신 다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혹시 옆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헐! 며칠 전에 집에 도둑이 들었단다. 온 식구가 잠을 자고 있는 집에 들어와 귀금속과 현금을 모두 가져갔다고, 경찰이 와서 수사하고 온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범인은요? 범인은 잡았어요?

범인은 무슨.... 사람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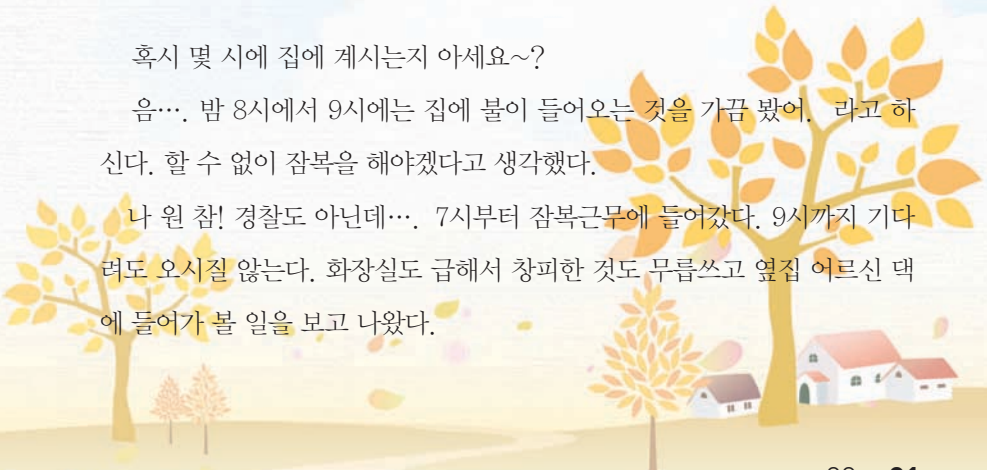
조사는 둘째 치고 사람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 서로 얘기하면서도 나에게 닥친 또 한 고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어쩌나 그래도 내 할 일은 해야 하는데....

혹시 몇 시에 집에 계시는지 아세요~?

음.... 밤 8시에서 9시에는 집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가끔 봤어. 라고 하신다. 할 수 없이 잠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원 참! 경찰도 아닌데.... 7시부터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9시까지 기다려도 오시질 않는다. 화장실도 급해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옆집 어르신 댁에 들어가 불 일을 보고 나왔다.



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오늘도 우편함에 안내문과 공문을 꽂아 놓고 간다. 다음 날도 또 잠복에 들어갔다. 앉아서 기다릴 곳이 마땅치 않아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려도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거기 계신 분 누구세요? 한다.

아~ 예. 통계청 직원 임미선입니다. 여러 번 방문 드렸는데 안 계셔서요. 제가 놓고 간 공문과 안내문은 보셨는지요? 여쭙었더니 읽어봤다고 하며, 단호하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는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한 번만 더 CCTV에 찍히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신다. 제가 지나다니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며칠을 조사 때문에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보았다고 하신다.

죄송하다고 몇 번을 머리 숙여 인사드리며 내일 낮에 한 번만 방문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내일 오전에 10시에 시간 지켜서 오라고 하신다.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떻게 집으로 돌아 왔는지 모르겠다. 어깨를 돌덩어리로 누르는 것 같이 아팠다.

웬 CCTV? 언제 그런 게 설치되었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아~~ 어찌란 말인가?

한숨만 나오고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 가 없었다.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손에는 이사 온 집이라 화장지를 챙겨서 공문과 안내문을 들고 방문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밖에 대문이 열려 있었다.

마당에서 어젯 밤에 만났던 주인 아주머니께서 마당에 상추를 심고 계셨다.

어젯 밤에 만났던 통계청 직원 임미선입니다.





고개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 신분증을 보여드렸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일어나더니 나를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CCTV 설치된 것 모르냐고 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전혀 모릅니다.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했더니 얼마 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 집 5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

내가 지나다니는 것과 작은 담을 넘어서 그 가구에 들어오는 것을 CCTV로 다 봤다며, 그래서 작은 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벽돌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할까 여러 번 생각했다고..., 그래서 옆집 할머니와 아랫집 사장님께 내가 누군지 물어봤다고 하며, 그래서 참고 신고는 안 하고 만나면 좋게 오지 말라고 말해야겠다고 하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신다.

한 번만 더 오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며, 전에 설문조사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정보가 다른 곳에 팔려나가서 그 정보로 다른 사람이 사채를 사용해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남편과도 힘든 시간을 보내서 엄청 고생했다고 하며, 어떠한 조사도 사람도 믿을 수 없다고 하신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 이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재차 말씀하신다.

사모님 맥은 못해도 이 집엔 세입자 두 가구가 있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요..., 했더니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하며 그건 직원이 알아서 하라고 소리 지르신다.

더 이상 말을 했다가 역정이 날 것 같아 연신 죄송하다고 굽신굽신하며, 그 집을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조사를 해야 하나?

집에 돌아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밤새 고민을 해야 했다.

그 이후로도 항상 그 집의 대문은 잠겨져 있었고, 그 곳에 사는 세입자들은 전화 걸어 통화를 한 후 대문 밖에서 만나 조사를 한다. 언제쯤 마음에 문을 열까? 커다란 대문이 우리의 조사 현장에 벽인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다.

다음 달 조사 기간이 되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다. 여전히 큰 대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다.

언제쯤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들리는 목소리. 여긴 어쩐 일이세요? 획 고개를 돌렸더니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닌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를 했다.

조사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왔냐고 한다. 다른 조사 때문에 방문 드렸다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감기가 드셨는지 목소리가 이상했다. 마침 옆집에서 먹으라고 챙겨주신 주스를 꺼내드리며, 풀죽은 목소리로 이거 드세요~ 했더니 뻘뻘했다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려는데 대문을 잡고 손에 강제로 쥐어드렸다.

몸 잘 챙기세요! 요즘 감기 정말 무서워요~ 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잊지 않고 건넸다.

휴~~~~ 그래. 한 고개 넘었다.

그리고 그 주말이었다.

식구들과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등산복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것이 보였다. 헐!! 그 매장은 내가 잘 아는 매니저가 있는 곳이 아닌가. 나도 인사를 하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옷을 고르는 옆으로 가서 내가 인사를 했더니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신다. 예쁜 옷은 고르셨냐고





말씀드렸더니 무표정하게 쳐다만 보신다. 예쁜 옷 고르시라고 말씀드리고 매니저와 인사를 했다.

한참 옷을 고르시더니 옷을 가지고 계산하러 오신다.

잘 됐다~! 매니저에게 부탁해서 할인 좀 해달라고 졸라야겠다.

점퍼를 고르셨는데 빨강색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았다. 매니저에게 우리 동네 언니라고 말씀드리고 할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멍하니 쳐다보신다.

내가 눈짓을 했더니 매니저가 웃으며 세일 기간은 아니지만 직원에게 나 온 할인권이 있다고 하며, 할인을 해주겠다고 한다.

이게 웬일이야! 그래, 이렇게 친해지면 되지~~!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할인한 금액으로 등산복을 구입 하셔서 고맙다고 하며 나에게 처음으로 웃어주셨다.

앗싸~! 그래, 이제 두 고개 넘었다.



다음 달도 조사구를 방문했지만 여전히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밤 늦게 조사를 하고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계단을 올라오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 임미선입니다.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나를 보더니 오랜만이네요. 하셨습니다.

헐~! 내게 인사를 하시네. 이게 웬일!!!

그러고는 그냥 지나가신다. 내게 한 마디 말을 건 적이 없던 분이 한 마디를 하신 것이다.

그래! 세 고개 넘었다. 이게 얼마만에 들어보는 인사말인가!

그리고 9월 추석 명절도 다가와서 조사구의 응답가구에 김 세트를 선물로

주려고 가구를 방문하는데, 참! 힘들겠네요! 하신다.

아니요! 안 힘들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내게 두 마디를 건네시고 또 그냥 지나가신다.

그래! 네 고개를 넘었다.

명절을 지나고 다시 조사구에 방문했더니, 외출을 하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를 보시더니 명절 잘 보냈어요? 하신다.

먼저 내게 인사를 하시네! 그래,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내 마음도 아시겠지 그리고 이해하시겠지.

네^^ 명절 잘 보냈어요! 고향은 잘 다녀오셨어요? 하니 그냥 웃으며 지나가신다.

얼마나 많은 고개를 넘어야 마음에 문이 열릴까?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자 그래도 내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으시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조금씩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 것 같아 가슴이 따듯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제는 그 조사구의 응답자와 많이 친해졌다.

둘째를 임신한 건우엄마가 치킨이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집으로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켜 주기도 하고, 때론 응답자 몇 분과 만나 조사자와 응답자가 아닌 언니 동생처럼 치맥을 먹으며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곤 한다.

조사지역에서 잠복근무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은 저녁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들어온다고 애길 했더니 조사구에 계신 언니, 형님들이 국수랑, 맛있는 청국장을 끓여서 저녁을 해결해 주신다.

난 얼마나 행복한 통계조사관이야~~!





그래!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 같아 조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 세상은 살아볼만한 것 같아! 또 어떤 가구가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힘을 내자! 내가 조사한 자료가 얼마나 많은 우리 삶에 도움과 영향을 주는지 잘 알잖아! 힘을 내자 힘을!!!

또 이사를 간다고 하니, 전입 가구를 만나 난 또 몇 고개를 넘어야 할까! 열심히 봉사하는 응답자를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하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텐데 ... 많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그 분의 모습에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며 가뿐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전입 가구 잡으러 조사구로 출발~~~~!



현장조사원의 양익(兩翼), '공감'과 '기다림'

경인지방통계청 임 형 렬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여덟



들어가며...

신규자 교육을 받으며 선배들의 체험사례를 들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나의 체험사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새로움과 설렘을 안겨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체험사례 작성의 과정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의 신규 생활을 되돌아보고, 더불어 신규자 교육을 받으면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보고 싶다.

이를 위해 각종 조사별로 에피소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현장조사원의 양익(兩翼), '공감'과 '기다림'



III 첫 대면에 불응을 접하다: 광업제조업동향조사(경상조사)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담당 이사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듯했다.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사무실 문을 확 닫고는 들어가 버렸다.

2주 전이었다. 업무분장을 받고 나서 인계인수가 시작되었다. 대부분 다른 사무소로 전출가신 분이 담당하였던 사업체를 인수받게 되었다. 따라서 차분하게 정리된 설명과 함께 무난하게 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임자의 사업체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 팀장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업체가 하나 있었다. 팀장님과 함께 방문하여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었는데, 말로만 듣던 불응을 경험할 수 있었다.

팀장님께서 담당 이사를 찾자, 그 순간부터 웬지 분위기가 차가웠다. 아니나 다를까 더 이상 조사를 못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팀장님께서서는 불응시의 과태료 절차까지 언급하셨지만, 이사는 그렇게 하라고 맞대응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버렸다.

인계인수 차 방문을 하여 내 소개는 커녕 불응과만 대면을 하게 되어 몹시 착잡한 심정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처음부터 과태료를 말씀하신 것은 조금 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레 여쭙더니, 팀장님은 응답자의 반응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역시 30년의 노하우가 보이는 말씀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여러 선배님 말씀이 원래 인계인수할 때면, 잘 해주던 사업체도 한 두 곳 정도는 불응으로 대처한다고 하셨다.

그 날 이후, 설마 인사도 못 시키고 왔는데 그 업체는 한 두 달 더 가지고 계시다가 해결한 뒤에 넘겨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서는 잘 해보라며 조사표를 건네주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야속하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어차피 부딪혀야 할 일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혼자서 방문을 하였던 것이었다.

굳게 닫힌 사무실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씩씩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 오는데 면접을 준비하던 때가 떠올랐다. 당시 다른 공채 동기들과는 달리 ○○사무소에서 두 시간여 동안 선배들을 통해 발령 후 업무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그때 선배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 업무인 현장조사의 과정에서 직접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아픔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고 하였다. 값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미리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당시 선배들의 표정보다 실감있게 다가왔다.

얼마 후 근처 다른 사업체 실사를 다녀오면서 해당 업체를 살짝 들렀다. 그냥 인사 차 들렀다며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리플렛과 협조공문을 드리면서 시간 되실 때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뒤에 조용히 나왔다. 그래서 그 달은 잠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2주 쯤 지났을 때, 비타민 음료 한 상자를 들고 가서 살짝 이사님 책상 위에 올려놓고만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어느 새 업무를 맡고서 두 번째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올해 까지만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해줄 수 있다며 정확히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약속해주면 해줄 수 있다고 하셨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도 언제까지 이 업체를 맡을지 모르는 일이고, 지침서에 의하면 이 회사가 사라져도 설비를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결국 표본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조사시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드리자, 그럼 못 해주겠다며 나가라고 하셨다.

돌아오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지침서를 더 정확하게 숙지한 뒤, 표본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 무장된 상태라면 보다 더 자신있게 답변을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었다. 올해까지 해주겠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발전한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결국 그 달에도 잠정으로 입력할 수 밖에 없었지만, 웬지 예감이 좋았다. 그리고 정말 나의 좋은 예감은 맞았다. 며칠 후 여직원에게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해당 사업체 경리 담당 직원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묻는 것이었다. 너무 반갑고 고마운 나머지 연거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즉시 찾아뵙고 설명드린다고 하였다. 주위를 보니 팀장님을 비롯한 선배들은 웃고 있었다. 팀장님은 어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냐? 라고 말씀하셨다. 며느리가 없는 내가 그 기분을 알 리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얻은 듯했다.

내게는 처음 겪는 불운 사업체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해결해냈다.는 뿌듯함이 나를 가득 채웠다. 급한 마음에 내 자리에 있던 작은 화분을 깨

꽃이 씻어 마치 새 화분인 것처럼 소중히 들고 사업체를 찾아갔다. 여직원을 만나서 고마움의 표시로 화분을 전해주었다.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말하기를, 이사님께서 자주 찾아오는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여 해주기로 하셨다고 했다. 여직원에게 다음부터는 메일로 받기로 하고 나오는 찰나에 이사님을 뵈게 되었다. 고맙다고 말씀드리자 올해까지만 해드립니다. 라고 통명스럽게 말씀하시고는 지나쳐갔다. 하지만 그 통명스러움의 이면에는 협조해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물론 어찌면 12월이나 내년 1월에 가서 다시 불응을 통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응답자의 반응 속에 숨어있는 진실한 마음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임을 항상 명심해야겠다.



남들보다 두 배의 시간을 투자하다 : 사교육비조사(대행조사)

걱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역시나 인터넷조사 입력률을 보니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담임선생님께 협조를 구하는 문자를 각 학생의 가정으로 보내주라고 간청하였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연락처를 달라고 할 수도 없었기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며칠 전, 경상조사를 시작한 지 두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대행조사로 사교육비조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접해본 조사이거니와 다른 팀원들과는





달리 두 학교를 담당하게 된 나는 총괄자와 함께 본청에서 주관하는 지침서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 총괄자의 설명이나 지침서 내용을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주어진 출장대로만 나가면 잘 될 듯 싶었다.

그런데 그 기대는 학교를 방문한 첫 날 산산조각 나고야 말았다. 교무실에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교감선생님께서 학급을 바꾸면 어떠한 말씀을 대뜸 하시는 것이었다. 잠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던 터라, 순간적으로 그 학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이미 표본으로 결정되었기에 그럴 수는 없다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에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담임선생님을 만났을 때까지는 내가 기우였나 싶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시고, 나의 설명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경청하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종례시간에 해당 학급의 교실에 들어서면서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재빠르게 파악하면서 원래 계획보다 짧게 중요한 부분만을 설명하였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의할 것을 강조하고는 교실에서 나왔다. 그랬더니 입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 머물렀던 것이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선생님과 교무부장을 찾아 뵙고 부탁을 드렸다. 학교 명의로 사교육비조사 협조를 먼저 안내하고, 그 다음에 통계청 명의로 보내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두 분은 흔쾌히 연락처를 남겨주셨다.

다행히도 그 문자 덕분인지 다음날 입력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다소 치사한 방법이지만 이미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답례품을 주었고, 그 밖의 학생들에게는 종이조사표를 비밀보호용

봉투에 넣어 배부하였다. 최종적으로 90% 약간 밑돌게 회수하였으니 회수율은 괜찮은 편이라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응답률은 생각보다 낮아서 사무실에 누를 끼친 게 아닐까 걱정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팀원 모두는 내 걱정과는 달리 나를 염려해주었다. 사교육비조사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담임 운이 없어 그런 것이라며 격려해주는 것이었다. 동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 그 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하긴 교감, 교무부장, 게다가 수위 아저씨까지 원래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조사냐며 격려해주실 정도였으니 말이다. 다행히 다른 학교는 큰 어려움 없이 회수할 수 있었기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담임선생님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임선생님은 처음부터 도와주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결국 학생들을 통해서만 학부모님의 손에 조사 안내문이나 조사표가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힘내시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이야기를 들던 어느 선배님은 응답자 걱정해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본인 걱정이나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응답자의 힘든 사정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들에게는 왜 이걸 우리가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인 고유의 업무 외로 떠안아야 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우리는 친절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이 글을 정리하는 시기가 2차 사교육비조사 기간인데, 1차 조사 때 담임선생님이 바뀌는 덕분에 - 학생은 그대로 - 2차 조사는 아주 무난하게 치러지고 있다. 물론 1차 때 터득한 노하우(꼼수),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적극





적인 협조 덕분이다. 고생했던 만큼 보답을 받는 게 아닌가 싶다. 오히려 전담임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III 듣고 싶은 것만 들린다 : 경제통계통합조사(연간조사)

사업체로 가는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웠다. 제과점에 들러 롤케이크 하나를 사 들고 나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일이 있어서 10시 전에 나가야 하니 서류를 우편함에 넣어두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아! 하는 탄식소리와 함께 길 한복판에 멈춰서고야 말았다. 다른 사업체였던 것이었다. 성도 다르고 직급도 다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들린다더니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었다. 한 시간 내내 그 사업체 생각만 하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 사업체의 응답자로 착각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수화기의 완전히 다른 목소리는 이제야 원래 주인의 얼굴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부터 나의 정신을 붕괴시킨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조사를 끝내자마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제팀의 연간조사인 경제통계통합조사였다. 서비스업동향조사 총괄을 맡고 있던 터라 부총괄로서 서비스업·도소매조사 총괄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우리 사무소 경제통계통합조사 총괄자가 지방청 본부에서 총괄을 맡았던 분이었기에 옆에서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조사원을 뽑고 보니, 대부분 나보다 경험이 많았던 분들이라서 부총괄이라는 명색이 무안하기만 했다. 그래서 더욱 지침서를 숙지하여 내 담당 조사만큼은 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조적이었다. 그리고 바쁜 업체는 제조원가표 등 기본적인 서류를 보내주라고 하여 우리 조사표에 맞는 내용을 직접 찾아 적었다. 또한 조사 중 질문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 조사표를 채우는 식으로 해 나갔다. 하지만 유독 한 사업체는 나를 힘들게 했다.

사실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터라 충격이 크지는 않았다. 전임자가 인계하면서 가장 염려했고, 걱정했던 사업체였다. 지난해부터 비협조를 하여 불응으로 본청에 보고했더니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비협조였다는 것이었다. 전임자와 함께 방문해보니 응답자는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업무가 너무 바빠서 매월 매출액을 검토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였다. 그 뒤로 몇 번 방문해 보았더니 바쁘다는 것은 사실인 듯 했다. 하지만 잠깐 컴퓨터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제공해주면 될 텐데 하는 야속한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의 업무이기에 응답해줬으면 하는 바람만이 앞섰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도 해보았다.

인수받은 이후 두 달 치 자료를 받지 못해 잠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석 달째부터는 선배의 도움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뒤로 두 달 정도는 잘 해주다가 다시 바쁘다며 분기에 한 번만 하자고 하고 있는 처지다.

어쨌든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자. 방문해서 전해드리고, 팩스를 보내도 답이 없자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나 들려온 답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조원가표를 주면 공시된 자료를 참고로 내가 작성할 수 있다고 하자, 기업의 비밀을 어떻게 주냐며 목숨 걸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쯤 전화를 받았는데 조사표를 마무리했다며 다음날 10시에 사업체로 오라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부



탁을 드렸기에 이 분이 마음을 바꾸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총괄자에게 큰 고민거리가 해결된 것 같으며 다음 날 출장을 일찍 출발해야 할 것 같으며 미리 출장 신청까지 해 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한심하다는 생각으로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다시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고 힘을 내서,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부딪혀 보자는 생각으로 더욱 힘차게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응답자에게 톨게이크를 전하면서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바빠서 못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도 몸은 테이블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응답자는 전화상으로 했던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전자공시 자료를 보고 일부 필요한 내용은 체크했기에 필수사항만 채워주면 된다고 부탁을 드렸다. 그랬더니 그 응답자는 자리로 돌아가서 전에 팩스로 보냈던 조사표 사본을 들고 왔다. 이제는 됐다 싶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적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워주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올 때만큼 가볍지는 못했어도 다소 편안한 기분이었다.

그 사업체 조사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은 전화로 물어보아 다행이도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줄 거면서 왜 그리도 힘들게 했을까 하는 원망을 잠시나마 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응답자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해주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임무이다. 따라서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로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진심을 전하다 : 서비스업동향조사(경상조사)

왜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사업체의 부장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이사라는 분이 전화를 가로채더니 저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렸다.

조사를 진행하다보면 급변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늘 고민거리였던 사업체를 설득하여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잘 해주던 업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기별로, 조사별로 사례를 적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연간조사를 할 무렵부터 약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서비스업동향조사 업체가 있었다. 이 업체는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부장이 응답자이지만 실제적인 자료는 실장이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실장이 바뀌면서 부장이 실장에게 직접 자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실장에게 전화로 인사를 드리고 동향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전화로 설명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하여 리플렛과 협조 공문 등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그러나 실장은 자리에 없었고 전 응답자인 부장에게 부탁을 하고는 돌아왔다.

그 이후에 전화통화를 했더니 이전대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 달 후 또 실장이 바뀌고 말았다. 전화 연락도 안 되었고, 찾아가도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만날 수가 없었다. 결국 중간에서 전 응답자였던 부장에게 전해주라는 통화를 하던 중 벼락같은 이사의 호통을 들은 것이었다.

다음 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선배와 함께 사업체를 방문하였다. 오전에는 이사가 없다고 하여 점심시간 후에 다시 방문했는데 역시 자리에 없다





고 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이사가 있었지만 우리와의 만남을 거부한 것 같았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장이 이사와 상의를 하고 온 듯했기 때문이었다.

부장이 말하는 상황은 경리 담당인 실장이 사업체 대표의 손녀였고 출퇴근이 자유로워서 본인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매출액 등을 받아 전해주겠으니 예전처럼 본인에게 연락하라는 것이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부장의 어려운 점을 이해했고, 부장 또한 나의 진심을 느꼈기에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나 싶었다. 그 이후부터는 한두 달 늦게 응답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부장 또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있다.

어떤 선배는 왜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힘들게 일하고 있느냐며 대체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불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이유로 대체를 한다면 처음 표본틀에서 생각보다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현재 조사업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보다 정확하고 제 기간에 자료를 얻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현장조사의 노하우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III 나가며...

현장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왜 우리가 이에 응해야 하는 거죠? 와 우리나라 통계를 믿을 수 있나요? 이다.

물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은 나 자신에게 되묻곤 한다. 내 사업체라면, 내 가정이라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원에게 믿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사람들이 각종 언론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모두 믿을 수 있을까?

결국 그 답은 신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공감을 위해 노력하며 기다린다면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면서도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조금한 마음에 빠른 해결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장조사원들이 공감과 기다림이라는 날개를 달고 조사에 임한다면 분명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통계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무한 긍정의 힘까지 붙여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감과 기다림의 날개옷은 현장조사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아홉

혼자가 아니라

동북지방통계청 이 송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응답자를 대처하는 방식도 응답자에 따라 다르고 조사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불응가구를 설득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이다. 감정에 호소할 때도 있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설득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혼자서 설득하며 얻게 된 나만의 설득비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불응가구를 설득했던 경험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설득한 고맙고 따뜻한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한다.



III 첫 번째, 가구원의 도움

불응가구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무겁다. 이상하게 집 앞에 서서 벨을 누르기 전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든다. 그리고 난 어느 집 앞에서 떨리는 마음만큼이나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누르며 생각했다. 제발 집에 따님만 있어라!

이 집은 처음 방문했을 때 가구주를 만났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면접이 끝나고 다음 달에 뵙겠다는 인사를 하며 마음 속으로 이 집은 수월하겠단다. 가게부도 잘 작성해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번째 들렀을 때 주요 응답자이자 앞으로 가게부를 작성해줄 배우자를 만나고 나의 예상은 깨졌다. 어머님께 통계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지난 달에 아버님을 뵙고 갔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아버님께 들은 정보를 확인해가며 질문을 하자 차가운 목소리로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라고 대답하셨다. 당황한 나에게 어머님은 다음 달부터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시고는 문을 닫으셨다. 닫힌 문을 쳐다보고 있다가 안쪽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왜 집안 이야기를 남에게 시시콜콜하냐는 소리로 시작된 싸우는 소리였다. 가게부의 그도 꺼내지 못한 채 조사구에 부부싸움을 일으킨 주범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 찾아갔을 때도 어머님께서도 나라에서 하는 조사인 건 알겠는데 국민들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하며 정중하게 거절하셨다. 가게부도 설득해야 하는 집인데 이러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았





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정면 돌파보다는 협조해주는 가구원을 통해 조사를 하며 천천히 가계부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가구주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구주와 배우자가 퇴근하기 전 시간이자 야간대학을 다니는 딸이 학교를 가기 전 시간대를 골라 방문하였다. 엄마가 통계청에서 찾아오는 걸 싫어한다며 처음엔 꺼려했지만 몇 번의 설명 끝에 따님과 나의 면접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몇 개월을 딸을 통해 면접을 하고 상품권과 리플렛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나는 습관처럼 매번 똑같은 질문과 부탁을 했다. 바로 어머님께서 요즘 통계청 조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와 저녁에 어머님 오시면 통계청에서 왔다 갔다고 말씀 좀 잘 전해 주세요. 였다. 부탁의 말에 걱정 말라며 잘 전달하겠다는 따님의 말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 같아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늘 하는 같은 질문이었지만 답변은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에서 그냥 좀... 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부가조사로 인해 딸과의 면접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 난감해하는 나에게 선뜻 조사표를 맡기고 가면 부모님께 여쭙보고 저녁에 작성해 놓겠다고 말했다. 늘 그렇듯이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내일 조사표를 가지러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다음 날 조사표 회수를 위해 들렀을 때 해당되는 문항에 빠짐없이 체크된 조사표를 건네주며 엄마랑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가계부 쓰는 것도 일단 말씀드려놔어요. 라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어머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가계부를 챙겨 가구에 방문했다. 한집을 위해서 3일 연속으로 방문하는 것인데도 기분이 좋아 그런지 마음이 가

벼웠다. 문을 열어주신 어머님께서는 딸의 설득에 조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가계부 쓰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가계부 작성을 시작한 이 가구는 지금은 꼼꼼하게 가계부를 잘 써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문의를 위해 연락드리면 깜빡하고 빠트렸다면 다음 달엔 더 꼼꼼하게 적겠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신다. 처음의 차갑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친절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답해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설득에 도움을 주었던 따님이 떠오른다.

설득에 큰 도움을 주었던 따님은 최근에 졸업 후 취업을 하여 늦은 퇴근으로 인해 방문했을 때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예전에 따님에게 어머님께서 요즘 통계청 조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라고 질문했던 것만큼이나 습관적으로 어머님께 질문한다. 어머님, 따님은 요즘 잘 지내요? 회사일이 많이 바쁜지 요즘 얼굴보기 힘드네요.



IIII 두 번째, Pro-Leader의 도움

현재 나의 3그룹 연동은 사회조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Pro-Leader를 통해 책임주무관님과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장조사 전문가들의 도움은 초기불응을 최소화하고 정확도 제고의 바탕이 마련되는 것 뿐 아니라 살아있는 노하우를 현장에서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 배울 점이 참 많았다.

연동표본으로 교체되는 조사구 확인을 위해서 조사구에 처음 방문했을 때





동네를 둘러본 후 동네 참 참하다. 라고 말하는 책임주무관님의 말이 내 귀에는 현장조사 달인의 한 마디처럼 들렸다. 조사구요도를 들고 각 거처를 꼼꼼히 살피며 사라진 건물을 확인하고 표시하다가 빌라 앞을 지나는 한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팀장님과 책임주무관님은 붙임성있게 인사를 하시며 다가갔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러 나왔다고 알려드리고 무슨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지 우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소개도 하고 다음에 한 번 들르시라고 말했다.

그렇게 인사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는지, 이 동네에는 사는 사람들의 주된 연령층은 어떤지 등 조사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그리고 마침 그 할아버지는 조사구 안 빌라에 거주한지 오래된 반장님이셨다.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는 거주하고 계신 빌라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 것이다.

가구명부 작성을 위해 다시 조사구를 찾았을 때 안내문과 답례품 전달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다. 그 중 한 가구는 살짝 열린 문 틈으로 가구주 성명과 하는 일을 물었을 때 얼버무리며 정확히 대답해주지 않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방문할거라고 말씀드리며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답례품을 되돌려주며 필요 없으니 가져가고 앞으로 오지 말라고 말을 하려 문을 닫으려 했다. 순간 멈칫한 나와는 달리 책임주무관님은 응답자에게 국가에서 하는 통계조사이고 해주셔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다음 번 방문할 때 연락을 드리기 위해서 여쭙보는 것이며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머뭇거리기 없이 강하게 말하는 모습에 나는 내심 놀랐고 응답자도 멈칫하시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는 문을 닫으셨다. 응답자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

을 때 강하게 대응해야 할지 친근하게 대응해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고 주저하는 내 모습과는 다르게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그 집은 가게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나는 명부작성 했던 때를 떠올리며 가게부를 안 쓰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실제 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예상과는 다르게 가게부 이야기에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다. 명부작성을 마치고 돌아서며 그래도 이 집은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면 조사해줄 거라는 팀장님과 책임주무관님의 이야기가 맞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게부 설득 또한 책임져 준 나의 Pro-Leader의 이런 집이 오히려 가게부 쓰면 제대로 써 준다. 는 말이 이번에도 정확히 맞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마 혼자서 했더라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명부작성에서부터 몇몇 집은 초기 불응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긴 초기불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이 어렵고 설득에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설득반인 팀장님과 책임주무관님이 나의 조사구를 진심으로 자신의 조사구처럼 생각하고 연동에 큰 도움을 주고계신 덕분에 3그룹 연동은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 동료직원들은 불응가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가구에 찾아간다. 기본적으로 안내문과 리플릿을 전달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웃는 얼굴로 몇 번씩이나 문을 두드린다. 또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굳게 닫힌 문만큼이나 굳게 닫힌 응답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래도 열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사무실에서 어떻게 대 처하면 좋을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선배와 팀장님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 와 적극적으로 설득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사무실 뿐만 아니 라 조사구 안에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반장, 통장, 옆집 이웃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불응가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더하여 설득에 성공하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한다.

지금도 나는 조사구에서 응답자들의 무심한 말과 행동에 그리고 가끔은 냉정함을 넘어선 거친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다. 불응가구를 설득하러 가는 길은 언제나 발걸음이 무겁고 불응가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 상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마운 사람들도 많다.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동기들에게 위로를 받고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온 선배들에게 격 려를 받는다. 그리고 조사구에 있는 친절한 응답자와 설득을 도와주는 조력 자를 보며 용기를 갖는다.

이렇게 오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뽕장군과의 한판승!

동북지방통계청 박 래 용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

표본 선정 후 1년 정도가 지난 2013년 9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추석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이었다.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고 돌아서는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을 감지하고 아버님 다음 주에 뵈게요. 하는 순간 이제 그만 1년을 해주었으니 더 이상 못 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한참을 선 채로 응답자인 아버님의 동태를 파악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먼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된 게 있나요? 라고 살짝 별로 잘 나지도 못한 얼굴로 웃음을 머금은 채 아버님! 제가 뭘 잘못을 하였나요? 물었다. 한참의 메아리가 흐른 후 아버님의 말씀.... 우리 동네 다른 집은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니 기분이 나쁘다. 는 것이었다.



뽕장군과의 한판승!



이에 나의 좋지 않은 머리를 굴리면서 아버지! 오늘은 심기가 불편하니 다음주 다시 방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풀어 주십시오. 라고 인사드리고 돌아서는 난 내 나이 60이 다 되어 가는 나에게 아직도 회한의 눈물이 남아 있음을 느끼면서 귀청을 서들렸다.

그 다음 주 온갖 인터넷을 찾아서 마음을 열수 있는 좋은 글귀를 찾아 해매길 30분 결국 답은 없었다. 감동문자나 선물로 설득에 성공하는 것은 임시방편임을 어느 누가 알려 주었다. 뭔가를 해야한다는 무거운 가슴의 짐을 안고서 터벅터벅 대상 가구로 향했다.

2012년 농가경제조사 표본개편 하기 전에는 조사구 단위였는데, 13년부터는 가구 단위 조사를 하다보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내검 업무 및 내용검토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 저기 흩어진 농가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기로 남들이 생각하면 드라이브 코스로는 좋다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2개월에 한번 씩 하는 작물 재배 조사 때는 여기저기 말 그대로 이상한 곳곳을 찾아 가다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한 기분을 느끼면서 들판을 헤맨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옛 조사구 때보다는 한 동네에 한 집이니 경지가 많지를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가와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 설마 뭔가 심었을까 싶어서 가보면 참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낀다. 온갖 작물들이 초여름 녹음처럼 푸르다 못해 눈이 부셨다. 경지를 뒤로 하고 다시 다른 필지를 찾아가는데 구불구불한 접접산중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고불고불 고개길을 넘어서간다. 그야말로 누가 업어가도 모를 깊은 산중이었다. 방금 전까지 힘들다는 소리는 어느 순간엔가 온데간데없고 무서움이 앞섰다. 준비해

간 경지요도를 보고 겨우 도착한 곳은 2~3ha정도 고추 및 참깨, 콩, 들깨를 심어둔 것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작물 조사를 마치고 잠시 코 끝을 진동하는 상쾌한 내음을 맞으면서 찾아간 농가에는 나를 반기는 건 대문 옆에서 노려보는 발발이 쏹 만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짹으면서 나의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진다.

분명 지난 주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젠 이놈의 쏹까지 나를 박대 하는가 싶어서 못내 가슴이 아팠지만 힘을 내어 쏹아~ 왜 그래? 하고 집 안으로 들어 가려는데 아버님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주에 얘기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고 본연의 일을 위해 뒷간으로 가신다.

난 소변을 보시려나 하고 앞에서 기다리니 어디에서 풍겨오는 향기로운 냄새가 코 끝을 자극한다. 아~~~ 거시기(재래식 화장실 푸는 날) 하는 날인가보다. 하고 한동안 기다려 보다가 아버님! 오늘 거시기 하는 날인가요? 하니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한 어투로 보면 모르나! 라고 하신다. 몇 분을 기다려도 얼굴 한 번 마주치지 않는 것이었다.

잠시 후 아버님이 똥장군 지계를 지시고 고불고불 산길 초입으로 가신다. 아무런 답도 없이 난 아버님 뒤를 그 지독한 내~음을 맡으면서 따라간다. 한참을 가시더니 아버님이 지친 숨을 내쉬면서 잠시 한숨을 쉬신다.

난 이때다 싶어서 아버님! 저 이런 것 한 번도 안 해보았는데 경험하고 싶어요. 라면서 70대 후반 어른보다 내가 힘이 더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해볼래요. 하니 웃으면서 이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신다.

이때다 싶어서 얼른 똥장군 지계를 메고 일어나는 순간 아~ 후회의 연속이었다. 보기보다 굉장히 무겁고 중심을 잡기가 힘이 들었지만 이왕 시작한





거 50미터라도 가보자는 생각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기껏 20미터 정도 갔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뒤 따라 오시는 아버님이 허~ 허~ 웃으면서 너! 옷 그게 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

난 그때서야 나의 몰골을 보고서 피식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아버님,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제 그만 되었으니 집에 가서 바지라도 씻고 목이라고 씻어라. 하신다.

그때 난 이때다 싶어서 아버님! 저 이 옷을 입고서 어찌 사무실로 들어가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도와 드릴게요. 하니 요령이 없이 하면 출렁이는 똥장군이 튀어 너의 몸에서 묻어나고, 그 냄새는 며칠을 간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너털웃음을 지으신다. 내 몰골이 얼마나 서글퍼 보였으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나도 모르게 산모가 음식 냄새를 맡는 그런 구역질이 계속 나오는 것이었다.

최고의 극에 달했던 때인지라 그렇게 냉랭하던 아버님이 쉽지 않은 말투로 먼저 말씀을 꺼내신다. 미리 단단히 마음을 다졌지만, 오늘 너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보았다. 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건성 건성으로 조사를 해주었고 안 써주려 하였는데 조금 미안하다. 고 하신다.

한동안 묵묵부답으로 아주 어색한 상태로 몇 초가 지난 후 쉽게 조사에 허락할 것 같지 않던 아버님에게 아버님! 왜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웃으면서 물어보니 내 자식도 이 똥장군을 지려 하지 않는데 용기가 너무 기특하고 비틀거리는 뒷모습을 보니 먹고 살려고 이리도 똥똥거리는구나. 불현듯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생각나서 아픈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

시면서 잠시 기다렸다가 내가 이것만 처리하고 집에 가자. 그래도 씻고 가야지 않겠어? 하셔서 한동안 아버님의 한걸음 뒤를 따르면서 말을 붙였다.

아버님! 농사 너무 많이 지으십니다. 어머님 허리도 구부러져서 제대로 걸음도 잘 못 걷잖아요. 좀 줄이세요. 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어렵사리 연결된 대화를 이어가며 제발 한번 절 믿어주시고 조사에 응해주십시오.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버님은 긴 작대기가 연결된 바가지로 여기 저기 장군통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뿌리시는 것이었다.

그런 후 어깨를 나란히 한 후 아버님! 이제 통장군을 혼자 푸시지 마시고 제가 올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니 참~ 살다가 이것을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네.... 그러자 반 썸은 설득이 성사되었다.

그렇게 두려움 반, 약간의 기대 반으로 막상 집에 도착하여 아버님이 등목을 시켜주신다. 난 그 어느 손길보다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간단히 씻은 후 아버님이 찬 얼음물을 내어주시면서 넌 배알도 없는 놈이야? 라면서 측근한 눈초리와 웬지 낯설지 않은 말투로 다음 주에 다시 오너라! 라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을 하신다.

다음 주에 방문한 난 인사를 건네고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성의를 다해 설명하는데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협조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고 잘 쓰지도 못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핑계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진심어린 행동에 나는 정부에 대해서 손톱 만큼도 이득도 없었는데 이제 생각하니 나의 무지가 부끄럽다. 하신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설득해야 된다는 일념에 아주 좋은 말로 부드럽고 강하게 이것 협조해주시면 아버님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에 조금은 신선함이 있지 않겠어요?

나의 작은 행동이 이런 큰 기쁨을 가져 올 줄이야. 야호!!! 다시 찾아온 응답자와의 설득이 이렇게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이런저런 이유로 표본으로 조사를 계속하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어려움이 몰아 닥쳤다. 아버님이 뇌수술을 받고 말았다. 계속되는 악연. 다시 찾아간 병원에는 말을 더듬으시면서 거동도 또한 불편하였다.

난 매 주 농가를 찾아가기보다 병원으로 갔다. 평소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음식(회)을 장만하여 갔더니 손이 떨려서 드시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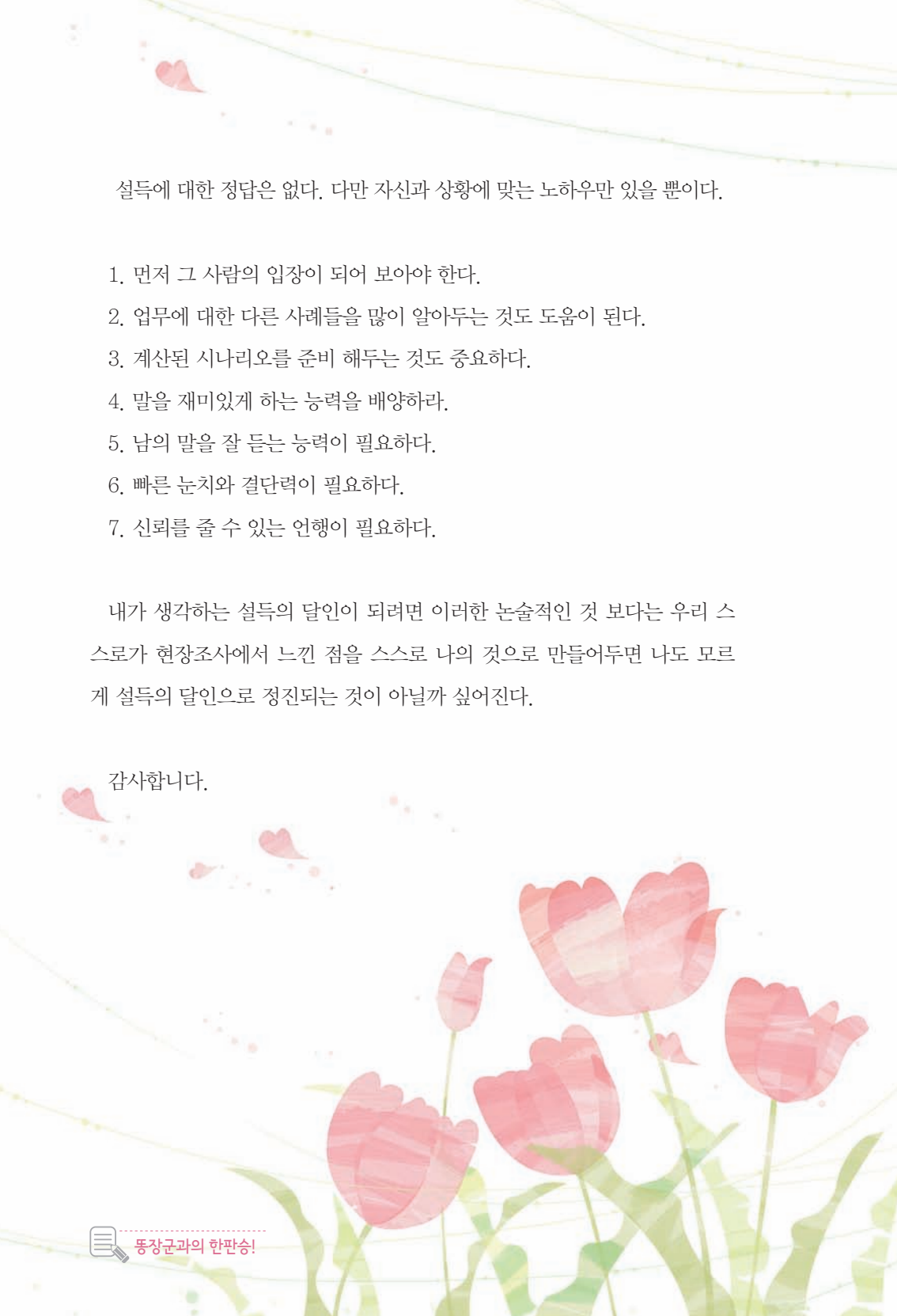
난 손수 먹여 드리면서 건강을 찾으신다면 우리 조사 안 해줘도 괜찮아요 라면서.... (실제는 어떻게 하든 계속 조사를 하려 마음먹었음.)

그러면서 한달 후 퇴원을 하신 아버님이 몇 달간 손이 떨려 적을 수 없으니 어떡하면 되냐 는 것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매일 전화 드릴테니 당분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몇 달이 흘러 많이 좋아지신 지금은 예전처럼 손수 기장도 해주시곤 한다.

우리는 설득과정에서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지만, 그동안 불응에 대한 조바심과 긴장으로 피로감과 업무의 회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설득 후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신규표본 및 불응가구를 설득하기까지 엄청난 끈기와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상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득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자신과 상황에 맞는 노하우만 있을 뿐이다.

1.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2. 업무에 대한 다른 사례들을 많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계산된 시나리오를 준비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4. 말을 재미있게 하는 능력을 배양하라.
5. 남의 말을 잘 듣는 능력이 필요하다.
6. 빠른 눈치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7. 신뢰를 줄 수 있는 언행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설득의 달인이 되려면 이러한 논술적인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현장조사에서 느낀 점을 스스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두면 나도 모르게 설득의 달인으로 정진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진다.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아저씨와 노랑바지 아줌마 부부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하나

동북지방통계청 신 은 정

2012년 7월 육아휴직 후 첫 연동표본!!! 이상하게 꼬이는 연동...
그 중 제일 황당한 가구를 말씀드릴게요. 가계부 설득 실패담입니다.
선글라스 아저씨와 노랑바지 아줌마 부부이야기예요.

이 가구는 처음부터 가구주(남편)를 만나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하는 것에 아주 협조적이었어요. 4인가구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구(화물차 운전 자영 50대 가구주, 가정주부인 40대 배우자, 20대 어린이집 교사 딸, 20대 대학생 아들)였어요. 이 가구도 가계표본가구로 설정되었습니다.

11월부터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라 하니 작성해주 겠다 고 했어요. 그것도 남자분께서요. 배우자는 주부인데 이상하게 낮에 가

도 계속 못 만나고 남편만 만나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가게 부 부탁도 드리겠다고 하니 남편은 가게의 수입지출은 자신을 통해 이뤄진다고, 장도 거의 자신이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 배우자에게는 조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경제관념이 적다면서). 각 가구원 수입지출도 알아야 한다고 하니 그것은 자신이 물어 적어주신다네요.

그래도 일단 해준다고 하시니 맘 편하게 가게부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일단 연습으로 10월달 가게부를 적어보시라고. 가게부 얘기를 하면서 기입지도를 하겠다고 하니 자신이 다 알아서 가게부 작성하겠다고 하네요.

다음 달 가게부를 적어보셨나요? 라고 물으니 이달은 못 적으셨다고 다음 달 제대로 적어주시겠다고 하네요. 통신비, 전기요금 등 영수증도 다 모아주시고 적어주신다고.... 믿었네요. 경찰조사기간에도 만나 조사를 완료 후 가게부 작성에 불편한 사항이 없냐고 하니, 괜찮다며.... 다 완료 후 가게부 주겠다고 하네요.

월 말이 다 되어 남편분께 방문약속을 하려 전화를 하니 본인이 가게부를 가지고 사무소를 방문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편하실텐데 제가 청도로 간다고 하니 경산을 지나 청도에 가게 되어 괜찮다고 방문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편한 시간을 물으니 저녁 7시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식당에서 보자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말한 식당으로 찾아가던 중 다시 전화가 와서 다른 식당으로 오라고 하네요. 너무 황당했지만 다시 네비게이션을 찍어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30분이 넘는 시간에 한정식집에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계시는 가구주. 게다가 삼겹살 3인분과 한정식을 주문해놓고 말입니다. 황당





했지만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이 고기가 드시고 싶으셨다고 배우자가 해주는 음식보다 이 음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시며, 또 장소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그 전 식당에서 아는 분을 만나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 상황 설명. 또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본인이 아는 사람이 많아 자신을 알아볼까봐 밤에 선글라스를 껴다고 하네요. 저를 만나는 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에 많이 황당했습니다.

가계부 얘기를 하니 그건 식사 완료 후 해도 된다고, 개인적인 말로 이어 나갔어요. 그 집에 개를 키우는데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키우는 중이다 등 등 저는 중간중간 말씀을 끊고 가계부 기입지도를 하길 시도하였으나 실패, 기입된 가계부를 받고자 일단 최대한 식사를 빨리 하고 중간에 식사값을 지불하기 위해 화장실 가는 척을 하며 계산하러 나왔더니, 가구주가 벌써 계산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밥을 얻어먹게 된 저는 가계부를 받고자 가구주에게 말을 하니 자기 차에 가계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차는 큰 화물차라서 여기 주차장에 차를 못 세우고 다른 곳에 있다고 같이 가자. 또 식사값 지불한 것은 와이프에게 비밀로 하자고, 와이프가 의무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가계부는 적으신 게 맞나요? 라 물으니 적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지난 달 가계부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이번 달부터 가계부 열심히 적어주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인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물론 선글라스 아저씨의 의도는 순수했는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저는 기분 나빴어요. 또 경찰 중간이 되어 조사구에 가니 배우자는 집에 없고 아저씨가 집에 계셨어요. 경찰에 대해 물으니 지금 집에 본인 밖에 없어 집에 들어오라고 못하겠고, 개가 많이 짖으니 조금 후 연락하겠다. 라고 하셔서 다

른 집 조사하는 중 아저씨가 전화가 왔어요. 집 앞에 다방에서 만나서 조사하자고 그래서 어머, 어찌죠? 전 벌써 경산으로 출발했어요. 라며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조사를 끝내고 출발했어요.

그 후 집에서는 잠시 면접하고 전화로 재조사를 하기로 맘을 먹었어요.

12월달 가계부는 계속 약속 불이행하고 드디어 2월달 집에서 배우자를 만났어요. 인터폰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며 저에게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워서 소금 뿌렸다. 당신한테 뿌린 건 미안하다. 시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어요. 꿈자리 사나울 때는 소금 뿌리면 괜찮아져서 자주 뿌리신대요. 일단 만나기 어려운 분이라 얼른 통계청 직원이라 소개하니 집으로 들어오라시더군요. 세 달이나 약속불이행으로 가계부를 못 받은 터라 기분 좋게 들어갔어요. 약간의 희망을 가지며 들어갔어요.

일단 집은 엉망이었지만 협조적이라 사모님 뵙기가 힘드네요. 혹시 일하시는 건 아닌가요? 했더니 사교적이라 친구들 만나러 매일 나간다고, 근데 설 지나고부터 미나리하우스에서 일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 분의 말씀도 듣고 가계부 얘기를 하니 배우자가 그럼 영수증이라도 모아준다고 하시네요. 그저랑 남편분 영수증 등 가계부 적은 것과 합치면 딸과 아들 것도 영수증 등 다 모아주신다고 협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말씀 뿐이었습시다. 2월 말부터 일하시기 시작해 가계부작성은 더 어려웠어요. 배우자에게 만날 약속을 하고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어서 꼭 약속을 하고 찾아가는데, 오전에 약속을 하고도 만날 수가 없는 날이 있어요. 집에는 계시는데 술에 취해 계신 날은 만날 수가 없습시다. 그래도 꾸준한 설득으로 5월달부터 가계부 작성이 시작됐어요.





두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집에 방문을 했어요. 보험이나 통신비 등 가구에 관한 일을 알아야 해서 찾아갔는데, 아주머니와 같이 계실 때와 혼자 계실 때에 아저씨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잠시 아주머니가 영수증 찾으러 간 사이 아저씨는 저에게 돈 2만 원을 주시면서 갈 때 기름값 하라며 와이프 몰래 빨리 주머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황당함이..., 바로 거절하며 돌려드리고 와이프가 돌아오니 표정을 다시 바꾸며 형식적으로 대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조사를 이어나갔어요. 5월달부터 가계부 작성을 하였습니다.

7월 초 응답자 간담회를 주최하기 위해 참석자 파악 중 흔쾌히 참석의사를 밝혀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행사 전 다른 분들이 혹시 잊으셨을까봐 제가 집집을 방문하며 참여 협조를 구했어요. 그러다 출발하시는 배우자를 발견하고 행사장 방문을 권유했어요. 그런데 그 분께서 기분이 나쁘셨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그 분을 무시했다고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달받아서 그 분 집에 다시 방문을 하니 다른 사람들은 모시러 가면서 자기를 왜 안 모시러 왔냐며 기분 나쁘다고 하네요. 이런 황당함이..., 그런 일로 사무실에 전화해 언성까지 높이며 얘기를...

그리고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는지 간담회 참석을 하셨어요. 그 때 노랑바지를 입고 참석하셔서 그 분 별명이 노랑바지 아줌마로 통하게 되었어요.



오셔서 소장님과 기분 좋게 얘기하시고 술도 한 잔 거하게 하시며 다음에 소장님과 저와 따로 만나 술 한 잔 하자고 말이지요. 불과 30분 전에 저희 사무소에 전화해서 회를 내신 분이 아주 기분 좋게..., 감정 기복이 원체 심한 분이었습니다.

그 후 일을 잠깐씩 하고 쉬고 경찰상태가 계속 변동이 있어 최대한 기분 좋을 때 가서 몇 시간씩 붙들려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해 의부증이 있어 제가 남편분께 전화하는 걸 싫어하세요. 남편이 화물운전을 하시기에 혹시 전화받다가 사고 날 수도 있다고 꺼려하시길래 문자만 보내는 걸로 했지만 또 직접 찾아가 만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월요일은 일 안하시는 날이 많아 그 날 찾아가 조사를 했어요.

또 노랑바지 아줌마가 발에 티눈이 크게 생겨서 수술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럼 가게부는 다음에 얘기하자며 병문안을 간다고 하니 아들에게 가게부 병원으로 가져다 놓을테니 내일 병원으로 가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조사구랑 병원이랑 아주 가까운 거리임. 걸어가도 5분이 안 걸림.) 그래서 병원에 들고 갈 음료수를 챙기고 11시에 오라고 하셔서 그 전에 10시 30분 쯤 다른 조사구분을 만나 조사하려고 일찍 갔더니 동네에서 그 분을 만났어요. 걸어가는 중이셨어요. 어디 가세요? 했더니 집에 뭘 가지러 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걸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시네요.

조금 후 병원으로 가신다고 하여 그럼 11시 넘어서 병원으로 갈게요. 라고 하며 바로 앞집 어린 아기가 있는 조사구집에 방문했어요. 한 10분쯤 지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랑바지 아줌마가 사무실에 전화했다고. 느낌이 확 오는 거 있죠. 노발대발 소리 소리치며 제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발아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보고는 그냥 갔다며, 본인이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볼 일 없겠다며 오지 말라고 화를 내셨다네요. 자신이 병원에 제대로 입원하는지 확인하는 느낌까지 받았다네요. 보험에 청구하실 명목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상황이셨어요. 우리가 아는 일명 나이롱환자....





제가 바로 그 집에 방문을 하니 문을 안 열어주시더군요. 계속 사무실에 통화중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인터폰을 하니 문을 열어주시고는 기분이 풀렸는지 저한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병문안 음료수 들고 약속시간 맞추어 병원으로 가려고 한건데요. 하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음료수를 보시곤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앞집에 돌도 안된 애가 있어 낮잠시간 맞춰 방문한거라고 하니 일단은 알겠다. 며 자신이 병원에 안 가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골이라 병원에 노인들이 많고 냄새가 나 병실에 있기 힘들고 밥도 맛없어 집에서 먹으려 집에 왔으며, 또 한참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줘야 했어요. 빨리 일어나려고 해도 2시간은 기본이에요. 또 저한테 기분 나쁘시면 저한테 바로 전화해주세요. 했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바로 해결해준다. 면서 그러시네요. 덕분에 직원들도 전화 받기 스트레스를 받았네요.

어느 날, 월 말쯤 사무실에 전화 와서는 저를 찾으시더니,(물론 제 휴대폰 번호를 아십니다.) 내일 오전에 자신의 집에 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날은 학교에 사교육비조사 때문에 약속이 먼저 된 터라 그 시간에는 안 된다고 죄송하다며 다시 약속을 잡으려 하니 필요없다면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러곤 다시 사무실에 전화해서 남자직원분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말이죠. 남자분에게 내일 자신의 집에 제가 출장나오게 해달라고 하시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참 수화기를 들고 계시던 직원분이 그냥 이 집에 갔다오라며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학교에 다시 시간 약속을 잡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가니까 비닐봉투에 영수증 한 가득 모아서 빈 가게부를 주시는 거 있죠. 자신이 내일부터 일하러 가야 해서 저한테 오늘 오라고 했답니다. 오후에는 약속이 있다

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역시 남자한테 얘기해야 바로 처리가 되지. 하시네요.... 비닐봉투 안 영수증은 이달 것이 아닌 예전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넣어주시면서도 영수증 모으는 수고를 얘기하십니다. 11월달 가게부부터는 너무 부실해서 제가 회수율과 관계없이 부실가계부 처리하였습니다. 부실가계부는 안 된다며 계속 얘기했지만 말 뿐인 대답만 들었어요. 이 영수증 모으기가 얼마나 귀찮은 줄 아냐? 며 계속 투정을 하십니다. 몇 달을 부실가계부를 받아 처리해도 정상가계부로 전환될 기미가 전혀 없어 제가 가게부 작성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또 답례품은 적게 나오니 이 해해달라고 했구요. 남편분 영수증도 다 모아주시기로 했지만 전혀 나오지가 않고 전기료, 보험 등등 다 미납되어 갚았는지 등등 물어볼 것이 산더미인데 다음에 모아두겠다고만 계속 말만 하셔서 이제는 안 되겠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나오고 다른 집에 가 있는 동안 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게부 영수증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가게부를 적지 말라고 했으며, 항의 전화가 왔대네요. 제가 직원한테 미리 말한터라 가게부 그만 적으시라고 하니 한참 얘기하다 끊고는 다시 전화가 와서 한 소리 크게 하시고 이젠 조사에 응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다시 웃는 얼굴로 그 분과 만나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 답례품을 주니 그것도 신경질 난다고 합니다.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가게부 작성을 하고 그 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실가계부를 제출하였지만, 그 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에게도 갑자기 가게부를 써서 통계청에 자료제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것인 게 맞죠.

조사 경험 10년 가까이 되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가구는 없었네요.

그래도 요즘은 선글라스 아저씨와 노랑바지 아줌마의 전화는 뜸해졌어요. 제가 전화할 때 못 받고 다시 전화오는 경우만 있네요.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을... 또 가계부 회수율을 포기하니 마음이 편해져 조사구 출장가는 즐거움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경찰주간 제일 마지막에 찾아가 그 분의 오랜 애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걸로 맘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가계동향조사 총괄자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가계 회수율을 높이라고 말하는 제 자신에게 많이 부끄럽습니다. 남들은 시골 조사구라 쉽겠다고 하지만 조사구에 이런 가구가 있다면 빨리 연동이 돌아왔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내년 8월이면 조사완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그 분의 감정 기록이 심하지 않길 기대하면서...



나의 첫 연동표본조사 체험기

동북지방통계청 최 희 아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둘

말로만 듣던 그 이름마저도 무서운 연동표본조사….

지난 3월 가구부문조사를 담당하는 현장직원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제인 연동표본조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연동표본조사를 맡는데다가 경력 많은 베테랑 직원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아파트 조사구.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파란 줄의 공무원증을 당당히 목에 걸고, 긴장된 마음으로 표본조사구인 아파트로 향했다. 땡땡~ 땡땡~ 초인종을 누르며, 나의 연동표본조사가 시작되었다.





다행히 처음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명부조사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응답해주었고,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4월부터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하며, 연동표본조사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핑둥~ 핑둥~

아줌마1 : 누구세요?

나 :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아줌마1 : (문을 열어주며) 어디라고요?

나 :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표본선정안내문 우편으로 보냈는데 보셨나요?

아줌마1 : 그거 그냥 버렸는데...

나 :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보내드린 안내문은 통계청에서 매달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줌마1 : 통계조사요? 그게 뭔데요?

나 : 뉴스 보면 고용율과 실업률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고용율과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는데 활용되는 통계조사입니다. 조사항목은 일하고 계신지, 일은 얼마나 하시는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등을 여쭙보게 됩니다.

아줌마1 :

나 :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아줌마1 : 네...

그래도 다행히 탐탁지 않은 말투로라도 조사에 응해주었고, 감사의 인사를 하며 그렇게 첫 번째 가구를 완료했다.

첫 번째 가구를 했을 뿐인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

다. 두근거리는 심장소리에 나도 놀랄 지경이었다. 차분히 마음을 다잡았으나, 다음 가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핑동~ 핑동~

아줌마2 : 누구세요?

나 :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아줌마2 : (잠시 후 문을 열어주었다.)

나 :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표본선정안내문은 보셨나요?

아줌마2 : 네. 봤어요.

나 : 저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라고, 일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쭙보는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아줌마2 : (마지못해) 네...

(표본가구명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나 : 가구주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줌마2 : ○○○이요.

나 : 가구주분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주머니의 태도는 순간 냉정해졌다.)

아줌마2 :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요즘에 동사무소에서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생년월일 수집 안하는 거 모르세요? 이름이랑 생년월일 알려주면 다 조회되는데... 일하는 거 물어보는 조사랑 생년월일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일하는 거만 물어보면 되지 이름이랑 생년월일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 조사 안 할래요!!!





쾡!! 하고 문이 닫혔다.

순간 너무 당황한 나는 머릿 속이 하얘졌고, 바보같이 문이 닫힐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쾡!! 하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초인종을 다시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불응가구가 1가구….

증대된 개인정보보호의식으로 불응가구는 1가구에서 2가구로, 2가구에서 4가구로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그렇게 나는 우리사무소에서 불응률이 가장 높은 직원이 되었고, 늘어가는 불응가구 속에 나는 점차 작아져만 갔다. 이후로는 벨을 누르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제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금세 통계청 직원으로서 안일한 생각은 잊어버린 채 다시금 불응가구를 설득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불응가구를 설득하려 ○○○호를 찾아갔다.

내가 맡은 아파트 조사구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낮에 만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호는 교직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는 분으로 낮에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구 중 하나였다. 처음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호를 방문한 날이었다.

핑둥~ 핑둥~

○○○호 : 누구세요?

나 :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호 :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나 :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표본선정안내문 보셨나요?



○○○호 : 네~봤어요. 이게 어떤 조사죠?

나 : 뉴스 보면 고용율과 실업률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고용율과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는데 활용되는 통계조사
입니다. 조사항목은 일하고 계신지, 일은 얼마나 하시는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등을 여쭙보게 됩니다.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호 : 네. 물어보세요.

나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무사히 마쳤다.)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나에겐 숙제가
있었다. 숙제는 바로 ○○○호는 가계동향조사의 대상가구였다. 가계부에
대한 얘기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일단 조사를 무사
히 마쳤다는 성취감을 갖고 다음 달을 기약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음 달이 되었다. 이번 달에는 꼭 가계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호를 방문하였다.

핑동~ 핑동~

○○○호 : 누구세요?

나 : 통계청 직원입니다.

○○○호 :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호 : 들어오세요.

나 : 잘 지내셨어요?

○○○호 : 네. 잘 지냈어요.

나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고)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 : 음료수 한 잔 줄까요?

나 : (기쁜 마음으로) 네~ 주세요. 어머니, 취미생활 하시는 거 있으세요?

○○○호 : 나는 오전에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해요.

나 : 아아~저도 요즘에 운동하나 할까 하는데 요가 어때요?

○○○호 : 요가 좋죠. 요가를 한지 몇 년 됐는데 요가를 하면...

(그렇게 ○○○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 즈음...)

나 : 어머니 혹시 가계부 쓰시나요?

○○○호 : 가계부요? 나는 여태 살면서 평생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어요.

나 : (순간 놀랐지만)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 중에 가계동향조사라고 있어요. 가계의 소득과 지출부분을 조사하는 건데요. 혹시 가계부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호 : 나는 예전에 젊을 때도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 : 제가 일주일에 1~2번 정도 방문해서 가계부 쓰시는 것을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호 : 네. 생각해볼게요.

나 :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걸하듯 어렵게 얘기를 꺼냈지만 그리 좋지 않은 반응이었다. 그래도 생각해본다는 응답자의 한 마디에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약했다. 드디어 다음 주가 되었고, ○○○호 대상가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되었다. 지난 번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내가 딸 같다는 응답자의 말을 생각하며 설렘을 가득 안은 채 ○○○호로 향했다.

핑둥~ 핑둥~

○○○호 : 누구세요?

나 :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이에요.

○○○호 : 잠시만요. (문을 열어주며) 들어와요.

나 : 네. 일주일동안 잘 지내셨어요?

○○○호 : (좀 딱딱한 말투로) 네. 잘 지냈어요. 내가 가계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가계부는 못 쓸 것 같네요. 내가 50년 동안 살면서 가계부라는 것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젊은 시절 일할 때도 쓰지 않았던 것을 50대가 돼서 이제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써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나 :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를 파악하는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많은 통계 중에 가계수지를 파악하는 유일한 조사가 가계동향조사예요. 가계동향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파악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나 근로자의 임금기준 결정, 소득분배 수준 측정 및 소득분배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이 되는 조사입니다. 가계부를 처음 써보시니 조금은 귀찮고 불편하시겠지만, 많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조사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호 : 그러니까 내가 왜 국가의 통계를 위해서 쓰지도 않는 가계부를 써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내 가계수준을 알기 위해서 가계부를 써야한다면 귀찮더라도 가계부를 쓰겠는데 나는 우리집 가계 수준을 알고 싶지도 않은데 통계조사만을 위해서 가계부를 왜 써야하냐고요?

(이렇게 ○○○호 응답자와의 대화는 계속 되었고...)

○○○호 : 그럼 내가 딱 한 달만 써본 후에 이 조사를 계속해도 될지 내가 판단을 해볼게요.





나 : 네..., 감사합니다.

긴 대화 끝에 가져간 분홍색 가계부를 전해드리고, 쓸쓸히 ○○○호의 문을 나섰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조건이 붙은 가계부 조사를 약속받았고, 나는 한 달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호 응답자와 친분을 쌓고, 응답자의 마음을 돌려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응답자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 인기척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에도 답하지 않은 채 시간은 계속 흘러 약속한 한 달이 되어갈 무렵의 어느 날 ○○○호 응답자와 연락이 되어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핑동~ 핑동~

○○○호 : (아무 말 없이 인터폰으로 나를 보고 문을 열어주었다.)

나 :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집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자마자)

○○○호 : 도저히 너무 짜증이 나서 가계부를 쓸 수가 없네요. 내가 지출한 내역에 대해 가격이랑 품목을 일일이 적어야 하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나고 귀찮네요. 그리고 이 조사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를 않고요. 대학생인 아들한테 이 조사를 꼭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아들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걸 왜 하냐며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며칠 쓰다가 그 뒤로 안 썼어요. 내가 처음에 한 달분은 써준다고 약속했으니 정 필요하다면 한 달 분만 정리해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가계부를 써주지는 못할 것 같네요.

○○○호 응답자분은 남편분이 교사인데다 본인은 연금을 받으셔서 답례품으로는 전혀 설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국가의 통계를 위해서 조사에 협조해달란 말도 이미 여러 차례 말한 상태였다. 일단 가계부 회수율이 중요했던 난 한 달분이라도 정리해달라고 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호의 집을 나서는데 나 자신이 왜 그렇게 작게만 보이던지...,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일주일동안 지침서를 읽고 기사도 스크랩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로 다시 ○○○호로 향했다.

핑둥~ 핑둥~

○○○호 : (문을 열며) 지금 집에 손님이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분홍색 가계부만을 내밀었다.

이 한 마디에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다. 응답자는 내가 준비한 것을 말할 단 1분의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분홍색 가계부만을 내밀었고, 그렇게 ○○○호를 나왔다.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마저 불응하며, 굳게 닫힌 ○○○호의 문은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호를 대하며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이렇게 낮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계조사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오직 귀찮고 불편한 일쯤으로만 치부해버린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당하는 통계조사.... 그게 현실이었다.

얼마 전 찾아간 한 불응가구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정보 유출됐다는 뉴스 보셨죠?! 이 조사 안해요!!! 라고 했다. 당황한 나는 열심히 기사들을 찾





아보았지만 통계청에서 정보 유출되었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알았다. 그 불응가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가 점차 유출되어… 라는 뉴스가 나온 걸 보고 통계청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었다.

통계청, 그리고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귀찮음보다 통계의 효용이 더 크다는 것으로 바뀌면, 지금보다 좋은 조사환경이 될 것이고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연동표본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통계조사를 응답해야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사실 통계법에 의하면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한다. 표본가구에 통계법을 얘기하며, 응답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을 하면 응답자들은 코웃음을 친다. 통계법이라는 것은 처음 본다며 본인도 통계조사를 해봐서 아는데, 통계조사가 우리가 해주고 싶으면 응해주는 것이지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말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물어봐도 되냐고 하는 것이다. 요즘 보이스피싱 등 사생활노출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한다.

하지만 다수의 표본가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생년월일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생년월일을 물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개인정보 수집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며 불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통계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전혀 위배될 것이 없다.

이제 현장조사를 시작한지 겨우 1년 4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남은 나의 공직생활은 30여년 정도이다. 30년 후에 나의 후배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아련하게 추억할 날이 왔을 때, 후배들이 말도 안 돼!! 21세기에는 통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낮았던 말이에요? 라는 반문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조사환경이 비옥해지기를 기대한다.

오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불응가구 설득을 위해 표본조사구로 향한다.

가구부문조사를 담당하며 연동표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든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셋

농업통계 새내기 의 좌충우돌 성장기

동북지방통계청 조 미 순

2013년 3월 새로운 사무소로 발령받아 첫 출근 날...

직원들도, 사무실도 낯설었던 나에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다.

4년 전 농가경제조사는 접해본 적이 있으나 재배면적조사나 가축동향조사 같은 농업생산 업무는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터라 두려움이 앞섰다.

다행스럽게도 직원들의 배려로 사무실에서 가까운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업무인수를 위해 동행출장을 했으나 여기는 어디? 대체 뭘 해야 하는 거지? 마치 처음 통계청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기분으로 수첩에 메모도 열심히 하고, 주변 지형지물도 적어놓고... 조사표에 이동순서도 적어가며 출장을 마쳤다.

지침서도 열심히 읽고, 작물도감도 뒤져가며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

고, 드디어 5월 작물재배면적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혼자 현장으로 향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막막했다. 날은 덥고 조사지역이 여기가 맞는지..., 조사지역 찾는 것도 힘들고, 파란 건 풀이고 까만 건 흙이고..., 저게 작물인지 잡초인지 도대체 뭐 하나도 확실한 게 없었다.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도 하고 주변 농민들께 여쭙기도 보고...

그렇게 좌절과 함께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선배들께 사진을 보여드리며 첫 날을 마무리했다.

걱정하고 앉아있는 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옆 자리의 언니가 내일 내가 작물조사 같이 나가줄게. 같이 가자. 이러시는 게 아닌가.

정말요? 날도 덥구, 언니도 바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내일 가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기분일까? 그렇게 천군만마를 얻고 두 번째 작물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작물을 보자마자, 이건 오이! 이건 돼지감자! 이건 옥수수..., 작물이름을 술술 대며, 재배면적 몇 평을 말하는 그 언니가 정말 존경스럽게 보였다. 열심히 따라다니며 조사도 하고, 작물에 대한 공부를 하며 한 조사구, 한 조사구를 마무리하며 문제의 조사 지역으로 향했다.

분명 3월 인수인계 때 산을 하나 넘었던 것 같은데 입구를 못 찾겠네. 둘이 고민하다가 그냥 가보자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열심히 산을 올라 정상에 올랐는데 길은 안보이고 염소농장이 보였다. 그 물망으로 길은 막혀있고, 다시 내려가기도 막막하고...

우리 옆으로 더 가보자.

그렇게 우리 둘은 염소농장을 옆에 두고 길을 찾아 이동을 했다. 그런데





염소들도 갑자기 나타난 우리 때문에 놀랐는지 그 많은 염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겁은 났지만 그물망으로 가려져있으니까 별 일 없겠지 싶어서 무시하고 우리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야~~!!!! 새까만 염소 한 마리가 우릴 향해 달려와 그 물망을 반쯤이나 넘어버려 하마터면 염소 뿔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에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염소는 무섭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산을 다시 내려가자고 하며 내려가는데 산에서 다시 푸드득! 염소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 다시 나타난 무언가에 놀래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뭐예요? 뭐 있어요? 앞에 가던 언니에게 물었다.

고라니야. 괜찮아. 내려와.

휴~~ 다행이다 싶어 그렇게 천천히 언니를 따라 겨우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상황이었다. 만약 둘이 아니라 혼자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울고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며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 그 후 산을 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멀리서만 염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을 시점에 전 담당자께서 조사는 다 했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못했다고 했더니 내가 나가줄테니 가자. 하셔서 나는 염치 불구하고 따라나섰다.

이건 뭐지 아니? 아니요.

저건?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좌절을 맛보며, 많은 주변분 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많았던 첫 번째 작물재배면적조사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후로도 선배님들의 동행출장은 계속되었다.

작물조사를 마치고 나니 이젠 가축동향조사를 해야 한단다. 동물에 대한 겁이 많아 축사 근처에도 못 가는데 어떡하지? 특히 개는 멀리서 봐도 무서운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에 대한 걱정보다는 농가에 어떻게 가야 하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대부분 한우 사육 농가에서는 개를 키운다고 하신다.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첫 번째 농가에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소만한 개 두 마리가 막 달려오는 게 아닌가. 아저씨도 협조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집을 앞에 두고도 개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고 한참을 지켜만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저씨가 보시고는 집 밖에 나와서 조사를 해 주셨다.

통계청에서 가축동향조사 때문에 방문했는데 개 때문에 무서워서요.

괜찮아. 안 물어. 뭐 물어보려고?

그 농가 외에도 여러 농가의 경영주에게 전화를 걸어 개를 막아달라고 부탁해가며 첫 날을 마무리했다.

가축동향조사 조사 지역이 고성군에 위치해 있는데, 고성군은 접경지역이라 유난히 군부대가 많은 곳으로 지나다니는 군용트럭이나 탱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6월임에도 날씨가 덥고, 점심을 못 먹은 탓에 지쳐있던 중 잠시 쉬려고 다리 근처에 차를 세웠는데 팡! 팡! 소리와 함께 차가 갑자기 흔들거렸다.

이게 뭐 일이야? 차가 잘못됐나? 차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카톡으로 고성출장중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무슨 일이에요?

폭탄 터지는 소리 났어요.

군부대에서 훈련했나봐. 완전 완전 무서워~

나도 들었어. 뭘 그런 걸로 놀래고 그래.

그 날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었지만, 지금은 심심찮게 들리는 폭탄소리에 그냥 조금 놀랄 정도로 심장이 많이 단단해졌다. 그러나 아직은 축사 안에서 움직이는 소로 인한 소리와 개에 대한 공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뭐 하나 쉬운 것 없는 농업통계의 한 고비를 그렇게 또 한 번 넘겼다.

수확철 작물재배면적조사를 가면 왜 남의 밭을 기웃거려요? 라며 도둑취급을 당할 땐 서럽기도 하지만, 더운 여름 이거라도 먹으라고 음료수를 내어 주시며 아가씨 힘든데 뭐 하러 맨날 와. 나 여기 배추만 심을 거니까 미리 적어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직 시골인심이 나쁘지



는 앓구나를 느끼며 현장조사에 임하고 있다.

사회통계를 담당할 때는 얘기로는 들었지만 설마 논에서 직접 벼를 베겠어? 감자를 캐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농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수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자생산량조사를 위해 출장을 나갔을 때 일이다.

임병장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않아서일까?

임병장이 체포된 인근 지역의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에 위치한 밭인데 예전에는 문이 열려있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곳이었으나 사건 이후 군부대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군 초소에서 열쇠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무실에서 부대에 연락을 취해 열쇠를 받으러 갈 곳을 문의하고, 군 사격장을 지나 언덕 위에 군 초소에서 열쇠를 받아서 조사지역으로 향했다.

문에는 민간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붙여져 있었다.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서일까? 아니면 출입금지 지역이어서 그랬을까?

열쇠를 열고 조사 필지에서 감자를 수확하는데, 철조망과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웬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논에서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감자 캐는 것, 벼 베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는 일인데…. 그동안 쉽게만 생각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비가 오는데도 감자를 캐고, 벼를 베야 하고, 직접 낫으로 베지는 않았지만, 벼를 베고, 말려서 탈곡을 하고, 다시 현미를 만들고, 제현을 하고…. 논 벼생산량조사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경험해보고 나니 농업통계를 하는 담당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때로는 뱀도 발견하고, 논에서 놀고 있던 고라니를 목격해 놀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힘든 중에서 서로 다독여가며 친분도 쌓을 수 있는 농업통계의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좌절도 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며 어느새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작은 메뚜기에도 기겁하며 소리 지르고, 아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 실수도 하고 SNS와 사진 촬영으로 선배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으로 면적측정 경진대회에서 입상도 해보고, 마늘과 양파, 쪽파와 대파를 구별할 줄 안다.

어머니, 밭에 쪽파 심으신 거 같던데 맞죠?

응. 맞아. 이젠 그런 것도 잘 아네.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지금 농업통계인으로서 조금은 성장한 모습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껴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안고 초보 조사원은 오늘도 농업통계 현장으로 향한다.





'쌩초보'의 좌충우돌 현장조사

호남지방통계청 김 지 현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넷



1. 쌩초보! 저도 제가 무서워요.

공무원 합격자 명단을 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꿈만 같았으나 달달한 합격의 기쁨은 나에게 쓰디 쓴 현장조사의 시작으로 바뀌었다.

나는 어가경제조사를 맡았고 담당지역은 장흥군 회진면과 완도군 고금면으로 사무실에서 대상처까지의 거리는 두 곳 모두 승용차로 1시간 정도 걸렸다. 처음에는 팀장님이 섬 출장을 가는 길에 내려다 주셨다가 오는 길에 다시 태워주기를 반복하셨지만 그것도 잠시, 죄송스러운 마음에 군내 버스를 타겠다고 말씀드렸다.



'쌩초보'의 좌충우돌 현장조사



구분	노선	종점	시간	구분	노선	종점	시간
7:00	7:15	7:30	7:45	8:00	8:15	8:30	8:45
8:00	8:15	8:30	8:45	9:00	9:15	9:30	9:45
10:00	10:15	10:30	10:45	11:00	11:15	11:30	11:45
12:00	12:15	12:30	12:45	13:00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14:45	15:00	15:15	15:30	15:45
16:00	16:15	16:30	16:45	17:00	17:15	17:30	17:45
18:00	18:15	18:30	18:45	19:00	19:15	19:30	19:45
20:00	20:15	20:30	20:45	21:00	21:15	21:30	21:45
22:00	22:15	22:30	22:45	23:00	23:15	23:30	23:45
24:00	24:15	24:30	24:45	25:00	25:15	25:30	25:45



버스가 자주 오는 도시와는 다르게 시골은 버스가 두 시간에 한 대 꼴로 왔으며, 결국 땀별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곤 했다. 때론 정류장이 어딘지도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동네 입구에서 한 시간을 넘게 앉아있어도 버스가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태권도 버스에서 내린 초등학교생에게 버스 시간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친해져서 놀다가 집에 간다고 가버리면 또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나는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팀장님이 섬 출장 귀청 길에 다시 돌아와 데리러오는 일이 태반이었다.

그러다보니 어가에 갈 때마다 시간에 쫓기게 되고 바쁜 가구는 못 만나고 오는 날이 자주 있게 되어 통계청에서 일하려면 차가 필수 라는 말을 하시는 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형편이 좋지 않은 부모님께 사정을 구구절절이 말씀드리고 끝내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결국엔 어머니가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니라며 주셨고 나는 몇 번의 운전연수를 받고 난 뒤 오너드라이버가 되었다. 뽕초보, 저도 제가 무서워요. 스티커를 크게 붙여놓았음에도 도로에서 뒤차들은 뽕뽕대며 재촉했고 겁을 먹으면 먹을 수록 따라오는 차들이 커다란 화물차로 보여 브레이크로 발이 계속 향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빨리 갈 수 없었고 내 뒤로 차가 막히자 당황한 나는 비상깜빡이를 급하게 켰다. 그 신호를 알아들은 뒤따라오던 봉고차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 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던 그 차는 결국 다시 중앙선을 넘다가 내 차를 박아버리고 말았다.

콰~~앙~!!!

어린 것이 철없이 아빠 차를 끌고
나왔어?

운전을 그 따위로 하고? 니 년
잘못인지 알제?



차에서 운전자와 아줌마들이 우르르 내려 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무서움에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추월금지 차선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이 100%였음에도 사고의 원인은 운전을 제대로 안한 내 탓으로 몰아세웠다.

운전 시작한 지 아직 2주밖에 안 됐지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사고 사진을 찍고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봉고차는 그새 바쁘다며 가버렸고 나는 그 자리에서 팀장님을 기다렸다. 팀장님을 기다리는 내내 에어컨 냉각수가 흐르는 건지 모르고 차가 고장 났구나 싶어서 차 옆에서 벌벌 떨며 앉아있었다. 옆에서 차들은 뽕뽕 달리고 있고 어찌나 무섭던지 1분이 한 시간 같았던 몇 분 후, 팀장님과 선배님이 오셨고 나의 차는 50만 원의 수리비와 함께 공업사로 들어갔다. 찌그러진 내 차의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 집으로 가는 내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팀장님의 도움과 찍어놓은 사진 덕분에 수리비는 전액 받을 수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 2주간 또 출장마다 팀장님에게 신세를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ㅠ.ㅠ



IIII 2. 파스는 나의 비타민

차 사고가 난 지 한 달 후, 어가일지를 나눠드리기 위해 출장을 나갔다.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에 위치한 그 어가는 전복 양식을 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자주 집을 비우셨고, 일이 많고 바빠서서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집이었다. 그 날도 집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았고 나는 또 허탕을 친 것인가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려 했다.

그때 현관문 너머로 아버님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운동화를 대충 신고 반가운 목소리로 아버님~을 외치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 순간 운동화가 벗겨져 날아갔고 발목이 꺾이며 계단에서 한 바퀴를 굴렀다. 깜짝 놀란 아버님이 허겁지겁 달려오셔서 발목을 계속 주물러 주셨다.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떠다주시며 연신 물으셨다.

정말 괜찮은 거여?

고맙습니다. 다른 집에 어가일지 나눠줘야 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만큼 아팠지만 일단은 그 집을 나왔다. 다음 집을 방문하고 나오는데 발목은 점점 더 부어올랐다. 무더운 날씨와 발목 통증에 눈앞이 하얘졌다.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이여.

쫓쫓~ 많이 부었네. 우선 이거 뿌리고, 꼭 병원에 가봐~잉.

아버님은 너무 걱정이 되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다. 발목에 파스를 뿌려주셨고 손에 파스를 쥐어주시면서, 몇 번이나 진짜 괜찮은 것 맞냐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그 뒤 남은 어가를 다 돌아다닌 후에야 병원에 갔고 발목은 더 퐁퐁 부어 있었다. 2주 진단을 받았고 다리에 гип스를 해야 했다. 또 다시 팀장님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гип스를 하고 목발 짚고 출장을 다니는 내가 짝한 마음이 들었는지 껄끄러운 원부조사에도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잘 대답해주는 집도 있어 다리를 다친 게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라는 철없는 생각도 많이 했다.

다리가 다 나은 후 그 집을 들렀을 때 감사한 마음에 참외를 사서 문 옆쪽에 두고 왔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뭐 이런 걸 두고 가냐며 딸 같은 마음에 걱정이 되었다면서 호탕하게 웃으셨다.

다리 гип스사건 이후로 아버님과 마음의 거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 지현이 왔냐. 하시며 주전부리를 꺼내주신다. 인사를 마치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양손 가득 깻잎반찬, 김장조림 등 밑반찬을 가득 챙겨주신





다.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이 의외의 감동이었고 지금도 그 파스는 내 방 한 편에 자리 잡아 힘을 주는 나의 비타민이다.



III 3.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맡게 된 대체된 4가구 중 가장 애증의 대상처는 전복치패 양식장을 하시는 40대의 젊은 대표님이었다. 대표님은 첫 만남부터 바쁘다며 몇 차례나 조사를 안 하겠다며 거절하셨다. 간곡한 부탁에 결국 어가일지를 두고 가라고 말씀하셨으나 팀장님과 함께 그 어가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귀찮은 내색을 보이셨고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듯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두 번째 그 어가를 찾아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몇 번이나 통화버튼을 눌러도 들리는 것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 목소리였다. 세 번째 방문, 집에는 사모님이 계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은 하루 종일 낚시를 갖고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사모님께 계속 캐물어봤지만 남편이 오면 물어보라며 입을 꼭 닫아 버리셨다.

도대체 그 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아마 비가 오는 날에는 낚시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드디어 비가 오는 날 아침, 사모님께 대표님이 집에 계실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부탁까지 드리고 찾아갔지만 약속한 시간에 찾아갔을 때 또 집은

텅텅 비어있고 사모님마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이다. 어깨는 축축 처지고 매번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팀장님께 너무 죄송해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 뒤 끊임없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드린 결과, 드디어 만나게 된 대표님은 깜빡했다면서 이제까지의 노력이 무색하게 영수증이 몇 장 붙어있지 않은 어가일지를 나에게 내미셨고, 웬지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전화도 안 받고 나를 헛걸음하게 만든 대표님에 대한 화가 슬금슬금 올라왔다.

하지만 웃는 얼굴로 대표님, 다음에 또 올게요. 바쁘시더라도 영수증 꼭 좀 모아주세요~. 하고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나왔다.

그러나 다음에도 대표님은 귀찮은 내색을 보이며 영수증을 모아놓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가시오. 하셨다.

배 찢고(?) 보라는 선배님들의 말씀처럼 그림 직접 물어보겠다며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양식장 옆 컨테이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사십분쯤 기다렸을까. 하던 일을 끝낸 대표님이 컨테이너로 들어오셨다. 좀 전의 용기는 어디로 갔는지 막상 뻔뻔한 마음이 들어 쭈뼛쭈뼛 눈치만 보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첫 마디를 꺼냈다.

저기 대표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 아직도 안 갔어?

첫 마디를 꺼내기 무섭게 매서운 대표님의 눈빛에 나는 움츠러 들었다.

이번 달 바다 나가셨나요?

지금 바다를 왜 나가?

대표님은 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





섰고 나는 어리버리한 모습만 보인 채 결국 대표님께 더 배워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집을 나왔다. 전복 치패는 바다에서 키우지 않고 육상 수조에서만 키우기 때문에 바다에 나갈 일이 없었던 것이다. 전복치패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또한 현장조사 스킬도 턱없이 부족한 나의 준비성 부족으로 겨우 잡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선배님들을 붙잡고 전복 치패 양식장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이 지출로 나가는지부터 어떤 문항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다다다 하고 따발총마냥 질문을 쏟아냈고, 질문해야 할 사항들을 포스트잇에 꼼꼼히 적어 조사표 앞에 붙여 두었다. 다음 번엔 프로페셔널하게 질문을 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다.

그 다음 만남 때 정리해 놓은 질문 종이를 보고 차근차근 조사를 해나갔고 생각보다 대표님의 반응이 적극적인 덕분에 나는 가계부의 빈 칸을 채워 나갈 수 있었다.

그 뒤로는 내 정성이 통했는지 대표님이 꼼꼼히 영수증도 모아주셨고 원부 조사할 때도 어선 명부와 토지 문서와 같은 서류들도 꺼내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양식장 관련 지출항목은 시기에 맞게 비용을 시시때때 메모해 놓고 대표님이 하는 말씀을 깨알같이 잡아내어서 기록 해두어 물어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통하였는지 어디서 초짜를 보냈냐고 말씀하셨던 대표님께 이제는 진짜 프로같다는 놀라움이 섞인 칭찬도 듣고 있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많이 겪어본 사람에게 배울 점이 더 많다고 한다. 책만 들여다보며 한정된 사람들만 만났던 학생 때를 지나 사회인의 문턱을 넘음과 함께 겪게 된 현장조사는 나에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처음이라는 설렘보다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막막함을 주었다.

그러한 막막함도 잠시, 순간순간 어가에서 따뜻한 정을 느끼고 나니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하고 불안 불안한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생초보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의 막막했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현장조사의 보람을 찾아가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통계청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나는 아자!!! 아자!!!! 파이팅을 외친다.





노보 통계공무원의 성장기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다섯

호남지방통계청 양 경 주

땡땡, 땡땡~

누구세요?

네,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이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말 한 마디.

청계천요? 아니 청계천에서 우리 집에 왜 나오셨나요?

우습게도 통계청 공무원인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이 한마디의 말이
지금은 우리 조직의 지속적인 홍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기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대부분의 가구에서 알고 계십니다.

가끔은 우리 집이 혹시 이번에 표본가구로 지정되었나요? 하며 센스 있
는 말들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대학졸업과 동시에 통계청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렇게 꽃다운 20대를 보냈고, 행복한 결혼을 하였으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번 체험사례를 쓰면서 뒤돌아 생각해 보니 보람차고 행복했던 일도, 힘들고 슬펐던 일들도 참으로 많았던 18년간의 근무시간들이 모두 다 하나하나 아련한 추억이 되어 떠오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조사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 담당하게 되었던 화정동 ○○아파트의 한 어머님이 날씨도 더운데 고생한다며 건네 주시던 예쁜 손수건 한 장과, 시원한 냉수 한 잔입니다. 처음에 낯설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과 통계청 공무원으로서의 첫 업무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그 어머니께서 정말 따뜻한 위로와 소소한 마음으로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 뵈 수 있다면 꼭 손 한 번 맞잡으며 그 오래전 감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즐겁고 감동스런 일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겐 가장 무섭고 두려웠으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구부문 조사가 연동표본을 도입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조사업무를 담당 했을때에는 5년 마다 표본이 전체적으로 교체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년 마다 통계청 가구표본 전체가 한번에 변경되다 보니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연동표본이 도입된 지금도 변함없는 그 어려움은 계속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요.

조사업무를 담당한지 몇 개월 안되어 표본개편을 하게 된 저는 업무도 미숙하고 현장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가구에 방문하여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도 없고 대상처 분들을 대하는 방법도 몰라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초보자인 저를 안쓰러워하신 위대한 선배님들께서 미리 말씀해주셔서 현장에 출장가서 조사하는 요령과 가구원 면담요령을 배우고 나서 메모장에 혼자서 기록도 해보고 퇴근하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혼자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습에 연습을 하고 나서야 저는 드디어 신표본 조사구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라 요도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 방문한 가구는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다행히 불응은 하지 않았지만, 도무지 통계조사에 대한 설명과 우리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한참을 애를 먹었습니다. 또 한 아파트에는 외출인지 출근인지 알 수도 없이 대부분 부재중이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으로 야속했었지만 지금에 저도 대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은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준다고 했던가요? 부재중이었던 가구도 저녁에 찾아가고 여러 번 방문하다 보니 한집 한집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욕심을 부려 마음만 급해지고 능률도 오르지 않았지만, 차곡 차곡 조사되어 쌓여가는 가구명부를 보고 양·음력 환산표를 찾아가며 검정색, 빨강색 색깔에 맞춰 작성되어가는 조사표를 보면서 어찌나 좋았던지... 아마도 제 통계청 근무경력동안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날들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조사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져서인지 내가 너무나 겁을 먹었던건 아닌가도 생각이 되어갈 무렵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몇날 며칠 방문해도 도무지 ○○○호에 사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수가 없던 저는 옆집에도 찾아가 보고 저녁 늦게도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에 다들 불이 켜져도

유독 그 집만은 불도 켜지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성이다 지친 저는 아파트 현관에 통계청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만나 뵈 수 없으니 제발 연락 좀 주시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적어 붙여 놓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돌아와서도 전화 옆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에 기다리던 전화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힘 없이 또 다시 조사구를 향했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리라는 다짐을 굳게 하고선 말이죠. 아침부터 기다리던 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그렇게 만나 뵈고 싶었던 ○○○호에 사시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저는 다짜고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 직원인데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남겨 놓았던 부재중 메모를 쓴 사람이라며 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얼굴이 한순간 바뀌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호 : 아가씨 뭐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해?

(심한 욕 마구마구 하며,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험악한 말)

내가 언제부터 니 아버지야? 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디 이런 XX!! 콧 죽여버릴랑께.... 기분도 더러운데 오늘 너 나한테 잘 걸렸어! 어디 한 번 해보자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겨여? 이런 XXXX~~!!!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게 왜 그러세요? 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고, 마치 입을 본드로 붙여 놓은 것처럼 말 한 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으려 했지만 바보같이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





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저씨는 저를 향해 침을 확 뱉고는 아파트 문을 쾅하고 닫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리에 주저 앉아 울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도저히 거기에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다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던 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은 밥도 못먹고 말도 못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또 다시 ○○○호를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지금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불응가구로 조사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불응가구라는 판정을 받기도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현실로 저는 하는 수 없이 욕설만 하고 문을 닫아버린 ○○○호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가까이 갈 수록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도망만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 둘 수도 없어 마음을 다시 잡으며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보니, 마침 어제 뵈었던 ○○○호 아저씨가 동네 통장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이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로 인해 안면이 있는 통장님이라 어쩌면 제게 도움을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두 분의 시선을 피해 아파트 상가에 가서 얼른 음료수 두 병을 집어 들고서 혹시나 이야기가 끝나고 들어가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두 분 앞에 다가서니 쭉뚝뚝 꺼들기도 그렇고 기다리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경주 : 안녕하세요? 통장님, 아저씨!! 두 분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하나씩 드시면서 이야기 하세요. 자, 여기 음료수요~.

통장님 : 어, 통계청 아가씨고만! 아직 조사 못했는가? 고생이 많네. 몇 집 못했는가? 어디 어디 못했제?

양경주 : (○○○호 아저씨를 보며) 저.. 아저씨 이거 하나 드세요?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호 : 이런 XXX 또 왔네.

하며 갑자기 음료수를 저한테 던져버렸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음료수 파편이 튀고 제 얼굴에도 음료수가 튀었습니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깨진 음료수 병을 보고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옆에 통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말 한마디도 못했을거라 짐작되지만요.

양경주 : 아니 드시기 싫으면 안 받으시면 되지,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통장님 : 어이 자네, 해주기 싫으면 안해주면 되제 뭘 아가씨한테 성질을 내는가? 요 사람들도 공무원들이여~, 국가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못 쓴당게.

○○○호 : 형님이 뭘 상관이요. 이런 XXX~!! 살기도 힘든디 내가 뭘 혜택을 받았다고 요런 것을 해줘야 한대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형님이나 많이 해주시오.

하며 ○○○호 아저씨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통장님께서 바닥에 흩어진 깨진 음료수 병을 치우던 저에게 뜻밖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 사정을 알고 계셨지만 워낙 성질있는 아저씨라 말씀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호는 아저씨와 아줌마 그리고 자폐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거주하는 가구였다고 합니다. 큰 아이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 둘째 아이도 날





지 않았으며 얼마 전 아버지마저도 실직하여 집안이 어려워진 데다가 아이의 치료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왔던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 끝에 아주머니께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술로 사셨고 그 와중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호를 방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아버지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두 아이의 엄마 입장) 그때 그 아버지 눈에는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음료수 병을 깬 것도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식이 아픈데 세상천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메모나 붙이고 가고 들어보지도 못한 조사나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험한 욕을 해도 성질이 안 풀렸을 거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100% 공감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했지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으로 수많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통장님과 같이 ○○○호에 한 번 방문해 볼까? 아니면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해볼까? 아니면 어찌지? 조사는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고민 끝에 저는 그래도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저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로 조사에 응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만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아버지께 제가 왜 방문했지는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호를 방문하였습니다. 행여나 아저씨를 만나게 될까 두려워 우편함에 편지만 넣어 놓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포기하기 전 보낸 편지여서인지 기대보단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호에 방문하였습니다.

핑동~ 핑동~

마음 속으로 차라리 아저씨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문이 뻐꾸덕 열리더군요. 그러나 아저씨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제가 써 놓은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문 앞에 한참을 서성이다 종이 한 장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고, 아저씨 마음을 미처 못 헤아려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아직 결혼을 안 해서인지 부모님 마음을 몰라봐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조사할 욕심만 부리고 귀찮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며 한편으론 죄인이 된 것 마냥,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담아 메모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또, 다음 날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호를 찾아갔습니다. 벨을 누르자 의외로 아저씨께서 담담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양경주 : 아저씨 저 통계청 직원입니다.

○○○호 : (통명스럽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말이나 들어봅시다.

저는 통계조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께서는 뜻밖에도 조사에 임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혹시나 중간에 대답을 안 해주실까봐 급하게 여쭙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던 제게 아저씨는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호 : 미안하요. 젊은 아가씨한테 내가 나 살기만 힘들다고 그동안
너무 막 대했소. 요것만 해주면 되요?

나중에 듣게 된 아저씨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남긴 처음 편지도 보
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면 해 줘야지 하는 망설임도 있으셨다구요. 하
지만 막상 제가 다시 찾아오니 그동안 화냈던 것도 있고 해서 얼굴을 마주보
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두 번째 아파트 현관에 붙여진 메모
를 보고 당신이 너무 성질만 앞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 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은 조금은 서먹하고
이야기 나누기가 어색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 한결 대화가 편해졌
습니다. 약 세 달 정도 되었을 때 아저씨께서는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집을 나가신 아주머니와 연락이 닿아 아이를 위해서 빗 때문에
집도 처분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그동안 미안했
다고 아가씨도 잘 살라고 음료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지난 날 깨버렸던
음료수가 항상 마음에 걸리셨다면서요.

저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마음 속으로 조사 한 번 해주면 된 큰일이 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진심을 담아
이야기 하였습니다.

양경주 : 아저씨~ 시골가서는 아이 건강도 좋아지고 또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항상 마음 속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아저씨께서 축스러우신 듯 웃는 모습을요.

지금도 그때 그 아저씨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으시던 그

모습은 아련하게나마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다시 7년만에 가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업무를 시작한 것처럼 가끔은 허둥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조사를 다니다 보면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것도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고생한다고, 애기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벨을 누릅니다.

땡땡 땡땡~

가구원 : 누구세요?

양경주 :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청 담당공무원 양경주입니다.

통계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많은 저 양경주도 이렇게 씩씩하게 성장하나 봅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즐거라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여섯

호남지방통계청 심재영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된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 통계청을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이란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매끈한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러나 통계청 농어업조사과로 오며 그런 상상은 고이 접어두었다. 정장보다 더 많이 입는 아웃도어 복장!! 지금이야 익숙해져서 딱딱한 정장보단 편한 청바지에 운동화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지만, 처음 내 모습을 접할 때는 과연 내가 공무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수없이 스쳐 지나갔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그런 어색함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이제는 농업통계의 매력에 점점 빠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거침없이 논밭을 내달

리고, 처음엔 폴로만 보이던 것들도 척척 구분해 내며, 가축의 친숙한 냄새도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긋한 향기로 받아들이는 걸 보면 통계인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고, 기쁘게 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굳건히 마음 먹고, 통계조사에 매력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길지는 않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농업통계 조사를 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 한다.

처음 배정받은 부서인 농어업조사와 생산팀!!

생산팀에서는 크게 농업면적조사, 가축동향조사, 작물생산량조사를 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 조사를 하게 되면, 농업통계의 대부분을 경험해 봤다고 할 만 하다.



농업통계의 첫걸음 농업면적조사!!

서툰 운전 실력으로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여 찾아가던 농업면적 조사구. 그러나 찾아가야 하는 조사구는 가구가 아닌 논과 밭이라 내비게이션에는 좀더란 농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헤매는 일이 다반사이다.

더군다나 산골짜기에 있는 조사구 같은 경우는 처음 찾아가는 데만 몇 시간씩이 걸리기 일쑤이다. 힘겹게 꼬불꼬불 비포장도로를 한참 지나고, 휴대폰 지도를 확인하며, 겨우 조사구에 도착하면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 버린다.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조사구를 찾으면 기다리고 있는 문제. 조사구 요도를 보며 필지를 찾아야 하는데 어째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건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몇 번을 돌리고 나서야 제대로 요도를 볼 수 있게 되지만 다음은 작물이 나를 반기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농사의 農 자도 모르는 나로서는 이게 풀인지 작물인지 구분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열매가 달려 있는 것만 봐왔지 이제 막 싹이 올라오고 잎이 나오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내가 아니지. 선배님들께 받은 작물도감을 펼쳐가며 하나 하나 구분하고, 그래도 모르는 작물은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실시간 물어가며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처음에는 한 조사구를 조사하는데 꽤나 긴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이런 시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 그 다음 번 작물 구분을 할 때는 훨씬 수월하게 조사를 해나갔고, 점점 모르는 것보다 알아가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다. 막힘없이 해나가는 내 모습을 볼 때면 어느새 농업통계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농업면적조사를 하면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다. 당장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작물구분, 요도 보는 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혼자라는 것이 가장 힘들게 느껴진다.

현장조사 중 외지고 인적도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조사구를 갈 때면 남자인 나도 겁이 난다. 특히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작은 바스락거림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은 다반사이다. 지나가다 뱀을 본 적도 많고, 시골집에 있는 개들의 위협도 심심치 않게 받곤 한다.

처음 조사를 시작하고는 혼자라서 더 답답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힘들다고만 생각하다보면 조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항상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와 마주치는 것보다 바람도 쐬며 자연을 마주하러 간다고 생각한다면 조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는가.



||||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어 준 가축동향조사!!

가축동향조사에서 표본 조사구는 수시로 정비를 해줘야 한다. 전입, 전출, 사망한 가구주가 있는지 가축을 사육하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가축 조사를 처음 시작할 무렵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사표만 챙겨들고 조사구 마을을 찾아갔다. 첫 집부터 힘차게 초인종을 눌렀다.

땡땡, 땡땡~

.....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뭐 이 정도야 예상은 했으니 개의치 않고 다음 집으로 향했는데, 그 집도 마찬가지로 인기척이 없었다.

분명 사람은 사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여러 집을 찾아가도 한 사람도 만나기가 힘들었다. 조사를 하러 가면 당연히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기 마련이다. 오전부터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논이나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있을 시간이었던 것이다.





도시의 아파트처럼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다들 나가서 농사를 하는 것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찾아간 것이다. 하루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나니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작물조사와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겁 없이 뛰어든 땃가였다.

전날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방문하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무장하여 표본 조사구에 재방문을 하였다. 기존의 가축농가에 사전문자도 전송하고, 몇 농가는 시간 약속을 잡아 찾아뵙기로 했다. 가축조사가 처음인 나로서는 상당히 긴장되었지만 준비를 한 효과가 있었는지 일단 첫 농가를 만나는 데는 성공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가축조사를 담당할 통계청 직원입니다.

아. 네...

응답자의 첫 마디에서 상냥함 대신 의심의 목소리를 느낄 수가 있었다. 아무래도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다 보니 공무원 같지 않았나 보다. 재빨리 목에 건 공무원증을 보여드리며 지침서에서 외운 가축조사의 목적과 조사항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다.

그제야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셨는지 들어오라면서 커피까지 타주셨다. 연세가 60이 넘는 할머니님 홀로 소 몇 마리를 키우고 계셨는데, 요즘 세상이 흥흥해서 문자나 전화가 와도 자식들 연락 외에는 잘 안 받는 편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처음에 내 모습을 보고 의심하셨던 것이라고 속 시원히 말씀하시는데, 조사를 위해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앉아서 할머니 자식 자랑 얘기며, 살아오신 얘기, 돌아가신 할아버님 얘기 등을 들어드리며 말동무가 되어 드렸다. 이후 조사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따라 나오시며,

젊은 총각, 더운데 고생하게. 늙은이 말동무 되어줘서 고맙네.

할머니의 그 말씀이 한참을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히 가축 조사만 한 것이 아닌 사람과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마음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만나기 전만 해도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던 나인데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사람을 상대하는 데 용기가 생겼고, 커다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응답자가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현장조사 공무원으로서 큰 기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더욱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다.

가끔 이 조사는 왜 하는 거냐?, 왜 우리 집에만 오냐? 귀찮은 듯 따지듯 묻고 때론 심한 욕설을 하시며 불만을 표출하시기도 하여 곤란할 때도 많다.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응답자의 입장을 들어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게 효과가 있다. 때론 침착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설득의 노하우를 가지게 된 작물생산량조사!!

작물생산량조사는 수확기에 맞춰서 각 작물을 면적청취 및 실측조사를 통해 생산량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작자 파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작자를 제대로 알아야 협조를 구하고, 답례품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작자가 잘 파악되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파악이 안 되거나 불응이 생기면 어느 조사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나만의 설득 노하우를 만들게 된 불응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8월 무렵 표본이 추출되어 표본필지를 확인하고, 경작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갔다. 다른 채소 및 미곡의 경작자는 다 파악이 되었건만 과수 중에서 한 필지가 파악이 되지 않았다. 시스템의 경작자 정보를 따라 여러 번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아, 혹시나 경작자가 다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안고 경작자를 찾아 나섰다.

주소대로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시골집이었다. 표본 필지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여기저기 배 상자들도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빈 집만이 나를 반겨주었고, 웬지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한동안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은 터라 방문했다는 스티커에 메모를 남겨두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시 방문을 하기 전에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먼저 남기고 찾아갔다. 하지만 역시나 빈집만이 덩그러니 있을 뿐 그 사이 사람이 다녀간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해가 다 저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허사였다. 그 이후로 몇 번 더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하였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마을 회관에 가서 마을 분들에게 과수원의 경작자를 물어보았더니, 찾고 있는 그 사람이 과수원을 경작한다고 하셨다. 절반의 성공이라도 했다는 안도감에 답답했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언제 만날 수 있는

지 물어 봤는데 사는 곳이 다른 지역이라서 주말에만 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우선은 누군지는 알았으니 주말에 와서 버티고 있을 생각을 하고 주말도 반납한 채 다시 과수원으로 향했다. 어느 정도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휘날리며 과수원 입구에 멈추는 것이었다. 두려움 반, 약간의 기대 반으로 급하게 뛰어갔다. 막상 경작자의 얼굴을 대하니 매서운 눈초리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듯하였다.

통계청이라고 인사를 드린 후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한참 설명하였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의 말 한마디.

난 통계조사 같은 거에 더 이상 협조 안 합니다. 그만 가세요!!

사장님. 그렇게 복잡하거나 귀찮은 조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업통계를 위해 조사를 하는 거고, 사장님께 해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부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아 글썄, 난 안 할 거라니깐요. 작년에도 귀찮게 하더니 올해도 또 그러네.

자존심이고 뭐고 설득해야 된다는 일념에 무작정 사정을 해보았지만, 고압적인 자세로 안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렵게 만난 응답자와의 첫 번째 만남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허탈한 마음에 한동안 할 말을 잃고 있으려니 내 자신이 초라해보였다. 조사원으로서 설득 실패 이전에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마음의 상처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집으로 되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내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가? 조사 내용 접근이 잘못되었는가?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보게 되



었다. 너무 조사에만 매달려서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싶어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 후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생산량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응답자 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장문의 문자를 남겼다. 먼 거리를 마다하고 직접 찾아가기를 두어 번, 그러나 그리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음성메시지로 넘어가기가 수차례였다. 도저히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팀장님이나 다른 선배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나 혼자 설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마지막에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주말에 다시 과수원으로 찾아가 사장님을 만났다. 한참 일을 하고 계시기에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이것저것 도와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한사코 말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졸졸 따라 다니며 일을 도와드렸다. 농사는 안 지어 봤지만 슬쩍슬쩍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해. 안 해준다고 하면 다른 데 하지.

작년에도 협조해 주셨는데, 올해도 해주시겠죠. 복잡한 조사 아니니까 조금만 협조해주시면 되요. 적지만 답례품도 드려요.

참 사람도…. 그럼 뭐 해주면 되나?

사장님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는지 조사에 응해주시겠다고 했다. 나는 조사에 대해 다시금 설명해 드리고 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렸다.

사장님은 한참을 듣고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수확이 다 끝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내 연락처를 물어보셨다. 난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마저 일을 도와드리고 왔다. 지난 2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벅찬 마음으로 돌아오는 데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응답자에게 과연 무엇이 통하였을까? 어쩌면 공무원이라는 인상도 중요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다. 이 일을 계기로 내 설득의 노하우가 생겼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응답자의 입장에서 행동하자. 무작정 조사하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고 시간을 내서 직접 찾아가 얼굴을 맞대고 조사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응답자도 조사공무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다.

조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평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농가일지라도 조사공무원이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금방 비협조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공무원은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항상 긴장해야 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폭 넓은 유대강화책을 항상 겸비하고,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할 것 같다.

전국 곳곳에서 통계조사 공무원들은 발로 뛰며 국가 발전의 기초자료인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핵가족화,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 등으로 과거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의 조사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온몸으로 극복하며, 현장에서의 어려운 환경을 나름대로의 조사기법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 조사를 위한 설득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한 설득.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모든 응답자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점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조사에 임한다면 통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마인드에서 보다 정확한 통계가 만들어 질 것이다.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나로서는 특별한 노하우도 없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나만의 노하우로 대처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겪었던 일보다 앞으로 겪을 일이 더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자.

내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





31년, 나의 행복한 성장기

두려움은 저 멀리!
희망은 가까이!

동남지방통계청 심 혜 숙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일곱

농수산통계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나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자 자리에 앉아 펜을 잡으니 31년이라는 시간이 나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다양한 통계 업무를 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또 그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다.

지난 날 나를 웃고, 울고 때로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떠오른다. 이제는 모든 일들을 추억이라 말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났고, 스쳐간 모든 인연들이 보고 싶고 그리운 얼굴이 되었다. 31년이라는 시간동안 나는 통계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성장을 이뤄왔고, 그 성장의 과정에는 매 순간 통계청 식구들이 있었기에 그들과 나만의 성장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31년, 나의 행복한 성장기, 두려움은 저 멀리! 희망은 가까이!



1. 불응자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 친구처럼 다가가기

바쁘게 달려온 나의 지난 31년. 그 중의 3분의 2라는 시간동안 농가경제 조사를 했다. 그 만큼 나에게서는 아픈 기억도 좋은 기억도 많다.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조사구는 처음 농가경제를 하면서 담당했던 조사구인 축산지구이다. 이 조사구로 말하자면 면소재지에서 많이 떨어져있어 밭도 농가에서 얻어먹지 못하면 하루 종일 쫓쫓 굴어야 하고,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 돼지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조사구를 인수받고 나 혼자 찾아갔던 그 길에서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내 귀에도 들릴 만큼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는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그렇다고 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충 열 가구. 마을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으로 도착하는 집이 3호집이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3호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포동 뒷골목을 주름잡았을법한 인상의 주인아저씨 얼굴이 보였다. 매서운 눈초리하며 깎두기 머리가 심상치 않았기에 덜컥 겁이 났다.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간신히 첫 질문을 던졌다. 돼지 사료 값이 얼마예요? 어렵사리 꺼낸 나의 첫 질문에 아저씨는 다짜고짜 화를 내셨다. 지금 장난합니까? 돼지 값은 똥값이고 사료 값은 금값인데 정부에서 해준 게 뭐 있다고 꼬치꼬치 캐물어보니까! 냉담한 반응에 내일 다시 들르겠다고 하니 내일 올 것 없고 우리 집은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다. 지금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스킬을 가졌지만 그 때 당시엔 눈물이 핑 돌만큼 무안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더라면 31년 경력을 가진 나는 없을 것이다. 현장조사원은 단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는 걸 알기에 응답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했고 그 방법을 터득하는 데에는 꽤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다. 응답자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를 반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은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나의 자세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응답자면 과연 순순히 응답을 해줄 것인가? 물론 나는 현장조사원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몸소 깨닫고 있으니 당연히 해줘야겠지라고 생각한대지만 내가 통계의 통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 않은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집을 방문해 신분을 밝히고 우리 집 가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어느 누가 순순히 응해준단 말인가?

하지만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를 알뜰살뜰히 잘 챙겨주며 내 푸념도 들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는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조사를 부탁한다고 하면 순순히 해줄 것이다. 나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둘 사이를 갈라도 아무런 미동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형식적인 현장조사원과 응답자의 관계로만 생각했던 것이 나의 오산이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진심이 통해야한다.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것 마냥 마음이 들떠 쉽게 잠자리로 들지 못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조사를 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샘솟았다.

다음 날, 다시 3호집에 들렀다. 그 날도 여전히 찬바람이 뽀뽀 부는 아저씨였다. 하지만 나는 어젯밤 깨달은 바를 상기시키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마음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래, 나는 여기에 단지 조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야. 새로운 친구를 만들러 왔어. 생각을 고쳐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학창시절 입학식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던 그 미묘한 감정을 더듬어 불러냈다.





축사를 고치는 아저씨의 옆에 다가가 이것저것 보조해드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고 난 후에야 아저씨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아저씨의 아내분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제야 보이는 어두운 얼굴의 아저씨. 그 사이 소풍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들고 신난 아이들. 단지 현장조사원으로 방문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던가. 퇴근 후 돌아오는 길에 김밥꺼리와 과자를 한 가득 사왔다.

그리고는 김밥을 싸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엔 너무 이른 새벽시간에 3호 집에 들렀다. 그리고는 아이들 가방에 김밥도시락과 과자를 싸주며 소풍가는 길을 배웅했다. 순수한 마음이었다. 단지 아저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식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니 어느새 응답자를 대하는 내 태도는 바뀌어있었다. 아이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3호집 아저씨의 표정은 조금 밝아져있었고 아저씨와의 인연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대하는 아저씨는 예전의 비협조적인 응답자가 아니었다. 뉘두리를 늘어놓는 친구였다.

그때 이후, 현장조사원으로서의 나를 잠시 내려두고 축산지구에 새로 이사 온 주민처럼 행동했다. 그러니 응답자분들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다. 단지 현장조사원일 때에는 나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지만 친구처럼 다가가니 나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봐주셨다.

몇살입니까? 결혼은 했는교? 밥은 먹었나?

정이 많은 1호집 언니는 봄이면 돌미나리와 머구, 여름이면 풋고추와 호박잎을 갈 때마다 손에 쥐어주었고, 돼지라도 잡는 날엔 고기를 가지고 사무



마을행사 당시 사진

실 앞까지 찾아와 건네주고 가시곤 하셨다. 조사구의 모든 농가 분들이 친구였기에 잘 지내게 되었다. 각종 마을 행사에 참여하여 음식도 같이 만들고 뒷정리도 도와드리며 더욱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

바쁜 농사철에는 청소도 해드리고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에 가서는 말동무도 해드리고 손톱도 깎아주면서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갈 때면 어서 오라 반기며 음료수를 주시곤 하셨는데 잊을 수 없는 꿀맛이었다. 이러한 깨알같은 경험들이 나를 무럭무럭 성장하게 해주었기에 나에게는 불응하는 응답자에 대처하는 나만의 스킬이 생겼음을 자부한다.



IIII 2. 통계청에 대한 인식 높이기, 홍보는 라디오를 타고~

2009년 5월, 김해사무소 농업생산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발령을 받자마자 한 숨 돌릴 새도 없이 작물조사가 시작되었다. 논과 밭의 위치는 어디가 어딘지 찾기도 힘들었고, 고생 끝에 찾으면 심어져 있는 작물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가 있었다. 혼자서 고민을 하다 하는 수 없이 사진을 찍어가거나 있을 때 어 사무실로 가져와서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조사표를 작성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며 나도 점점 베테랑이 되어 가고 있었다.



작물 현장조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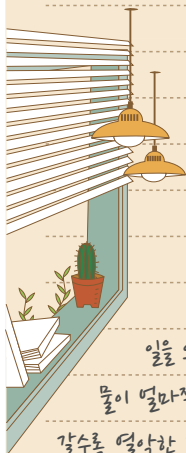
31년, 나의 행복한 성장기, 두려움은 저 멀리! 희망은 가까이!



그러던 7월의 어느 날, 작물 조사를 나가는 차 안에서 우연히 MBC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여성시대의 『회식 한 번 합시다』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다. 순간 나의 머리에는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그래! 우리 통계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삼겹살로 이 더운 날에 출장 다니느라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정말 좋겠다. 부푼 꿈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펜을 들고 사연을 써내려갔다. 글재주가 없는 나지만 여러 번 고쳐가며 최선을 다해서 사연을 완성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농어업통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심혜숙 주무관입니다. 저희 팀은 공무원이지만 1년 중 5번! 그러니까 3,5,7,9,11월에 논과 밭을 돌아다니며 작물재배면적을 조사합니다. 논이나 밭에 면적 당 어떤 작물이 얼마나 심어져있나 꼼꼼히 기록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농업정책을 세우는데 이용하죠.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면 냉방이 잘 되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내근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농어업팀에서는 이번 7월에도 논과 밭으로 작물재배면적 조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정말이지 숨이 턱턱! 막히는 날에도,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을 받쳐 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논 하나, 밭 하나 배아프리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꼼꼼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은 보리, 콩과 깨, 고추를 재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일로 오래하다 보니 멀리서 논과 밭을 보고도 면적이 얼마나 되고 심어진 작물이 얼마쯤 되고 심어진 작물이 얼마쯤 될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조사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농어업통계팀에 회식 한 번 시켜주소~.

그리고 당첨되었다! 전 국민이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 사연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농업통계에 대한 홍보도 하고 경품으로 받은 삼겹살로 직원들의 배도 두둑하게 채웠으니 일석이조의 쾌거를 이룬 셈이었다. 통계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 불응률은 DOWN! 응답률 UP! 라디오에 방송이 나간 뒤 한 동안 내 전화통에는 불이 났고 통계청 게시판에는 응원의 댓글이 무지 많이 달렸다. 방송의 효과를 본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주변의 직원들도 방송의 덕을 단단히 봤다.

한 직원의 어머니께서는 딸의 직장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방송을 듣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짐으로써 통계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다. 국민에게 한 발 다가서려면 통계청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이며 어떤 종류의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려져 조사원이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 적극적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가 밝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에…. 지금 나의 노력은 나비의 미약한 날갯짓에 불과하지만 통계청 식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끝은 창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의 성장, 통계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통계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 인생의 절반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고 나는 많은 성장을 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작고 미묘한 변화들까



31년, 나의 행복한 성장기, 두려움은 저 멀리! 희망은 가까이!

지도 오늘의 내가 있게 하는 성장의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내가 통계청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좋았던 일만 있었을까? 화나는 일, 슬픈 일들을 겪으며 사춘기 아닌 사춘기의 감정을 느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한동안은 슬럼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가도 즐겁고 보람찬 일이 있을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의 상처는 눈 녹듯 사라졌다. 이런 과정의 반복 속에 세월이 흘러가고 지금의 내 곁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들이 생겼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만큼이나 나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 준 것은 나를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지는 영광을 맛보았고, 창의 제안에 채택되어 성취감도 느꼈다. 누구에게나 허용되지 않는 이 색다른 경험들이 나를 더욱 자극하고 그로 인해 나는 더욱 열심히 자기계발에 박차를 가한다.

통계 조사를 하면서 늘 힘들었던 것만 생각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없을 것이다. 처음 통계청이라는 곳에 발을 디딜 때 그 두려움이 어느새 저 멀리 가버리고 지금은 희망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앞으로 나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무럭무럭 성장하여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그 날까지 두려움은 저 멀리! 희망은 가까이!



'갯'이 되고 싶은 '울'의 꿈

동남지방통계청 이 정 미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여덟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표본개편으로 새로운 사업체에 조사를 하러 가는 마음은 왜 무겁기만 한 걸까.

공정의 힘으로 사업체 사장님들을 모두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각오는 온데간데 없이 조사 시작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언제까지 조사에 응해줘야 돼요? 이번만 해 주고 끝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통계조사 처음해 보는 사람인 냥 한없이 작아진다. 겨우 겨우 조사하면서 돌아서는 뒤통수에 대고 인제 오지마소. 또 와도 절대 안 해줄테니. 하는 말씀에 몽둥이로 한 대 맞은 느낌...

그만하자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을 다 들어드릴 수가 없다. 따라서 사업체별로 설득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갯'이 되고 싶은 '울'의 꿈



나만의 응답자 유대강화방법

첫째, 일단 필요한 건 무조건 사업체를 이용한다.

미용서비스업종이 표본으로 정해지면 단골미용실은 접고 조사하는 서비스업 동향조사 사업체가 곧 단골미용실로 변신~~! 식구들은 아무 죄도 없이 단골미용실이 바뀐다. 아들은 동네에 있는 단골미장원에 친구들이랑 함께 가서 컷트하겠다고 우기지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꼬드겨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사업체에 가서 온가족 지붕정리를 하고 더불어 외식도 하고 온다.

전자제품소매업종은 큰 건 못 팔아 드리지만 선풍기, 매트, 밥솥 등 소형 가전은 무조건 여기서 구매한다. 친정언니들에게도 소형 전자제품 사려면 나한테 말해, 배달까지 내가 해 줄게. 홍보도 하고 강매도 한다. 비싸든 싸든 가격을 별로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다.

자동차수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거리가 좀 떨어져 사는 언니에게도 주말에 친정에 모이면 고기 한 번 쏘게. 형부, ○○○정비소에 가서 통계청에서 근무하는 처제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꼭 그래야 됩니다. 알았지예~~. 하고 부탁해 놓는다. 그리고 보니 조사대상 사업체가 곧 나와 내 주변인의 쇼핑센터이다.

둘째, 팔아드리는 게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슈퍼에서 파는 음료수나 커피를 냉동실에 얼려 아이스가방에 넣어다니며 응답자에게 접대.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접대.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인지 은근히 효과가 있다.



본격적인 설득, 그러나 실패하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열려면 친해지는 수밖에 없으니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업체가 있었으니 정말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나를 좌절하게 한 약국이 하나 있다. 매출도 크고 종사자수도 11명 정도 되니 약국이라기보다 소기업에 가깝다고나 할까…. 약국장님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 막무가내식 불응은 예상치 못했건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들 덕분에(때문)에 첫 번째 면접은 미리 전화로 시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했다.

두 번째 방문은 바로 앞 대형종합병원의 점심시간에 맞췄다. 병원점심시간이 약국의 점심시간이자 그나마 손님이 뜸한 시간대라 생각되어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았기에…. 하지만 얘기 좀 나누려고 하면 손님이 오고…. 중간 중간 약국장님은 이번 한 번만 하고 끝이요, 여기 각서 쓰소, 다시는 안 온다꼬. 그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다.





바쁘신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약국에서 응답을 거부하신다면 통계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국가의 정책도 오차 많은 통계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회적인 위치와 학식을 겸비하신 약사님께서 당연히 응답을 해 주셔야죠~. 하며 미소작전으로 나갔다.

오늘이 마지막인 양 어렵사리 필요한 통계조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다음 달 조사걱정이 앞서 무겁기만 했다. 다음 달부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할까? 한 달이나 남았는데 나에게는 한 달이 내일 일인 것 같다.

매월 거부하는 조사를 겨우겨우 해 오던 어느 날, 조사의 정확도를 높여보려 처방전 매출 외에 전시해 놓은 약의 판매액도 눈치를 보며 여쭙더니 버럭 화를 내셨다.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매출은 장부도 안 적는데 어찌 아냐며 화를 내셨다.

통계조사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무서워서 한 마디도 못할 상황... 한 마디만 해도 속된 말로 잡아먹을 기세이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일단 후퇴, 하는 수 없이 처방전 매출에다 나머지 조사내용만 받아 나오는데 등 뒤에서 그냥 가면 안 되지. 각서를 쓰라니까... 다시 안 온다고 각서를 써야

지. 다시 오면 각서를 꼭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오늘까진 해줬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시는 오지 마소. 알았소? 하셨다.

그 다음 달도 나는 또 다시 전쟁을 치르러 갔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



가! 약국장님이 처방전 외의 매출을 장부를 펼쳐가며 계산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장부가 있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이런 맛에 조사하는 거 아닐까 ... ^

아마도 우리 약사님은 아예 안 해 주시든지 해 주신다면 100% 확실히 응답해 주시는 분, 마음을 열면 그 다음엔 정확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동안의 맘고생이 한 방에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서는 등 뒤에서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확하게 말해줬으니 이번이 진짜 끝이요. 다시는 오지 말고 만약 다시 온다 해도 이제는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그리 아소! 하면서 고함을 치셨다. 이 싸늘함은 뭘까? 혼돈스러운 이 상황은.... 응답자의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였던가....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었다. 못들은 척 애써 활짝 웃으며 정확하게 해 주시면서 왜 그러세요? 다음 달 올게요. 하며 인사하고 도망치듯 나왔다.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던 그 때를 생각하며 그 다음 달도 방문을 했다. 그런데 약국장님이 나를 보시자마자 이제 안 해준다 했잖아요. 얼마 전 시청에서 뭐 조사하러 왔길래 통계청이란 데서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조사가 온다더라 했더니 그런 거 없다며 안 해줘도 된다고 했소. 그리고 무슨 조사가 그리 많은지 지금 통계조사 응답해 달라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냐 하시며 공문들 뭉치를 던져보였다. 얼핏 보니 보건복지부, 약사협회 등등,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그건 통계청은 아닌데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쨌든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저번 달에 정확하게 한번 해준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쳐 준 건데, 인자 오지 마라 했잖소?



그리고는 옆의 직원에게 식사하러 간다며 도망치듯 나를 버려두고 나가셨다. 그래서 나도 약국장님 등 뒤에 대고 맛있게 식사하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며 밝게 말씀드렸다.

섬섬한 마음도 있었지만 식사하고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식사하러 가신다던 약국장님은 2시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다. 사모님(사모님도 약사임)께 부탁을 드렸으나 약국장님이 안 된다고 한 건 당신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시길래 처음 통계조사 왔을 때처럼 서비스업동향조사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또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도 꼭 이 약국에서 혈압약 타 가시거든요. 저희 작은아버지들도요(삼형제 동네에 모여사심). 하면서 약국장님을 설득해 달라고 사모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렸다. 다른 사업체와의 약속시간을 지키야 했기에 며칠 있다 다시 오겠노라고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이틀 뒤 또 다시 방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국장님이 벌써 점심 식사를 하러 가고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오시겠지 하고 의자에 앉아 30분 정도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 통계청에서 왔다고 약국장님께 연락 좀 해주세요. 하고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다.



아버지의 약봉지



울 아버지도 응답자래요^^

사모님이 약국장님께 전화를 해 주신다. 그런데 연락받으신 약국장님은 이젠 몇 시간이 지나도 아예 약국에 들어오시지를 않으신다. 어디서 방황하고 계시는지..., 더운 날씨에 몇 시간 앉아 기다리려니 엉덩이에 종기가 날 것 같은 고통에, 오래 기다리다보니 졸음마저 쏟아졌다. 하지만 곧 마감일인데다 다른 사업체도 조사해야 하고 다시 올 여유도 없어 설마 오늘 안에는 들어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꼴꼴이 세우면서 기약없이 기다렸다.

불쌍하고 안됐다는 표정으로 직원들이 쳐다본다. 약사님을 만나야 될 해도 해 볼텐데..., 기다리면 오시겠지 하는 마음을 몇 번 도돌이표로 반복하며 4시간 이상을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오늘은 포기하고 돌아왔다. 며칠동안 연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괜시리 아들한테 짜증이다. 애한테 짜증내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또 스트레스가 쌓인다.



설득의 달인, 대선배님을 장전하고

다음 날 풍채가 있으신 대선배님을 설득반으로 모시고 재차 방문했다.

다행히 약국장님이 계셨다. 설득의 달인, 대선배님께서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하셔도 끝까지 조사를 해 주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신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통계조사 때문이라면 무조건 No!!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마음이 도무지 없이 불만만 토로하고 각서 쓰고 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갑 과 면접을 계속하기는 어려웠다.

돌아서 나오면서 선배님은, 정미야, 이 집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통계조사 30년 넘도록 했어도 저렇게 뚱고집 참 봤다. 과태료 부과할 거면 하라



지를 앓나..., 각서는 또 뭐꼬? 참 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힘들게 현장에서 조사하는 걸 누가 알아 주겠노? 하시면서 등을 토닥거려 주셨다.

그 말씀에 눈앞이 흐려졌다.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약을 조제해 주시는 약사님이 왜 나에게는 병(?)을 조제해 주시는 걸까? 이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부탁받는 입장의 갑 과 부탁하는 입장의 을 의 관계인가? 수많은 사업체를 조사하는 동안 완강히 거부하던 사업체들 대부분이 이제 고마운 나의 통계고객이 되었지만 때때로 이런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다가도 한 순간에 무너지는가 보다.

최근에는 통계에 불응한 광제조사업체에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뉴스도 접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뉴스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걱정스런 마음도 들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조사를 하러 재래시장에 갔다가 과일집 사장님과 얘기 나누시던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통계청에서 조사 안 해주는 데에다 벌금 물렸다 카던데? 이리 고생하는데 조사 안 해주는 사람도 있나? 벌금 물린 거 잘했다. 그리해야 된다. 하신다. 통계에 불응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힘이 난다.



III 갑 이 되고 싶은 을 의 꿈

꼭 갑 이 되어 조사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통계청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는 그런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을 인 나의 꿈,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선에 다시 선다. 최고의 통계 자료를 위해 감정을 절제하는 친절의 달인, 우리 통계가족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



작물이나 지심(잡풀)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동남지방통계청 오 은 정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열아홉

두 번의 도전 끝에 통계청 공무원에 임용된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겨울날 대전 통계센터로 향하였다. 4주간의 교육에는 여러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선배님들이 직접 겪으신 체험사례를 들려주신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주로 불응에 대한 이야기였다.

길진 않지만 1년 정도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분들에게 친절한 응접으로 통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머님들께서 특히나 더 예뻐해주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조사를 하거나 응대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가구조사 불응사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문도 열어주지 않는 응답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응답자는 심지어 경찰까지 부른 적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의



작물이나 지심(잡풀)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신규자교육 끝나고 동기들과 함께

심했지만 사회통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동기가 실제로도 겪었던 일이라고 한다.)

물론 꼭 불응하시는 응답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점심도 챙겨주시는 등 정이 많은 응답자도 많다고 한

다. 하지만 이미 다른 이야기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불응! 불응! 불응! 이 단어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사회통계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여직원들은 사회통계팀에 갈 확률이 많다고…. 어느덧 재미난 4주간의 신규자 교육이 끝나고 김해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다.

두근두근, 첫 출근 날 얼굴도 한 번 뵈는 친절한 선배님께서 부산에서 김해까지 직접 태워다주셨다. 김해사무소의 건물은 내가 생각한 관공서의 느낌과는 많이 달랐다. 과거에는 이 건물이 찜질방 건물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사무소에는 4층과 5층을 연결하는 친숙한 찜질방 계단이 있다.

소장님께서 팀을 배정해 주셨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농어업생산통계팀에 배정을 받았다. 참고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줄곧 부산이라는 도시에 살아왔으며 심지어 친가·외가도 부산과 대구여서 시골 근처에도 가 보지도 못하였다. 아! 대학생할 농촌봉사활동으로 수박으로 유명한 창원 대산면 남모산마을에 가 본 적이 있었다. (밀양시 하남읍이라는 작물 조사구를 맡으면서 남모산마을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부산에만 줄곧 살아온 일명 부산 촌아가씨였다.

인사이동으로 모두가 정신없을 때 내 업무를 인계해주시는 선배님께서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예쁘게 입고 왔는데 우짜겠노~. 라는 말씀과 함께 조사구로 나가자고 하셨다. 오늘은 공무원이 되고 출근 첫날. 당연히 나는 새로 장만한 검정색 정장자켓과 치마, 그리고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내가 배정받은 업무는 농어업업무! 조사 환경과 나의 옷차림은 영~ 맞지 않았다. 대학시절 교양시간에 배운 TPO(Time, Place, Occasion : 때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 복장이나 행위 · 말씨 등을 다르게 하는 일)를 고려하지 않은 복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TPO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스타렉스에 실려 작물조사구! 밀양시 하남읍으로 향했다.



||| 양파일까? 마늘일까?

밀양 바닥을 훑~히 잘 아시는 선배님께서 운전을 해 주셨다. 네비게이션도 없이 길을 찾아다니시는 것 보니 신기하면서도 나도 조만간 저렇게 길을 잘 찾아다니겠지.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도착하였다. 어느덧 내 손에는 지도가 그려진 두꺼운 B4용지(요도)와 여러 가지 작물 이름과 숫자가 적힌 얇은 B4용지(조사표) 두 장이 손에 쥐어졌다. 선배님께서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요리조리 돌리시며 여기 이 땅이 581-1번지, 여기 저 땅이 581번지, 이 정자나무를 끼고 쪽~ 들어가면 여기 560번지가 나온다. 지도랑 똑같이 생겼제? 신기하게도 잘 그려놨데이~. 라고 설명을 해 주셨다.

나는 이 땅이 저 땅 같고 저 땅이 이 땅 같고... @_@

심지어 3월이 아니면 땅 모양도 여러 가지 작물과 잡풀 때문에 지번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금 잘 봐둬야 조사할 때 어렵지 않다고 하셨다. 하





지만 난 지금 작물이 많이 없는 이 시점에도 땅을 구분하는 것조차부터 너무 어려웠다. 1차 멘붕~! 역시 쉬운 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쯤 땅에 심겨져 있는 두 개의 똑같은 파란 잎사귀들을 보시면서, 선배님께서 여기 이거는 양파, 저거는 마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양파와 마늘은 둥글둥글 귀엽게 생긴 채소였는데 내 눈앞에서 양파와 마늘이라고 심겨져 있는 작물은 그저 초록색 잡풀과 흡사하였으며 두 가지 작물이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마늘과 양파를 구분하는 것인가.... 여기서 난 2차 멘붕이 오고 말았다.

사회통계팀이나 경제통계팀의 업무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 답이 되돌아오지만, 농업생산통계팀의 업무는 질문을 해도 작물은 대답이 없다. 불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응답! 나의 눈 앞에 보이는 초록색 풀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자 들려오는 것은 바람소리 뿐....



Ⅲ 가축과 작물을 찾아서~ 고고~

어느덧 인계를 다 받고 본격적인 조사기간이 다가왔다. 나에게 주어진 첫 조사는 가축동향조사 김해사무소 관할지역(김해, 양산, 밀양)에서 관리되는 규모 이상의 가축(한우, 젓소, 돼지, 육우, 닭, 오리)농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다. 장롱면허 3년, 티몽이(나의 자동차) 운전 겨우 2주일.... 저도 제가 무서워요. 자동차 뒷 유리에 딱지를 붙이고 다녀야할 초보 운전자였다. 생전 처음 가보는 양산시 상북면으로 겁도 없이 나섰다. 비록 운전한지 2주 밖에 되진 않았지만 자신감이 넘쳤고 은행에서 일하면서 키워온 사람을 대

하는 노하우도 자신이 있었다.

롤루랄라~ 창문을 열고 베스트 드라이버인 척 운전하며 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축산농가에서 나는 냄새! 3차 멘붕이 왔다. 운전 그리고 조사는 무난하게 흘러갔는데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그 시골 냄새…. 거기에 덤으로 양산시 소속인 파리카까 나의 티몽이에 합석하였다. 엉덩이가 무거운 파리였는지 티몽이에 탈 때마다 잘 나가질 않아 김해까지 한동안 동승했다. 드라이브 파트너 파리~! 언제쯤 내릴까?

1사분기 가축동향조사가 마감됨과 동시에 제1회 작물재배면적조사라는 큰 산이 나에게 다가왔다. 인계받을 때 두 번의 멘붕을 일으킨 그 조사. 그래도 한 번 가 봤던 지역이라고 그나마 나의 장점인 길눈이 밝다는 것 하나만을 믿고 역시 가축동향조사 때처럼 당돌하게 자신있게 출발하였다. 네비게이션에 주소지를 찍고 밀양시 하남읍으로, 느낌 아니까~ 출발아~!

선배님께서 전수해주신 노하우로 요도를 요리조리 돌려보며 지번을 맞추고 나름 열심히 작물을 연구하며 조사에 임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3월에 심는 작물은 다 비슷하게 심어져서 마늘, 양파, 대파 등만 제대로 구분할 줄 알면 크게 문제가 없었으며 하남읍의 특징인 뜰이 많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 초보자인 내가 조사하기가 괜찮은 지역이었다. 다만, 네비게이션에 지번을 찍어도 네비게이션이 찾지 못한다는 것이 함정! 하지만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든 해결되는 시대이다. 초록창 네XX지도 앱을 켜서 GPS로 뜰 찾아가기! 이렇게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며 열심히 조사를 하였다.





매실나무일까? 자두나무일까?

3월 조사는 양파, 마늘, 대파 구분하는 것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이 세 가지 작물은 그나마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갔는데 그것보다도 과수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3월 조사를 나가면 잎사귀는 커녕 학교 선생님이 들고 다니시는 나무막대기 같은 것들이 땅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는데, 역시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나는 그냥 지나쳐 가는데 선배님은 미과수라고 다 잡아내셨다.

그냥 지나쳐가는 나를 불러서 선배님께서 각 나무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셨지만 내가 보기엔 나무들이 다 똑같은 나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나의 조사구에 자주 보이는 단감, 대추, 매실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도 열매가 열어야 완벽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아직 나무의 세계는 많이 어렵다.



농업통계팀 밴드의 최대주주는 나~!

모르면 물어라~!

작물조사 기간만 되면 나는 농업생산통계팀 밴드의 최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된다.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나는 조사도 제대로 못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며 부끄럼 없이 열심히 밴드에 글을 올렸다.





나의 최대지분을 자랑하는 농어업통계팀 초록창 네XX 밴드

이렇게 내가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밴드에 올리면 현장에서 조사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신다. 그리고 선배님들 조사구에서 나오는 새로운 작물이나 헛갈리는 작물 등을 올려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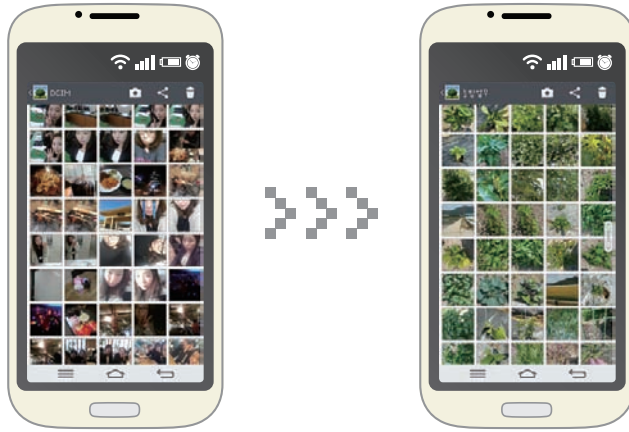
내가 농생산통계팀에 배정받으면서 달라진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레 선크림을 듬뿍듬뿍 잘 챙겨바르고 있다는 것. (나는 11월에 결혼할 예비 신부니깐 피부관리를 철저히~!)

둘째, 원피스와 치마로 가득찼던 내 옷장이 바지 티셔츠 등 편한 복장으로 변신함과 동시에 신발장에 있는 아찔한 하이힐은 쳐다보지도 않고 운동화만 챙겨 신고 다닌다는 것.

셋째, 휴대폰 갤러리에 나의 예쁜 척 하는 셀카 사진이 아닌 조그마한 폴떼기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진들로 가득 차기 시작~!





나의 휴대폰 변천사 :-)

밴드에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현장조사 하시는데 밴드알람이 올리면 방해가 될 것 같아 급하지 않은 작물은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리면 100% 정답률을 보여주신다. 역시 능력자는 뭔가 달랐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10장을 사진을 찍어온다면 그 중 5장은 같은 작물이라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하남읍 명례리 1번지에서 본 고구마와 하남읍 백산리 3번지에서 본 고구마는 왜 다르게 느껴졌던 걸까?



■■■■ 걸보리일까? 잡풀일까?

하루는 또 보리 종류 구분법을 배워서 내 나뭇 구분을 해 보겠다고 하나를 뽑아서 뿌리를 뜯어저러 쳐다봤다.

뿌리에 묻어있는 진흙도 털어 물에 한번 행궤 휴지에 닦아내고, 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을 열심히 뿌리 관찰을 하였으나 결국 알아내지 못해 사무실

로 들고 왔는데 선배님께서 이걸 잡초라고 하셨다. 허무함과 실망감은 말 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허무함과 실망감을 안겨준 문제의 겉보리 탈을 쓴 잡풀



|||| 아는 만큼 보인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번의 가축동향조사와 4번의 작물재배면적조사, 그리고 매월 조사해야 하는 다른 경상 업무들과 (어업동향조사(내수면, 어로), 산지쌀값조사, 농가판매구입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등)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식탁에 올라오는지 알게 해 준 각종 생산량조사 (양파, 감자, 마늘 등등...)를 하며 무지했던 농업업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현재도 진행중(ing)이다.

처음에 농촌에 조사 나왔을 때만 해도 축사냄새에 인상부터 찌푸러지고 흙이나 진흙에 빠질까 자동차가 더러워질까 조심조심 걸던 나는 사라지고 어디 어느 곳이든 성큼 성큼, 여러 필지를 돌아다니며 조사하다 길이 없으면 내가 가는 그 곳이 바로 길이니라. 라는 생각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다니리 라는 대범함까지 생겼다.



작물이나 지심(잡풀)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처음 5월 모내기를 해서 파릇파릇 모(벼)가 올라오던 그 모습과 2개월 뒤 7월 제 3회 면적 조사 때 나락이 어느 정도 자라 키가 훌쩍 커버린 모습에서 이번 9월 논벼예상량조사 하러 나갔을 당시 벼가 노랗게 익어 고개를 꼭 숙여버린 모습을 보니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색달랐다.

이렇게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나의 업무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많은 농업생산통계팀의 귀염둥이 막내 직원이지만 언젠가는 농업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 농업생산통계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엘리트가 되고 싶다.



당신에게도 통계가 필요할 날이 올 것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윤 용 근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

통계청에 들어와 일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담당하면서 통계조사와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현장조사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통계조사의 시작이자 반이 바로 응답자를 눈 앞에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아직도 대인공포증 타령이라니...

지난 봄 충북 증평군 소재 주방세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를 담당하면서 또다시 대인공포증이 생겼다. 응답자가 이제 더 이상은 해당 업체의 월별 실적자료를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신에게도 통계가 필요할 날이 올 것입니다



처음 두 번 찾아갔을 때는 그 간의 조사경험상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일단 지난 달의 생산, 출하, 재고물량은 잠정처리를 해놓고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자위하고 말았다. 응답자는 담당 조사원이 바뀔 때마다 으레 한 두 번 씩 이런 업포를 놓게 마련이다. 이것은 전 담당자에게는 정(情) 때문에 차마 거부나 불응을 표현하지 못하다가 새로운 조사담당자와 심리적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통계조사를 끊어버리려 하는 응답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얼굴 마주보며 얘기하면 그렇게 모질게 조사거부는 못 할거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20년 베테랑이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해?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가며 정○○ 대리를 세 번째 찾아갔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해볼까? 정대리가 30대 초반인데 아직 미혼이니가 걸그룹 멤버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취미가 낚시라고 했으니까 작년 가을 홍원항에서 잡은 송어 얘기를 해볼까? 정대리가 근무하는 사무실 동 건물 계단을 오르면서 나름대로 정대리와 친해지려고 이야기거리를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총무부 문을 두드리고 정대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정대리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잡아끌면서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아 진짜!!! 점잖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국가통계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이거 엄연한 근무 방해입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전 담당자가 상품권 만 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간 게 있는데 이딴 것도 다 필요없으니 가져가라고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보통은 조사거부의 말을 듣게 되더라도 웃음 띤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응답자가 제풀에 지쳐 너털웃음을 지을 때를 기다렸다가 응답에 대한 확답을 듣고 기분 좋게 되돌아서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만큼은 달랐다.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통계청장 명의의 문구가 새겨진 답례품 봉투는 마주서있는 나와 정대리의 발 밑에 떨어져 있었고 그것을 주워올리는 그 순간 나는 정대리의 화난 모습보다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그 날카로운 눈빛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조사현장 20년의 자부심이 환멸당하는 찰나에 난 처음으로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상품권을 주워든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되돌아서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귀청하는 길에 도저히 이 마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죄없는 들판을 향해 함성만 연신 질러댔다.

며칠 후 정대리와 상품권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잊혀지지 않았다. 내가 너무 심한 모욕감에 그대로 철수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통계 인생을 걸고 정대리에게 자료를 받아야겠다는 목표의식이 확고해졌다.

좀 더 치밀한 작전이 필요해.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번엔 이 회사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많은 기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거리가 될만한 것들이 더러 있었다.

오, 그래. 2007년에 대표이사가 불우이웃 돕기로 300만 원 낸 적이 있고, 현미추출 성분을 함유한 세제는 특허를 취득했고 또 무엇이 있나?

이야기거리 뿐만이 아니라 정대리에게 카톡 이모티콘을 하나 선물하려고 재미난 것 하나를 골라놓기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소개팅도 주선하려고





후배들에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괜찮은 아가씨를 수소문하기도 했다.

마침내 정대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한 달 여간의 세밀한 전투준비를 다하고서 나는 다시 그에게 향했다. 미리 전화를 걸고 가면 당연히 오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을 게 뻔하기에 무작정 진격하기로 했다. 용기 백배하기 위해 지난 주말 새로 사입은 양복과 구두가 무척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정대리가 있는 사무실 문을 힘차게 열었다. 일단 정대리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정대리님 안 계신가요? 출장나갔나요?

아 또 오셨네요. 정대리 퇴사하고 없어요.

정대리가 앉았던 책상에 앉아있는 여직원이 예의바르게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다. 단단히 걱정하고 다시 찾았건만 퇴사라니? 정대리 후임인 김○○대리의 말을 들어보니 정대리는 내가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부터 이직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었다. 영세기업에서는 사원으로 들어온 직원을 가르쳐서 이젠 일 좀 할 때쯤 되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회사 분위기도 많이 안 좋다는 것이었다.

하필이면 나는 그럴 때 인수인계를 받고 이직준비에 여념이 없는 정대리를 찾아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의미없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풀어놓으며 국가통계가 어떠느니 경제지수가 어떠느니 하고 떠들어댔던 것이다.

그러니 못한다고 상품권까지 집어던졌던 거지. 지도 회사에 정 펴려고 그랬는지도 몰라. 그래. 옮긴 회사에서 월급많이 받고 잘 살아라.

나는 그냥 정대리를 이해하기로 했다. 정대리는 청원군 모공단에 있는 ○○반도체 주식회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응답자료는 정대리 후임인 김대리가 성의껏 잘해주기로 굳게 약속했다. 정대리를 불응에서 응답으로 설득하기 위한 내 비장의 무기들은 꺼내보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잊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소의 모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혹시 ○○반도체 주식회사의 정○○ 대리를 아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전 응답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직원 말이 본인이 ○○반도체 주식회사에서 광업제조업동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정대리가 기획부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정대리가 사업계획서 작성의 일부분을 전담하게 되어 수년간의 동종업종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여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다가 어느 동료직원이 통계청에서 매달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통계청 직원이 오면 같이 만나 자료를 한 번 요청해 보자고 하여 정대리를 함께 보았다는 것이었다. 이 때 정대리가 청주사무소 직원을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전에 증평에 모회사에 다닐 때 윤○○ 주무관님을 뵈는 적이 있다고 윤을 띄우더라는 것이었다.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가장 안 좋게 본인이 끝을 낸 인연을 끌어다 인사말로 삼았을까? 정대리가 참 가엾어보였다.

곧장 전화를 했다. 정대리가 반갑게 받으면서도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리고 지난 번 일을 사과하고 싶으니 꼭 한 번 시간 내서 소주 한 잔 같이 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정대리를 만나고 싶다. 한 걸음에 다가가서 만나고 싶다. 국가통계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다던 정대리. 그가 이제 국가통계가 필요한가보다. 나에게는 치욕적인 상처를 안겼던 그지만 사회동생이니까 우리 고객이니까 나와 함께 통계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니까 다 용서하고 허심탄회하게 웃으면서 만나고 싶다. 아~ 하지만 이 한 마디는 꼭 해줘야지, 따끔하게….

정대리, 그러니까 사람한테 막하는 거 아냐. 국가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지?





물가네비게이터

충청지방통계청 이 분 이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하나

강렬한 태양의 햇빛은 숨이 막히도록 찌는 더위가 절정이던 8월 초.

남들 다 가는 하계휴가도 반납한 채 부서이동으로 새로이 맡게 된 생소한 업무인 소비자물가조사는 설렘과 기대감보다는 적잖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앞선다.

다른 통계조사업무와는 달리 중요도 백 배,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민을 것이라고는 10년 이상의 통계조사경력과 높은 적응력, 다른 업무보다는 비교적 불응률이 낮다는 것. 플러스 물가베테랑 팀장님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리라...



또한 장바구니 물가는 주부9단인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스스로 위로 하며 남다른 각오로 그렇게 시작된다.



|||| 물가조사 첫날

인수를 받고 난 뒤 나 홀로 조사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농축산 물가조사 날 아침, 동료직원들의 수고로 충청물가밴드114에 등재된 물가정보를 구하고 목걸이형 카드시갑 속에 새로 만든 명함을 넣고 줄에는 연필과 볼펜을 끼우고 조사표홀더와 혹시 쓰일지 모를 포스트잇과 색깔 메모지까지 나름 사전 준비 작업 후 가장 먼 조사지역 첫 대상처인 A대형 마트로 갔다.

긴장 가득한 마음을 안고 인수 받은 대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처음 해야 할 일은 건물 지하 한 켠 책상 위에 비치된 방문자기록부 양식에 성명, 방문목적과 방문시간, 전화번호를 적고 방문자 전용 명패를 달고 조사를 위해 식품 관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시작하는데 수많은 상품이 진열대에 놓여 있어 생각만큼 세부규격에 맞는 조사품목과 가격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참을 확인 후 몇 개 안되는 품목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한쪽에선 낯선 이의 등장과 어설픈 행동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 했는지 판매원들끼리 수군거린다. 뭐 하는 사람이야? 왜 하는 거야? 등등.... 창피한 느낌이 갑자기 든다. 혹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잠시 다음 조사대상처로 이동하여 SSM(기업형) 마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20대 젊은 여직원이 올 때마다 사무실로 와서 신고부터 하고 조사하라며 굵지 않은 시선으로 대한다.

담당자 바뀌었다고 미리 얘기 다 했는데 웬 푸대접인가! 아님 생색내기인가! 그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미리 앞서서 얘기할 게 뭐람.

이전 직원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불응을 심하게 하여 설득하는데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기에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너무나 젊고 딸 같은 자식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20여 개 조사품목을 찾아서 가벼운 껌잎부터 배추까지 중량을 달기 위해 직원과 손님들 눈치를 보아가며 전자저울에 살짝 올려놓는다.

만만치 않은 조사 첫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이 없이 허겁지겁 시간에 맞추어 사무실로 들어와 입력을 끝으로 바쁜 하루를 마무리한다.

다음 순기 농축조사는 순탄하기를 고대하면서…….



III 앗! 실수

농축산물 조사는 매월 3회(1순기, 2순기, 3순기) 실시하는 조사인데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는데 전순기와 금순기의 가격 차가 너무 크거나 같은 도시 내 타 권역과 비교하여 물가변동이 같은 흐름을 타야 하는데 내가 맡은 구역이 그 반대의 흐름을 탄다면 담당자는 납득이 가는 분명한 사유를 알고 있어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사 시 비교는 물론 내부의 요인인지 조사의 오류인지 항상 신중을 기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또 나오지 않는 품목의 정보도 다 파악해 놓아야 한다.

특히 농산물은 신선도와 중량에 따라서 가격 차가 심하여 무게에 따른 가격을 세부규격에 맞게 환산 조사함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인데 농축조사일





마트에서 조사품목인 피망의 중량을 재기 위해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 다음 조사를 끝냈다고 생각하고 다음 대상처로 이동하기 전 차 안으로 돌아와 조사표를 재차 확인하니 세부규격이 국내산으로 되어있는 걸 놓치고 수입산을 보고서 조사한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꼼꼼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며 다시 마트로 가서 재조사 한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원산지 확인을 해야 하는 소홀함이 실수를 낳은 것이다.

다음 농축조사 순기 때는 용기에 담긴 버섯 중량이 제각각이기에 평균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3팩의 버섯을 전자저울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다가 그중 한 팩의 버섯을 떨어트려 버섯의 끝 부분이 그만 부서지고 말았다.

이를 어쩌나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얼굴이 확 하는 화기의 느낌까지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버섯이야 내가 구입하면 된다면 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다음 조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소심한 A형인 나의 마음을 줄여야만 했던 적도 있다.

이러한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더 세심한 관찰력과 앞으로 물가조사 현장에서 실수를 줄이고 더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정확성을 기함이 물가조사의 기본요소로 비표본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III 석 달에 한 번

공업제품 조사대상처인 약국에 물가조사를 나갔을 때의 일이다.

내가 업무를 맡기 전 대상처 변동 된지 한 달 밖에 안 된 재래시장 내에 위

치한 약국으로 들어가서 조사품목인 소화제, 감기약 등 약품가격 변동이 있는지 물어보려는데 손님이 연거푸 들어오고 있어 손님이 가기만을 기다린 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약사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깐깐한 모습의 약사 냉랭한 말투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하며 품목별로 변동된 가격을 다 알려 준 다음 하는 말 세 달에 한 번씩만 와야지만 조사에 협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협조하기 어려워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귀찮다는 얘기를 하길래 매월 와서 약값의 변동을 파악해야 하는데 선불리 이해시키려 했다간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 날 것 같은 느낌이 앞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알았다며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방법이라 판단하고 약국을 나왔다.

차기 공업제품 물가조사 날 나는 이 약국 약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는데 특히 약국은 유가가 발생하면 표본대체가 매우 어렵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약사의 말 한마디에 포기한다면 날로 어려워져가는 조사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울 거란 예상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불응에 대한 대응할 문구까지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미소를 머금고 인사를 하면서 약국으로 조사표를 들고 들어갔다.

한 달 전 본인이 했던 말을 잊었다는 듯 약사는 의외의 태도로 친절하게 가격을 알려주는데 표본을 대체해야 되는 상황을 모면한 것에 대해 안도감마저 든다.

이렇듯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응답자의 태도와 말투가 달라지는 게 보통이지만 통계조사원은 응답자의 말 한마디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한다.



대상처 사냥

서비스 품목 중 생선회가 타 권역과의 중복으로 인해 서비스업물가인 생선회 즉 광어회를 취급하는 외식업의 대상처를 변경해야하는 메모 보고를 받고 빠른 시일에 변동보고를 해야 하기에 사업체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맡고 있는 3권역(유성구)을 네△△ 지도검색으로 관내 외식업체 중 조사품목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를 검색 한 다음 일일이 전화하여 해당 품목의 취급 여부를 파악한 후 현지답사를 나가게 된다.

때론 소득이 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실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인터넷의 정보와 실제현장은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전체를 돌아다니며 대상처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참 동안 유성 일대 몇 바퀴를 돌고 돌아 찾은 상호 ○○수산 간판이 눈에 띄어 반가운 마음에 주차할 곳을 찾는데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차하기가 장난이 아니다.

먼 곳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어렵사리 이렇게 찾아간 대상처 통계청에서 왔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성질 급한 주인장은 즉각 비호의적인 반응이 보이며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 대하듯 장사도 안 되는 데... 어찌고 저찌고.....

말이 너무도 빨라서 뭐라 하는지 알 수 없는 내용을 한참 얘기하더니 덧붙인다. 어제 통계청에서 왔다 갔고 선물까지 놓고 갔다면서 통계청은 허구한 날 와서 괴롭힌단다.

정확한 사실은 잘 알 수 없으나 이중적으로 조사해줘야 하는 응답부담이 내가 가증시켰나 의심하며 가슴 쓰라린 고통의 기억만을 남기고 표본대체

목적달성은 아쉬운 실패로 돌아갔다.

가만있어도 땀이 비 오듯 하는데 정말 짜증스러웠지만 다른 대상처를 찾기 위해 또 시동을 걸고 물가조사에 부합되는 대상처 사냥에 나선다.

어떤 곳은 손님이 없어 보이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대상처이고 진정 입에 맞는 떡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결국 며칠이 지난 뒤 성실하게 돌아다닌 대가인지 힘든 과정을 거치고서야 겨우 재래시장 주변상가 밀집지역 내 위치한 ○○회 수산 센타를 선정하고 오랜만에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다.

가구만을 담당해 본 나에겐 광범위한 조사지역과 수많은 조사대상처가 많은 것이 여간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도 새삼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차로 이동하거나 걸어 다닐 때는 조사대상처가 아닐지라도 출장지역의 상호나 사업체는 눈여겨 살펴보고 의도적으로 해당 위치를 기억하려 하는 행동은 추후 유고발생 시 업무수행을 수월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이다.



||| 훌륭한 조력자

저기요, 와인 종류는 어디 있나요?

물건을 찾는 고객이 제품의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나를 보고 마치 마트의 직원인 줄 알고 묻는다. 이에 나는 저 쪽 끝에 가면 있어요! 라고 마치 직원인 냥 큰 소리로 답한다.

창피함을 잊은 지 오래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한다.





추석물가 조사 하느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래시장 내 마트로 가는데 추석물가 조사 날 중에 농축조사일과 겹쳐 땅콩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트 판매원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잘 모르고 담당팀장이 따로 계신다며 지금은 점심시간이니 점심시간 지난 후 확인을 해서 나에게 핸드폰으로 알려 준다고 하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까지 하는 직원의 도움으로 나는 땅콩의 가격을 마트 자체적으로 인하를 시켰다는 사실을 핸드폰으로 알려주어 등락사유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친숙해져서 먹을거리도 내어주기도 하고 물가정보나 상품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내가 조사품목의 무게를 재려고 하면 기꺼이 전자저울을 먼저 내어주거나 무거운 상품은 들어다 주기도 하고 한다.

이렇듯 물가조사 뿐 아니라 통계조사 현장에서 응답자는 협조도가 좋아도 주변 사람들이 불응을 조장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훌륭한 조력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이며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조력자를 만드는 일은 조사원의 몫이기도 하다.



III 닭고픈 부부

물가조사 대상처 중 유성구 재래시장에서 닭 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계신다. 이 부부는 조사 협조도 좋기는 물론이거니와 항상 웃는 얼굴로 환한 모습으로 언제나 진정으로 반기며 사무소 직원들의 안부까지도 꼭 챙기는 부부의 모습에서 여유로움이 묻어나기도 한다.

판매하는 상품도 신선하고 좋은 상품만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인심 좋고 마음씨 고운 부부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도 한 이 부부는 판매의 일부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는가 하면 시간을 쪼개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도 많이 하셔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창장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얘길 주변인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이 부부야말로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따뜻한 사회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이 부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야말로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주역으로 진정 본받아야 할 가치있는 부부라는 생각을 하며 닦아가고픈 나의 롤 모델이다.



■■■ 마무리 하면서...

물가조사 하는 날의 시간은 금이다.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한시라도 한눈을 팔 새가 없다.

때론 끼니를 놓치기도 하고 때늦은 점심을 먹기는 흔한 일상, 편의점 삼각김밥과 이미 만들어놓은 김밥 한 줄을 그것도 차안에서 먹을 땐 처량한 내 신세를 한탄해 보지만 소득 없는 일,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니...

제일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재래시장 내 있는 음식점의 손칼국수. 겨우 손칼국수지만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먹는 그 맛은 어디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열심히 일한 뒤 즐겨먹는
손칼국수





물가조사업무의 특성은 물가조사일이 정해져 있어 해당 날짜에만 조사가 가능하므로 아파도 아니 되고 연가, 휴가, 교육도 모두 조사일 이후로 미루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다른 팀원들과 직원 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 때론 외롭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내가 조사한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모여 최대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사인 만큼 책임감은 물론 늘 긴장하게 만드는 업무임엔 틀림없다.

어느 날 팀장님께서 저한테 전쟁이 나도 물가조사 할 거냐? 라고 질문하시기에 그때 나는 당당하고 진솔하게 아니요. 대답하며 전쟁났는데 내가 물가조사를 왜 하냐고 반문했지만, 전시에도 수행해야 할 정도로 그만큼 물가조사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셨다.

9월 소비자물가 내용은 기업과 가계 간 소득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소비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부분의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보답하고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통계생산의 중간역할자로 행복한 미래로 향하는 길잡이로 물가네비게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로 통하는 빛이 되어 반짝거리게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물가조사현장 속에서 중단 없는 전진의 고독한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대전시 3권역(유성구) 소비자물가 내가 잡는다. 파이팅!!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충청지방통계청 황 다 헤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둘



chapter 1. 첫 현장조사를 나간다.

2014년 2월 17일 7시, 평소보다 이른 기상시간.

사놓고 몇 번 입어보지 않았지만 드라이클리닝까지 해놓고 곱게 걸어 놓은 검은색 정장을 하여 구겨질세라 조심스레 입어본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묶었다 풀었다 거울 앞을 몇 번이고 서성이고 서툰 화장을 하며 파이팅을 되새김질 한다.

다녀오겠습니다!!

데려다 줄게, 기다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됐어! 혼자도 갈 수 있다니까….

이 날을 위해 연습한 운전 실력이 못 미더운 아빠는 첫 출근하는 막내딸을 본인 출근하기도 바쁜 시간에 기어코 데려다 주겠다면서 부리나케 차동차 키를 가지고 내려온다.

러쉬아워. 나를 위해 혹은 돈을 위해 혹은 명예를 위해, 무엇보다도 새끼 손가락 옆 작은 손 가스라미가 떼어내지는 고통 마냥 매우 미미해 보이는 그 어떤 것조차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위해 사람들은 아침밥도 잊은 채 하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복잡한 거리를 나서고 있었고 나 역시 그토록 바라왔던 그 틈새에 함께 자리잡고 있었다.

3번째 필기 합격, 그 이면에는 2번의 면접의 탈락.

그 누구보다 마지막 최종합격을 간절히 원하셨던 부모님.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면서 꼭 잊지 말라던 양손의 음료수 병을 꼭 쥔 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25년간 살아오면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낯선 환경, 첫 직장. 앞으로 몇 년을 함께 지낼 낯선 얼굴의 직원들.

아, 니가 신규자구나~?

뭘 이런 걸 사왔어~

쭈뻐쭈뻐 어색해 하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름이? 나이가? 아이고 우리 딸하고 동갑이네! 집은 어디야?

수많은 질문들과 함께 조금씩 어색한 기운이 사라져 갔다.

다혜씨, 조금만 기다려, 자리 비켜줄게요~.

그 당시 무슨 일인가 몰랐지만 2월 인사이동과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리가
동으로 정신이 없었다.

...뭘 해야 하지?

다혜씨, 거기 있는 지침서 읽고 있어요.

멀뚱멀뚱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두리번대는 신규자가 처음 받은 오더 아닌
오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내용들을 차근 차근 읽어 내려갔다.

휴지, 필통, 다이어리, 헤드폰, 포스트잇 등등 언니들은 하나 하나 생각나
는 대로 챙겨주었고 책상 이름표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첫 업무가 시
작되었다.

다혜씨, 인수인계해야 되서 출장가야 되니까 e-사람 들어가봐.

이사? 이사랑??

e-사람. 바쁜 와중에 인수인계 때문에 2층에서 급히 출장을 달고 그렇게
첫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제부터 다혜씨가 맡아서 조사할 가구들이야. 잘 봐둬~.

이 집은 아주머니가 잘 응답해 주시니까 아주머니한테 여쭙봐.

이 집은 식구가 좀 많으니까 전출, 전입 그때 그때 잘 체크하고.

이 집은 1인 가구인데 일 나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오고.

이 집은 연동한지 얼마 안됐는데 빈 집이야. 이사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갈
때마다 벨 눌러보고.

이 집은...

이 집은...





평소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대학교 때도 선배 안녕하세요? 를 후배에게 했던 나인데 이 많은 가구들의 특성과 얼굴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시작에 불과했다.



chapter 2. 연동을 뛰다.

3주 정도가 지났고 조금씩 벨 누르기,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 ○○○이예요. 를 입 밖으로 내기 수월해 질 때쯤 말로만 들었던 2번 연동을 시작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다혜씨, 기초조사 나가야 되니까 준비해요!

기초 조사를 위한 조사표, 안내 리플릿, 부재시 남길 쪽지와 테이프, 인충 때 조사된 가구명부, 그리고 처음 마주하게 될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씩씩한 말들을 견뎌낼 수 있는 다짐과 용기.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 그래서요?

○○아파트 ○○동이 통계청에서 하는 경제활동조사 표본가구로 선정하는데 앞서 표본으로써 알맞은지 알아보기 위해 기초조사를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통계청은 국가기관이고 그로 인해 조사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쵸!... 문이 닫혔다.

그동안의 조사가구들은 기존의 담당자가 여러 번 접촉이 된 상태였고 매달 조사하는 것에 조금은 익숙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문전박대는 처음이었다.

설명도 마저 다 안 듣고 문을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호호호~ 이걸 애교수준이야~! 다음에 다시 와 보자.

기초조사가 끝나고 표본가구로 선정된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찾아뵈었던 통계청 직원이에요.

네? 그때 조사 다 했는데요.

아. 그거는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에 심사받기 위한 기초조사였구요. 이번 달부터 표본으로 선정되어서 경제활동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신분증 인터폰에 가져다 대봐요.

네~ 저 통계청 직원 맞아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인터폰으로 물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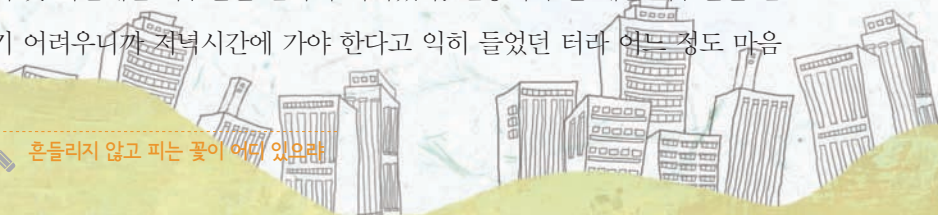
택배를 가장한 강도. 친하게 지내왔던 이웃한테 당한 성폭행. 요즘 텔레비전과 인터넷 뉴스거리로 심심찮게 올라오는 흉흉한 사건들. 이해할 수 있었다. 통계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가기관인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낯설고 무서울까. 인터폰조사가 행여 잘 들리지 않을까 복도에 찌렁찌렁 메아리로 다시 들리는 내 목소리를 감수하며 조사를 마쳤다.

이렇게라도 조사를 한 게 어디야.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

그렇게 한 층 한 층 내려가며 조사를 시작했지만 맛별이가 많은 조사구이여서 낮 시간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연동시작 할 때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저녁시간에 가야 한다고 익히 들었던 터라 어느 정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의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해가 짧아 금세 어둠이 깔리는 게 원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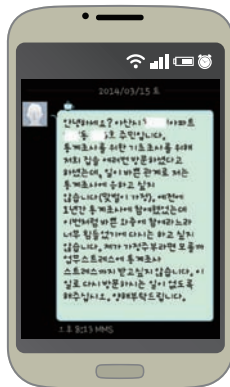
퇴근 후 저녁준비에 바쁜 어린 두 아이의 엄마. 아직 끝나지 않은 일로 낮에 붙여 놓 부재중 쪽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 샤워를 마치고 속옷차림으로 문을 열어주는 아저씨. 젊은 아가씨가 밤늦게 일하는 것이 걱정돼 따뜻한 커피한잔을 내주며 집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을 자세히 알려주신 아주머니. 낯선 사람, 낯선 통계청, 낯선 웬 젊은 아가씨. 낯선이 아닌 낯익은 수식어가 붙는 그 날이 되길 바라며 벨을 누른다. 땡~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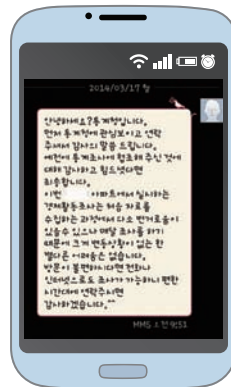
chapter 3. 그리고 불을 만나다.

몇 날 며칠을 가도 연락이 없고 부재중 쪽지만 여섯 번 넘게 붙였던 연동가구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받지 않는 전화에 할 수 없이 답장을 보낸다.



연동가구로부터 온 한 통의 문자



내가 보낸 답장

답장은 기대도 안했기에 그 다음 날 다시 찾아갔다. 운수 좋은 날.

어머,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 직원이에요! 처음 뵙네요.

왜 오셨어요.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네. 문자 봤는데 그래도 얼굴은 한 번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에 통계조사도 해주셨다고 했는데 언제 해보신 거예요? 통계청하고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점점 능청스러워지는 내 모습이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것 또한 현장 조사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팁이리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해보니 본디 꼼꼼한 성격이라 전에 했던 가계부 작성에 이골이 나셨던 모양이다. 다행히 이 아파트는 경제활동조사만 하는 조사구였기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설득을 할 수 있었다.

여세를 몰아 몇 번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바쁘다며 급히 집으로 들어갔던 젊은 부부가 사는 집 벨을 눌러본다. 처음 뵙는 큰 키의 남편분.

아, 통계청. 저희 안하려구요.

뉴스에서 실업률 많이 보셨죠? 저희 통계청에서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조사로 공표가 되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조사하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응답으로 공표를 해요. 한 가구가 대략 480가구를 대표하게 돼서 조사가 안 되면 그만큼의 통계오류가 발생하구요. 물론 통계법상 응답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안 해요. 다른 집 가세요.

표본선정은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계통추출법이라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요.

아 됐고, 안 한다니까? 우리는 통계 관심도 없고 하기도 싫다고!!!





높아진 언성에 순간 얼어버렸고 큰 키의 남자 라는 사실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오기였을까.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조사응답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상품권도 지급됩니다.

아, 진짜!! 이딴 거 필요없으니까 가라고!! 쾅!!!

.... 엄마. 그 순간 엄마가 생각이 났다.

맥없이 바닥에 떨어진 상품권을 챙겨 아래층 가구를 만나기 위해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문득 쳐다본 작은 창문으로 들려오는 놀이터의 아이들의 웃음소리. 살면서 이런 경험은 언제 있었을까. 험난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평탄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한 25년 삶에서 사실 난 곱게 자랐었나 보다.

주저앉아 복도에 들릴세라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냈다.

아...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니. 문학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유명한 김침지가 생각나는 날이었다.

몇 달이 지났지만 그 집은 여전히 불응인 상태이다. 그 당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면 어쩌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으니까. 제발 없어라!! 라는 마음일지라도. 땡~땡!



chapter 4. 가계부 불응을 설득하다.

회수율! 회수율! 옆자리 언니는 가계동향조사 총괄자.

처음 인계 받았을 때부터 회수율이 좋지 않은 조사구였지만 쌍둥이 임신으로 인해 가계부를 잘 써주던 집이 불응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회수율은 70%

선으로 접어들었다. 발령받은지 2주가 지날 즈음 용기내어 보낸 문자 한 통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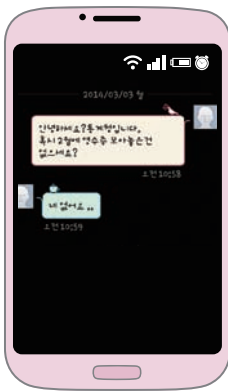
뱃 속에 한 명도 아니고 둘 씩이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가계부 작성이 힘들 것 같고 애기들이 태어난 후에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틈에 대체할 다른 마땅한 가구도 없었기에 출산 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매달 찾아갈수록 불러오는 배로 경제활동조사도 힘겹게 문을 열어줄 때쯤 8월 드디어 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너무 축하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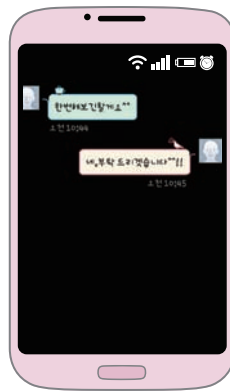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들이라고 하기에 양 손에 귀여운 내복 두 벌을 선물로 드렸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애써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받아주었다.

아이를 낳은 후 심적인 여유가 생긴 걸까. 선물한 아이들의 내복이 맘에 들으셨나. 영수증 한 번 모아줄 수 있냐는 조심스런 부탁에 기분 좋은 답장이 왔다.



불응으로 돌아선 집에
용기내어 보낸 문자



영수증을 모아보겠다는
기분 좋은 답장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가계부 회수날이 다가왔고, 그동안 영수증 잘 모으셨냐는 문자 한 통을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도 답장이 오질 않았다.

설마, 에이 설마....

전에도 한 번 가계부를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빈 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마주한 기쁨의 한 마디.

아가씨가 모아달라고 한 날부터 시부모님한테도 여기 영수증 휴지통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려서 최대한 성실히 모아봤어요.



아직 채 1년도 안된 풋내기 조사원이지만 현장에서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점심 후 커피 한 잔이 익숙해져가는 나는 아직 새내기.

수없이 흔들리고 이 곳이 맞나 싶을 때도 많지만 그렇게 많이 흔들리려 한다.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용기를 가져다주길 바라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중에서 -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인연

전자가계부와 함께 멋진 미래를 설계해 본다. 전자가계부, 처음엔 생소하고 낯설어 고민도 많이 하고 육아에 지쳐 쓰지 말까? 갈등도 많이 했지만 우리 가정의 씬씀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성 있는 지출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같다.

난 앞으로도 꾸준히 가계부를 적으며 가정 경제를 잘 운영해 가는 모범 주부가 되기를 꿈꿔 본다.

— 「멋진 미래를 설계하며…」 중에서 —





할아버지가 가계부름?

응답자 김 광 희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셋

2년 전 어느 날 오후 통계청에서 나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 맞이하여 마주 앉았다.

속으로는 내심 통계청에서 우리 집에 대하여 무엇을 조사하려는지 궁금증도 있고 해서 신분을 확인시켜 준 후 문을 열어주었다. 조사원이 절대 가게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아울러 우리 집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아파트 1-2라인 20가구를 모두 조사하며, 아파트 생활가구에 가계살림통계를 알아보면서 정부정책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된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성실히 평상시 생활하시는 대로 전자가계부에 기록만 해주시면 된다고 설명



할아버지가 가계부름?



해 주셨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나는 지난 10여 년 이상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 및 각 지방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통계를 작성해 봤던 터라 부정적인 인식이 마음 속에 깔려 있었다.

전에 응답 시 흘리는 식의 성의없이 설명을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 건성건성 대답만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하지 않으려 했으나, 조사원의 간곡한 설득에 마지 못해 시작한 가계부 작성이 날이 가고 날이 갈수록 가계경제 수지계산을 정밀 분석해 주는 통계청 통계소식지를 접하면서 가계수지 계획도 차츰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계획을 세워 가계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 불필요한 잡 지출이 점점 줄어들고 가계수지가 점차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 통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차츰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가계부 작성에 임하는 마음이 차츰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허나 열심히 작성해도 통계청 직원의 지적이 있어 검토하면 누락된 부분이 있고 수정보고 하기를 수 차례....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담당조사원이 세심하게 모든 살림을 체크해 주어서 좋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담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음을 부인 할 수가 없었다.

예쁜 조사원이 애교스럽고 상냥하게 병중인 집 사람의 건강식품약(당뇨병에 좋다는 뽕잎환)도 주고 집에서 직접 짰다는 들기름과 이전 농가조사구

에서 줬다며 상추와 감자 등등....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친정 부모한테 하는 것처럼 챙겨주는 마음씨가 너무 고와 친자식보다도 낫고 하여 지금은 열심히 배우면서 성실히 작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쌀을 얼마나 샀느냐? 콩은 얼마나 사고 기타 잡곡은 무엇 무엇을 얼마나 샀느냐? 는 등 미주알 고주알 묻고 쌀 찾으러 쌀독을 뒤지고 콩 찾으러 옆 방과 김치냉장고, 감자 찾으러 베란다 등 냉동실까지 일일이 집안 곳곳을 후비고 다니면서 먼 밀히 챙길 때는 정말로 자존심이 상해서 금방이라도 때려 치우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여름철에 잡곡에 벌레가 생겨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조사원이 확인해 주어 무척 고마웠다.

하지만 가게부를 남자가 그것도 늙은 나이에 쌀이 어떻고 보리쌀이 어떻고 하며 각종 잡곡에 부식까지 일일이 영수증과 대조해 가면서 저녁에 가게부를 작성하다 보면 남자가 좀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 집사람에게 쓰라했더니 매달 초에는 쓰겠다고 하나 며칠 쓰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을 보고 그럼 한 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더니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쓰다보니 보통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통계가 잘못 잡혀 국가정책 설정에 과오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하니 책임감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정확하게 바르게 써 보곤 한다.



직접 체험해 보니 주부들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작은 수입에 살림을 하려니 그 고충이 심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갑자기 안 사람이 안스러워지고 대견스럽게 생각이 된다.

지나간 세월 찌든 살림에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자식 농사 잘 지어 주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해요~! ♥♥♥♥

여보! 정말 정말 사랑해요. ♥♥♥♥♥♥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예쁜 가족을 보내주신 통계청에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다

응답자 김 시 정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넷

지난 해 6월이었다.

핑동 핑동~ 통계청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흘러나왔다.

누구지?? 하는 호기심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통계청 소개 및 인구조사, 직업, 가족, 전화번호 등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다.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섭고 언론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생각나서 하기 싫다고 못 민졌다고 말했더니 직원이 여러 가지 팜플렛을 보여주며 국가기관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한참을 고민한 후 우리 가족의 정보를 대답해 주었으나, 직원이 돌아간 후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았다.

남편이 경기도로 발령이 나서 나 혼자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되었다. 주말에 내려온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화를 내면서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냐며, 부부싸움을 하였다.

남편과 함께 인터넷에 들어가 통계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으며,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직원 이름이 있는지 확인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말이다.

어, 내가 잘못했나,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등등 불안했지만 한 달 뒤 전에 방문했던 여직원이 벨을 누르면서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하는 게 아닌가!! 너무 기쁜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주었고,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웬걸, 8월에 인사발령으로 담당자는 목포로 발령이 나고 새로운 여직원이 맡았다며 내게 소개를 시키는 것이었다.

어라, 이러면서 사기를 치나?? 생각했지만 새로 접한 여직원이 상냥한 미소와 함께 가계부를 권유하였다.

직원의 권유로 시작된 가계부 쓰기!!

가계부를 써 본적이 없는 나로서는 약간의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직원의 적극적인 설득 및 가계부의 장점, 살림 도우미 등등 직원의 친절 한 설명으로 가계부를 쓰게 되었다. 특히 전자가계부를 쓰면 5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어~~ 이거 괜찮네. 가계부를 결혼 초부터 써야지, 계속 연초가 되면 다 짐을 하였지만, 실전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계기로 가계부를 써서 소비를 줄이며, 우리 가정의 가계흐름을 파악하여 계획있는 살림을 해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매일 매일 슈퍼에 가면 영수증을 꼭 챙겼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이 옷을 살 때도 영수증 주세요.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다.



나름 아껴쓰며, 절약하며 살림을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월별 지출항목을 세세하게 들여다 보니, 우리 가정에 필요하지 않는 소비가 상당히 많은 것이었다. 직접 눈으로 지출항목을 확인하면서 가계부를 쓰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절로 실감한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지 벌써 1년 2개월이 다 되어간다.

이번 통계청과의 인연을 계기로 가계부를 처음 써본 것이 나에게서 큰 행운이라 생각된다. 전자가계부는 우리의 살림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엑셀로 전환하여 볼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

작년 둘째 아이가 8개월만에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도 힘들고 산모인 나도 힘이 들어 가계부를 이달은 못쓰겠다고 직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출산 선물(아이 옷)을 가지고 방문하더니, 종이가계부를 가져와 영수증과 함께 현금 지출을 적으라는 것이었다.

그래! 한 번 시작한 거 이렇게라도 빠지지 않고 써봐야겠다며 종이가계부에 영수증과 함께 적어보았으며, 산후몸조리를 하고 있어 그다지 많은 지출은 나가지 않았다.

직원의 도움으로 전자가계부를 한 달도 빼먹지 않고 입력을 할 수 있었다.





직원이 도와주어 남편이 입력을 했기 때문이었다.

미숙아로 태어난 우리 아이가 벌써 돌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있다. 잦은 입원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나의 가계부가 나날이 발전된 것처럼 아이도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땡동~ 통계청입니다.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손에 아이의 돌 선물을 가져온 게 아닌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잘 챙겨주니 너무 고마운 마음에 통계청 공무원들은 모두 이렇게 친절한가?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통계청 전자가계부를 써보니 너무 좋더라, 너희도 혹시 통계청에서 조사 나오면 잘 해줘라 등등 나도 모르게 홍보대사가 되었다.

전자가계부는 우리 가정의 살림정보 도우미가 되었다. 혹시 귀찮아 멈추신 분들에게는 다시 시작해보세요~, 라며 외치고 싶다. 통계청 전자가계부로 돈도 벌고, 살림도 잘하는 일석이조의 만족을 얻게 될 테니까...





갈수록 재미나는 전자가계부

응답자 배 임 순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다섯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제활동 가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응답자인 배임순입니다.

2014년 3월부터 전자가계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 직원이라 하면서 사모님이 사신 아파트가 3년 주기로 표본이 바뀌는데 이번 대상가구로 선정되었다며 조사의 취지를 열심히 설명하면서 애절하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976년부터 가계부를 써오는 터라 주저하지 않았고, 사례금도 5만 원이고 해서 기입한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금전출납부 형식으로 기입했으나 품목별로 쓰지 않고 총액만 기입, 관리비 등도 총 납부액만 기입해왔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가계부는 품목분류라 그렇게 기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마트 영수증은 버리지 않고 꼭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보고 입력했고 골목시장에서 보는 물건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잊을까봐 날마다 전자가계부를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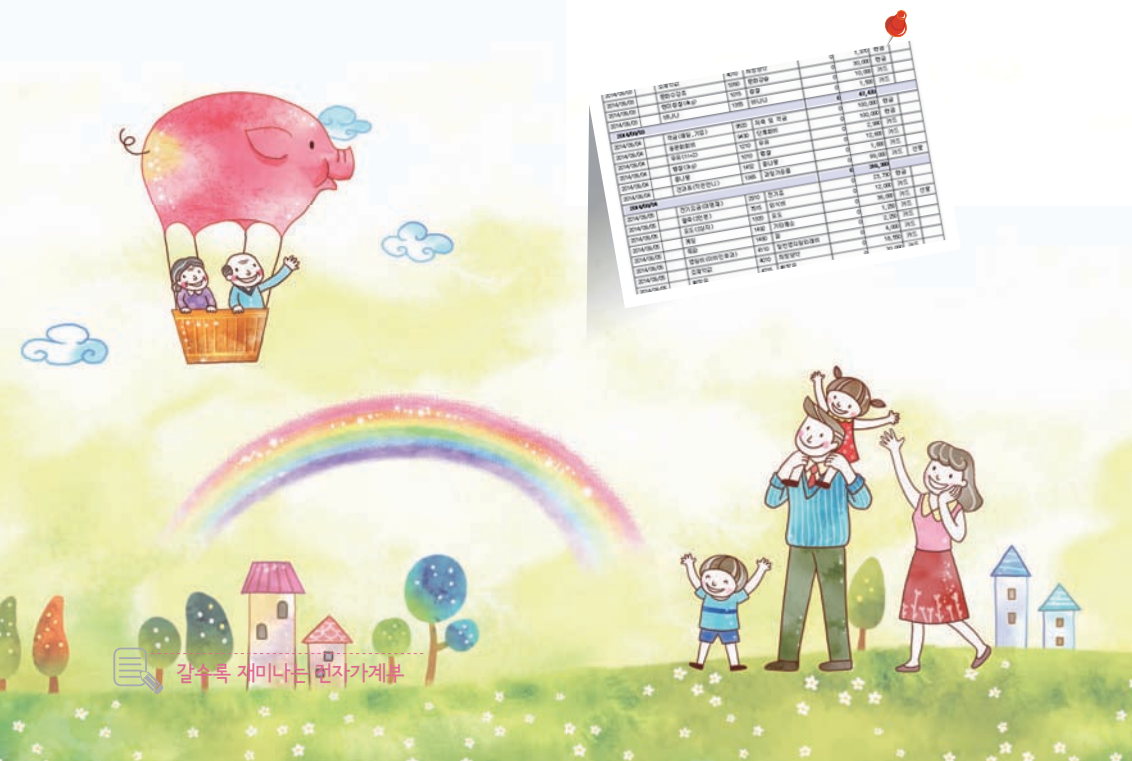
우리 집은 부부가 삽니다. 남편도 저도 정년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남편은 문화센터에서 1주일에 한 번 3시간씩 문인화 강의를 하고 저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구해줘서 첨단복지센터에서 방과후 어린이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 손녀 1명이 서울에 살고 있으나 예술을 하기에 경제력이 없어 우리 아저씨 연금은 모두 아들네 가정 생활비로 지출되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매월 돈으로 보내주면 송금으로 처리하고 물품으로 구입해서 보내준 것은 선물로 체크한다고 해서 아들 내외에게 카드를 준 대신에 문자 알리미를 통해 가계부에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기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입한 내용이 통계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처음에는 품목을 찾는데 미숙하여 담당 선생님께 주말이며 밤, 생각하지 않고 지겹도록 문자를 보내 바로 바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담당직원에게 되게 귀찮게 하죠? 물었더니 되려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구요.

경제활동 및 양곡도 컴퓨터로 입력해 주고 양곡을 입력하면서 한 달에 식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석도 하게 되어서 쓰는 재미도 느낍니다. 3년 동안 사례금을 합하면 18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입도 짝짝하고요.





멋진 미래를 설계해봐...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여섯

응답자 박 수 희

2012년 7월 말. 늦은 나이에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우리의 보금자리인 신혼집으로 이사를 왔다.

맞벌이부부라 주말 밖에 시간이 없어 집 정리와 필요한 물품을 사러 다니며 바쁘게 정신없이 몇 주를 보내고 있던 중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통계청인데 몇 차례 방문을 했으나 만날 수 없어서 전화로 먼저 인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월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로 선정이 되어 가계부를 써야 한다고 방문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좀 찝찝하긴 했다.

사실 이런 건 처음 들어봤다. 이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한 번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도 되면서 모르는 사람의 방문이 싫기도 하고 임신 중이라 좀 무섭기도 했다.

그래서 방문 약속을 한 그날 저녁, 신랑이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친정 엄마, 아빠를 오시라고 해서 같이 있는 중에 통계청 직원분이 오셨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리 너무 친절하시고 여자분이라 일단 안심을 했다. 가계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서 신랑과 나의 직장, 무슨 일을 하는지, 몇 년 일했는지... 등등 너무 세밀하게 물어보시며 적으시고는 우리 집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기입해야 하는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런거 공개하기 싫기도 하고 완전 완전 찝찝하다. 고 생각하던 중 옆에 같이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들어보시더니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다.

여기 아파트 202동에 10층까지 선정되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된다고 하시며, 우리 집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몇 천 가구가 표본이라는 설명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수입과 지출실태를 파악해서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변화 등을 측정하는 자료로 쓰인다는 말씀을 하셨다.

혈~ 한다, 안 한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이런 것까지 지정해 주냐? 라는 생각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가계부 노트와 전자가계부 메뉴얼을 받았고 컴퓨터에 작성하면 매달 4만 원을 주신단다. 그런데 카드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불러와서 같이 전송해주면 만 원을 더 줘 5만 원을 입금해 주신다는 설명을 하셨다.



하지만 카드사용내역까지는 웬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카드사용내역은 패스….

가계부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 가계부…. 매일 쓰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컴퓨터에 앉아 매뉴얼에 나온 순서대로 해보았다.

통계청 전자가계부 사이트가 나오면서 나의 의심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입은 해 놓고 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과 아직 말일 되려면 멀었으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상 옆에 가계부를 얹어두고는 하루...이틀...지나 버렸다.

마감 일주일 전, 가계부 입력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들고 실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마감일이 다가오자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 입력을 하기는 했는데, 신랑 월급, 내 월급, 세금, 핸드폰 요금 너무 세세하게 여러 품목을 나누어서 적다보니 내가 모르는 이런 것도 지출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솔직히 나에게 가계부란 너무 너무 귀찮았다.

그런데 한참을 입력하다 보니 앗!! 큼직하게 나간 돈은 생각이 나는데 여기 저기 소소하게 나간 돈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다. 매일매일 기록해 두든지 입력을 하든지 했어야 했다.

에이...뭐 어때! 라는 생각과 함께 대충 입력하고 첫 달은 월 마감을 해버렸다. 한 달 끝났다는 생각에 맘은 훨씬 홀가분했다.

그런데 문득 통계청 직원이 우리가 기록한 가계부로 통계를 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 이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미 월마감을 해버렸으니 마음 한편이 개운치는 않았지만, 모르겠다. 하며 넘어가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통장정리를 하는데 통계청에서 4만 원이 입금되어있었다. 어... 돈이 진짜 들어오네? 라며 생각지도 못 한 돈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집으로 돌아와 이왕 할 거면 그냥 카드 사용내역까지 입력해 보자라는 생각에 카드를 입력하고, 카드사용내역 불러오기를 하니깐 신기하게도 정말 우리가 사용한 카드내역이 줄줄 나오는 거였다.

우와~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될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 만 원이 뭐라고...

돈을 떠나 직장을 다니며 가사 일을 하는 내가 매일매일 가계부를 적는다는 건 너무 힘들고 귀찮다는 생각이 여전했고 매일 가계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영수증을 하루하루 봉투에 모으기로 했다.

2~3일에 한번 입력을 하더라도 영수증을 보면서 하면 빠트리는 것도 없고, 어렵지 않아서 종이 가계부에 적어놓고 시간을 내어 다시 전자가계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계부를 써나갔다.

사실 가계부를 쓰기 전에는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안 주면 안 받고 주는지 안주는지도 모르고 지나쳤는데, 이젠 내가 먼저 영수증 같이 주세요. 라고 말해서 꼭 받아온다.

이렇게 몇 달을 잘 작성하다가 나는 출산을 하게 되었다.



아뽕싸!!! 이런..., 내가 생각한 육아랑 전혀 딴 세상이었다. 없던 아기가 생기니까 잠도 못자고 몸도 지치고 정신도 없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가계부와 뭐고 컴퓨터에 앉을 시간이 도저히 없었다.

그래도 아기가 자는 시간에 잠잠이 해야지 해 놓고는 그 시간에 나도 같이 자고 있다. 이런~~ㅠ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아기를 재우고 밤에 가계부 노트를 가지고 거실에 상을 펴서 영수증이랑 고지서들이랑 한데 모아 꼼꼼하게 가계부에 적어 내려가고 있을 때 었다. 갑자기 남편이 뭐 해? 하고 말을 걸었다. 열심히 공부해요. 라고 대답하니 옆에 와서 가계부 적는 걸 보고는 미소를 띄우며 살짝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도 이거 적기 싫다... 잠자고 싶다는 생각도 무지 들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꾸준히 작성을 하여 매월 1일이면 어김없이 월 마감을 해서 보낸다.

몇 달을 밤에 아기가 울면 달려가서 재우고 다시 컴퓨터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육아에, 가계부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곤 했다. 통계청 직원분이 아기 낳고 난 뒤에도 가계부에 빠진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항상 전화가 오거나 방문해서 물어보신다. 그럴 땐 좀 뜨끔하기도 했다. 좀 더 잘 적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말이다.

매월 마감 전이나 후에 전화주시면 육아에 힘들죠? 라는 말과 아이가 많이 컸죠? 라고 항상 물어봐 주시고 살갑게 해주셨다.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작성해야겠다는 맘이 들기도 했다.

통계청 직원분에게서 경제활동 시간표 작성과 회수날짜 안내 문자 등 문자가 오면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도 답을 해드리면 나에게 또 답해 주시고 하면서 신뢰도 쌓이게 되어 처음에 의심하고 찝찝한 생각은 싹~없어졌다. 언제부터인지 가계부를 입력하며 이번 달엔 얼마나 지출되었나 더 자세하게 적어보고 체크도 하면서 작성하고 있는 나에게 신기했다.

그렇게 가계부를 쓴지 일 년이 훌쩍 넘어가던 어느 날, 여전히 가계부에 수입과 지출을 입력하고 있는데, 순간 깜짝 놀랐다.

뒤에서 남편이 우리 이렇게 지출이 많았냐? 고 하며 가계부 내용을 보고 놀라는 것이었다. 줄여야 된다고 말이다. 내가 기록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출이 많은 것을 보고 남편도 관심을 가지고 입력한 전자가계부의 앞 달, 그 앞 달을 다시 보는 것이었다. 가계부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 우리 가정의 지출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여보, 다음 달부터 줄여볼게. 라고 애교있게 말하곤 넘어갔다.

남편이 나간 후 난, 다시 전자가계부 앞에 앉아 일 년 전부터 가계부를 다시 살펴봤다. 음.... 이러 이러한 곳에 지출이 되었구나. 우리 집의 지출이 이렇게 많았구나.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도 하며 생각처럼 잘 안되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살아봐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아직 우린 세 식구지만 머지않은 미래엔 네 식구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전자가계부와 함께 멋진 미래를 설계해 본다.

전자가계부, 처음엔 생소하고 낯설어 고민도 많이 하고 육아에 지쳐 쓰지



말까? 갈등도 많이 했지만 우리 가정의 씬씬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성 있는 지출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같다.

난 앞으로도 꾸준히 가계부를 적으며 가정 경제를 잘 운영해 가는 모범 주부가 되기를 꿈꿔 본다.

오늘도 나는 가계부 홈페이지를 열고 행복을 설계한다.

어느새 훌쩍 자란 귀엽고 사랑스런 아기가 나를 향해 엄마, 파이팅!! 하는 듯 예쁜 미소를 짓고 있다.





가계부를 쓰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응답자 조 경 란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일곱

가계부 쓰기!

이 단어는 남편과 나 사이에서 금기 단어입니다.

신혼 초 가계부를 쓰기를 권하는 남편과 아주 심하게 싸운 이후로는 남편도 나도 결코 꺼내서는 안 되는 시한폭탄과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일을 도와줄 수 없는 토목 기사인 남편을 만나 맛벌이를 하는 저는 육아와 가정 일과 직장의 일로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가정 소비를 알기 위해 한 달만이라도 가계부 쓰기를 권하는 남편이 나의 힘든 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배려가 없음으로 여겨져 참 많이도 야속하고 밉더군요.



가계부를 쓰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두 사람 모두 월급쟁이라 적자만 안 나면 된다며, 한 달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하다며 은근히 월급이 적다는 뉘앙스도 풍기면, 이에 화가 난 남편과 참 심하게도 싸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은 가계부 쓰기를 권하지 않더군요. 그때는 참 가계부 쓰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 조금은 주위를 둘러 볼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전쟁같은 맞벌이를 했건만 만족할만한 재산이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 한 달 카드 빚을 결제하기도 빠듯할 정도였습니다. 그 긴 시간 맞벌이를 했건만 그만큼 저축의 양이 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하게 돈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학원비는 점점 늘어만 가고 월급은 그만큼 따라 늘지는 않고.... 막연한 미래의 노후와 아이들의 교육비가 걱정이 되어갔습니다. 뭔가 가정 경제를 꾸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때쯤 통계청 조사원 언니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가계부조사 표본 조사 아파트로 지정되어 한 번 가계부를 써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권하더군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으나 3년을 써야 된다는 말에 지속적으로 쓰기가 겁이 나서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나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컴퓨터로 가계부를 쓸 수 있고 분류하거나 입력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간곡하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계청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에 매뉴얼을 깔고 가계부를 쓰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때는 셋째의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시기라 복직하면 바빠서 쓰기 힘들다고 하면 통계청 조사원 언니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쓴다고 했습니다.

한 달을 쓰고 월 마감을 하면서 내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돈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과 마트에서 정말로 많은 돈은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나더군요.

바쁜 맞벌이 때문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소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였습니다. 매번 마트에서 사는 것만 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사고, 가끔은 마트에서도 계산이 잘못되어 하나를 샀는데 두 개로 계산이 된 것들도 있더군요.

참, 이러니 돈이 안 모이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가계부를 쓸 때마다 한 달 동안 지킬 약속을 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트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 택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타기.... 이렇게 소소하나마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없더라도 충동적인 소비는 줄이고 싶더군요.



이렇게 노력하며 한 달을 보내니 카드로 나가는 금액이 눈에 뜨게 줄더군요.



또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가슴 한 편이 뿌듯하더군요. 남편에게도 가계부를 쓴다고 남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여 소소한 수입과 지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도 하는 듯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밖에서 일어났던 지출을 제게 말을 해준답니다.

이제는 가계부 쓰는 재미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보다 마트 한 번 안 가니 조금의 돈이 모이고, 택시 한 번 덜 타니 돈이 모이고,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특가라면 우선 사고 보는 습관들이 조금 씩이라도 통제가 되더군요. 소비가 통제되니 조금씩 돈이 모여, 이제는 적은 돈이나마 적금을 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계부 쓰기는 이렇듯 나에게 내 가정의 돈의 흐름을 알고 물 흐르듯 빠져 나가는 돈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문제를 알면 해결책이 보이듯, 무절제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마트 한 번 안 가기, 택시 한 번 안 타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품 나게 외식비 10만 원 줄이기, 마트에서 식품비 10만 원 줄이기, 재래시장 이용해서 부식비 10만 원 줄이기 등을 정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언니는 복직을 한 나에게 바빠서 가계부도 빠듯한데, 양곡소비량은 다른 집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지만, 빠진 것이 있어 연락이 오면 명세서 및 카드 대금 등 수시로 카톡으로 보내어, 조사원 언니가 정리를 해 주기 때

문에 3년을 끝까지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해 봅니다.

매달 매달 완벽하게는 못 해도 충동구매가 조금씩 줄여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신혼 때 가계부 때문에 싸움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남편과 함께 웃기도 합니다.

망설이는 나에게 천천히 기다리면서 한 번 더 가계부 쓰기를 권해준 통계청 가계부조사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다정한 한 때〉



가계부를 쓰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여덟

통계청 파이팅!!

응답자 임 의 묵

안녕하세요~! ^^

저는 천안시 쌍용동 ○○○ 아파트에 사는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 임의묵입니다.

2013년 3월에 이사오면서 통계청 직원 분으로부터 통계청 전자가계부를 써 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고, 아이 셋을 키우랴 바쁘다는 핑계로 여지껏 가계부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에서 새삼스레 가계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거절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직원분이 방문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면 통계청에 협조도 하지만 우리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통계청 전자가계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집 지출에 대하여(아이들 교육비, 남편 용돈, 저축, 휴대폰요금 등) 한 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체크하여 낭비되는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하여 설명하며 끈질긴 설득과 권유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통계청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인터넷 검색을 한 후 가계부를 써서 수입도(사례금) 생기고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기회에 가계부 쓰는 습관을 가져보라 하여 2013년 5월부터 가계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통계청 직원분의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가계부를 쓰게 되었고, 1년 넘게 꾸준히 가계부를 쓰다 보니 통계청에 초대도 받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을 직접 방문해 통계청에서 하는 일과 통계청 직원 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비디오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인구조사며, 쌀 수확량, 사업체 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가 협조하고 있는 가계동향 조사는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주거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의 결정등의 기준제공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알 수 없었을텐데...

또 한 가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양곡소비량 때문에 제가 아이 친구들 엄마 모임에서 목에 힘을 주게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애들이 아침밥을 꼭 챙겨먹어야 하는데 빵이나 과자로 밥을 대신해서 먹는다며 키가 안 자랄까 걱정이고 시골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거리 등이 화제가 되었는데, 언젠가 통계청 직원이 쌀 소비량에 대해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들에게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알고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당 쌀 소비량이 67.2kg라며 이야기했더니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쏟아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통계청 덕분에 제가 유식한 엄마가 되었던거죠. 제가 쓰는 전자기구가 통계청에 꼭 필요한 자료임을 알게 되어 앞으로 더 꼼꼼하고 성실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통계청에서 천안 CT투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고장의 유명한 곳도 둘러보게 되었고, 통계청 직원분과도 더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통계청 직원분들의 친절함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계부 작성을 젊은(30~40대)층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져주세요.

저도 꼼꼼히 가계부를 쓰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청 직원분들 파이팅!!!!



74세에 시작한 3년 약정 통계예금

응답자 김 지 하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사례. 스물아홉

유난히도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던 날.

그 빗 속!! 당당하게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나를 귀찮게 해서 보험실적도 아니고 통계실적을 올린다는 통계청 직원이었다.

내가 통계조사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 덧 8개월.

앞으로 28개월만 더 인연을 이어간다면 은행의 정기예금 36개월짜리와 맞먹는 74세에 시작한 3년 약정 통계예금을 시작하였다. 든든한 정기예금처럼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저축한 통계청 직원은 예치한 자료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 주었다. 다름 아닌 상품권. 지금은 우체국



74세에 시작한 3년 약정 통계예금



통장으로 현금으로 넣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내 기억이 때론 통계청 직원을 난처하게~ 당황하게~ 만든 상품권 액수..., 하지만 현명하게 잘 대처해 줘 오해가 풀렸다. 이 글을 통해 미안함을 전하고 싶다.



III 첫 번째 이야기

2013년 11월 기초조사를 해 주고 두어 달이 지났을까? 그때 잠깐 인사를 나눈 통계청 직원이 2014년 2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라고 하면서 간단한 조사표를 작성한다고 늙은 나를 붙잡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니 내가 읽어보고 작성해 놓을테니 다른 집에 다녀오라고 일렀다. 통계청 직원이 자리를 뜨고 나서 돋보기를 쓰고 조사표를 읽어 보았으나 질문은 보이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직원이 와서 처음부터 조사표 내용을 고스란히 읽어 준 다음에야 그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내 집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이 글을 통해서 조사표 만드시는 분들에게 제발 조사표의 활자 좀 크게 해 줘요, 라는 말 좀 전해 주셨으면 한다. 그럼 조사하러 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 덜 할 테니까...



III 두 번째 이야기

2014년 4월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다.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치매 걱정도

하지만 74세인 나는 가계부를 쓰면서 기억력 향상과 더불어 치매 예방이 되는 것 같아서 좋다. 그리고 처가 까막눈인데 통계청 가계부 때문에 요즘은 한글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흥에 겨워 날마다 오늘은 얼마나 썼을까? 혹시 쓸데없이 쓴 돈은 없는지 후회하고 일기 쓰듯이 열심히 하루를 가계부 쓰기로 마감하고 있다.

매달 여러 번 방문하는 직원 덕택에 외로울 틈도 없다. 그리고 가계부 겉에 갈 때마다 직원이 어찌나 꼼꼼하던지 내가 쓴 가계부를 보고 조금이라도 수상쩍은 내용이 나오면 꼬치꼬치 캐묻는 내용에 오리발을 내밀까 말까 하다가도 직원 얼굴만 보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아마도 직원에게는 어떤 마력이 있나보다. 암튼 가계부를 쓰는 일은 나에게 소중한 하루의 일부분이 되었다.



III 세 번째 이야기

처음 3년이라는 응답기간에 기함을 했지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지금은 통계청 하면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늙은 나에게 좋은 말동무 하나 보내주었다고…. 언제 어디서든 통계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제공해준 통계자료 덕분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우리나라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다짐해 본다.

성실한 응답자 믿을 수 있는 통계 행복한 우리나라

알아서 잘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차 조심 하고 건강하게 잘 다니라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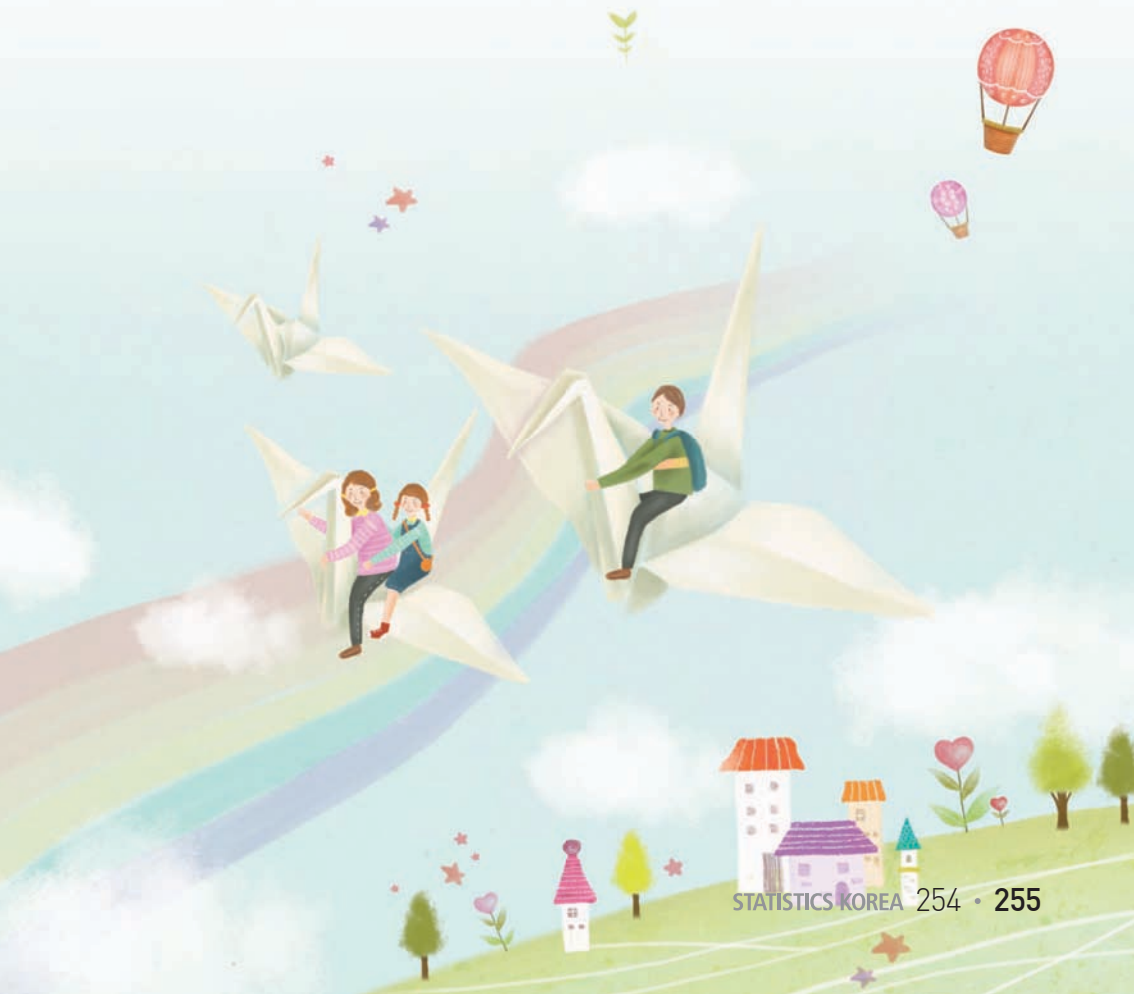




러주고 싶다. 가끔은 까칠한 통계청 직원에게….

내가 쓴 이야기가 직원이 올린다는 중요한 통계실적인 것 같다. 직원이 우리 집에 방문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실적을 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그리고 매달 받는 이자를 가지고 며느리에게 딸에게 선심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수시로 방문하는 통계청 직원에게 한 마디 전하고 싶다. 고마워. 유~ 아가씨!





2014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소망인연

因緣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수많은 인연들과의 아름다운 동행

인연(因緣).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또는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연줄을 인연이라고 한다. 나와 수많은 인연들. 그 뒤에 통계라는 연결 고리가 있다. 그리고 그 통계는 수많은 나의 소중한 인연의 가운데에 진실 되게 서있다. 그래서 나는 연동을 인연의 문을 여는 것이라 부르고, 통계조사기간을 응답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얻은 이 인연들은 내 삶 속에 반짝이는 별이 된다. 이 별은 조사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으며, 퐁퐁 닫힌 문 앞에서의 망설임을 줄여주고 다시 두드릴 수 있게 해 주는 용기를 준다.

- 대상작 「스도꾸와 옥쟁이 할머니」 중에서 -